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 생애사와 미술표현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 술 치 료 학 과

미 술 치 료 학 전 공

김 유 경

지도교수 최외선 김갑숙

2011년 6월

박 사 학 위 논 문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 생애사와 미술표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외선 김갑숙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학전공

김 유 경

김유경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2011년 6월

영남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문제	8
제3절 논문의 구성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제주4·3	10
1. 제주4·3의 정의	10
2. 제주4·3의 배경과 전개과정	11
3.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20
4. 제주4·3 선행연구	21
제2절 트라우마와 치료적 접근	23
1. 트라우마와 생애사	23
2. 트라우마와 미술표현	25
제 3 장 연구방법	28
제1절 연구 참여자 선정	28
제2절 연구절차	29
제3절 분석방법	36
제 4 장 연구결과	39
제1절 김인근 사례	39
1. 생애사와 미술표현	39
2. 생애사 재구성	85

3. 편지와 미술표현(본 인터뷰, 추후 인터뷰)	90
제2절 이명관 사례	114
1. 생애사와 미술표현	114
2. 생애사 재구성	137
3. 미술표현(본 인터뷰, 추후 인터뷰)	140
제 5 장 논의 및 결론	143
제1절 결과 및 논의	143
제2절 결론 및 제언	150
참고문헌	155
부록 I 생애사(제주어)	169
부록 II 동의서	209
부록Ⅲ 4권의 책에 수록된 작품 예(3차 추후 인터뷰)	210
Abstract	214

그림 목 차

[그림 1] 김인근의 가계도	40
[그림 2] 아버지의 산열매 도시락	44
[그림 3] 친언니	47
[그림 4] 줄넘기 놀이	49
[그림 5] 초등학교 운동회(안경 낀 할아버지와 손잡고 달리기)	52
[그림 6] 1949년 1월 8일,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58
[그림 7] 1949년 1월 8일, 올케언니	60
[그림 8] 1949년 1월 8일, 어머니의 충상	65
[그림 9]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의 도움	69
[그림 10] 어머니와의 추억	78
[그림 11] 자유로운 낙서	81
[그림 12] 초기 연상그림	96
[그림 13] 후기 연상그림	97
[그림 14] 과거의 4·3과 현재의 4·3	100
[그림 15]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작품	103
[그림 16] 4·3 당시 희생된 원가족과 현재 가족	109
[그림 17] 과거의 4·3과 현재의 4·3(본 인터뷰, 2009년 9월 실시)	112
[그림 18] 4·3 당시 희생된 원가족과 현재 가족(5차 추후 인터뷰, 2011년 4월 실시)	112
[그림 19] 이명관의 가계도	115
[그림 20] 옛 온신서당	119
[그림 21] 4·3의 전조	122
[그림 22] 길을 가던 중, 응원대와 마주치다	126
[그림 23] 애월지서에서 제주경찰서로 이송	127
[그림 24] 무죄 석방	128
[그림 25] 한국전쟁 중, 가설 통신 작업	130
[그림 26] 4·3 영혼들이여, 청나비로 환생하소서	140
[그림 27] 남방부전나비	141

편 지 목 차

《편지 1》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90
《편지 2》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91
《편지 3》 친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92
《편지 4》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93
《편지 5》 올케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94
《편지 6》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께 보내는 편지	95
《편지 7》 부모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107

표 목 차

<표 1> 연구절차	31
------------------	----

제1장 서론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이었다. 관광지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향리인 서촌(西村)은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하늬바람이 몰아쳐 굴 농사도 안 되는 한촌(寒村)이었다.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제나 죽은 마을이었다. 말하자면 삼십년 전 군 소개작전에 따라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향을 외면하여 살아오길 팔년, 그 유氓(流氓)의 십년 전으로 되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주저주저하며 다가가야 하리라.

-현기영, 순이삼촌(200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현대사에서 제주4·3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 흐름과 맥락을 짚을 수 없다.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사건이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점, 그리고 군부독재 정권 등 역대 정권이 이를 은폐·왜곡하며 진실을 덮어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를 확보하라.”는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의 지시(안재홍, 1965)와 “가혹하게 탄압하라. 그래야 미국의 원조가 적극화할 것이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기록돼 있는 국무회의록을 통해 제주4·3에서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제주4·3의 배후에 국가가 있었고, 의도적인 정치적 학살이므로(김영범, 1999), 제주4·3이 국가범죄라는 점, 좌익이 공격 목표였던 점, 대부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었던 점 등을 들어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있다(권귀숙, 2006).

4·3위원회가 국내외지역 신고자 14,028명을 집계한 결과 제주4·3 당시 남자 11,043명, 여자 2,985명이 희생되었고, 10세 이하 어린이가 814명, 61세 이상이 860명 희생되었다. 마을별 희생자로는 제주읍 노형리가 512명으로 가장 많고, 조천면 북촌리 462명, 표선면 가시리 419명, 제주읍 이호리 368명, 제주읍 화북리 297명으로 3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은 노형리·북촌리·가시리·이호리·화북리 등 5개

마을로 약 2,0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은 당시 162개의 마을 중 45개 마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¹⁾

최근 4·3위원회는 2000년 8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11년 1월, 16차 회의까지 희생자 수를 14,033명으로 결정했다(제민일보, 2011. 1. 26).²⁾ 그러나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는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³⁾ 이는 4·3이 발생한 지 50여 년이 지난 후 희생자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당시 직접 겪었던 체험자들이 대부분 사망하여 세부적인 사건 내용 파악이 어렵고, 당시 가족이 전부 몰살된 경우에는 희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기억의 공개를 억압해 온 소위 ‘조용한 사건’(권귀숙, 2003)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는 제주4·3은 강요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침묵을 지켜왔다. 과거 4·3의 공식 역사는 공산당 폭동론이며, 제주섬은 붉은 섬이었고, 제주인은 빨갱이었다. 이에 따라 공식 역사와 다른 기억의 공개는 금지되었고, 공개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해졌다(권귀숙, 2006). 이러한 시기 현기영이 1978년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하여 4·3 당시의 참혹함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다. 『순이삼촌』 발간 후, 현기영은 공안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고 소설집은 곧바로 판금조치되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은 오랜 세월 억압된 4·3을 받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 4·3연구는 가속화되면서 마당극, 무대극, 미술 등의 예술·문화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지속된 관심은 일천 명이 넘는 구술자들의 증언과 진상규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졌다. 노암 촘스키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대통령의 사과 소식을 듣게 돼 기쁩니다. 본인은 그와 관련된 어떠한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그 곳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이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

1) 이 집계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5월 30일 현재, 국내외지역 신고자 14,028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 4·3위원회는 2011년 1월 26일, 희생자 14,033명과 유족 31,255명 등 총 45,288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

3) 제주4·3 당시 제주도 인구가 28만~30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10% 정도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부시의 측근 가운데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매우 쉽게 잊습니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2003)⁴⁾-

대통령의 사과·유감 표명은 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 피해에 대해 과거 정부의 연속성을 가진 현 행정수반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 첫 사례임과 동시에 공권력에 의한 국민 희생임을 공식 확인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적 입장은 4·3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생존자들은 제주4·3의 트라우마를 60년 이상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삶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4·3 후유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⁵⁾ 증상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4·3 후유장애인 3명 중 2명은 당시 경험한 엄청난 충격 때문에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후유장애인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대상자들은 자아존중감과 불안증상에서 나쁜 결과를 보였고,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제주의소리, 2008. 4. 22).

제주4·3 후유장애인 중, 우측 다리 총상으로 후유장애 및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증언자는 “그때 일들로 악몽을 꾸다 깨어나면 식은땀도 많이 나고,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꿈이 더 안 좋아진다.”(고운섭 증언)고 하였고, 또 다른 이는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헛소리를 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오병옥 증언)고 증언하였다.

트라우마(trauma)⁶⁾를 경험한 사람은 생각이나 꿈속에서만뿐만 아니라 행위 중에서도 트라우마의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Herman, 1997). 나치 홀로코스트(Holocaust)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정신의학자인 엠마누엘 타네이(Emmanuel Tanay)는 “정신 병리는 성격상의 변화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대상관계 방해로, 그

4) 이 서한은 저명한 언어학자이면서 정치비평가인 노암 촘스키가 노무현 대통령의 4·3에 대한 사과와 관련한 의의를 2003년 11월 26일 제주4·3연구소의 요청으로 보내온 것이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는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 혹은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자신이나 타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한 뒤 겪게 되는 불안장애이며,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플래시백(flashback)과 같은 과거 외상 사건의 재경험, 무기력감, 감정의 둔화, 회피 현상 등을 보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6) 정신건강 영역에서 ‘트라우마(외상)’란 과도한 위협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Herman, 1997).

리고 직업, 세계, 인간, 신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논하였다(Krystal, 1968).

제주4·3이 제주도민들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이념에 의한 ‘피해의식’이다. ‘반공’이란 이름 아래 ‘빨갱이’이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멸시와 편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되는 독재정권으로 자신의 참혹한 경험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충격적인 경험은 삶의 질에 있어서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치 수용소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와 악몽 그리고 고통스러운 회상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다(Yehuda et al., 1995). 필자는 ‘2010 부산비엔날레’를 관람하던 중, 이샤이 가르바즈의 작품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접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가 나치 하에서 겪었던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수기로 기록한 여러 장의 글과, 작가 자신이 어머니의 수기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베를린,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 역사의 현장을 걸어 다니며 직접 촬영한 사진 연작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사건들이 어머니에게 일어난 건 60년도 더 지났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인 유산은 우리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면으로 자리 잡았다. 어머니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아 삶을 재건하는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 받을 뿐이었다.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도 그 장애가 나타났다.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는 그들과 함께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이샤이 가르바즈(Yishay Garbasz, 2010)-

인간의 정신은 동일한 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기억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신의 무의식적인 영역에 속해 있어 그 무의식계에는 기억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경험이 저장되며, 저장된 경험은 소생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Jonson & Jonson, 1992). 트라우마 사건의 영향력은 생존자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퍼져 간다. 생존자가 인생에서 새로운

7) 2010 부산비엔날레는 2010년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렸으며, 행사주제는 ‘진화속의 삶(Living in Evolution)’이다.

이정표에 도달하면, 회복 단계에서 충분히 해소되었던 문제들이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결혼, 이혼, 가족의 탄생과 죽음, 질병, 퇴직 등은 빈번하게 트라우마의 기억을 소생시킨다(Herman, 1997). 대량학살 등 감정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되새기는 경향이 강하고(Paez et al., 1997), 죽음의 목격, 잔인한 행위의 목격, 혹은 그 행위에 참여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험은 만성적이고 심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양종철, 2004). 희생자들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심리적으로 재경험과 부정하는 현상 사이를 강박적으로 반복한다(Horowitz, 1986).

오래 전부터 대량학살과 관련한 연구(Berry & Berry, 1999; Hirsh 1995; Hinton, 1998; Kelman & Hamilton, 1989; Milgram, 1974; Smith, 1998; Staub, 1989)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ates et al., 2007; Meier, 2002; Dekel, 2007; Minou, 2006). 캐롤 토슨(Carol Tosone)은 9·11 테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 그룹을 치료한 결과, “사고로 아동이 겪은 충격이 클수록 말로 표현을 못했다.”면서 “상담보다는 놀이, 요가, 연극, 미술 등 행동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나서 피해 아동의 정서 치료를 돕기 위해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원했듯 전문가의 개입과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강원일보, 2008. 3. 31).

반면, 국내에서는 제주4·3, 한국전쟁, 5·18 민주화 운동,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등의 대형 참사가 있었음에도 생존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심층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생존자의 트라우마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감을 통해 그들이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속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마련해 준다. 제주4·3생존자의 경우 머지않아 이들의 생이 마감된다는 점과 오랜 세월 억압과 억제된 삶을 살아왔던 점을 고려할 때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심리치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하나의 연구로, 제주4·3생존자의 뇌리 속에 각인된 트라우마의 기억을 풀어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생애사의 언어적인 측면과 미술의 시각적인 측면을 상호보완적으로 실시하여 제주4·3생존자의 심층 기억에 자리하는 잠재적 의미를 미술치료적 접근이라는 질적연구의 해석적 이해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사는 개인적 서술로서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과 타자들에 대한 개념을 그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1인칭 서술을 말한다(Personal Narrative Group, 1989). 생애사는 개인의 삶, 경험에 대한 역사이지만, 그의 이야기가 사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생애사에 나타난 주관적인 관점이 집단의 문화, 사회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은영, 2010; 유철인, 1998). 즉 생애사는 주체 속에 또는 객관적 사회세계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적으로 구성된다. 미드(Mead, 1968)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그는 사회적 행위를 타자와 연관된 개인적인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행위를 그 한 부분으로 포괄하는 복합적인 집단적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Joas, 1996; 이희영, 2005 재인용). 따라서 생애사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상호간의 소통을 지향함과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한편 미술이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관심이 증가되면서 심리치료의 한 영역으로 미술치료 분야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미국미술치료학회 창립 기준),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소개(한국미술치료학회 창립 기준)되었으나, 그림과 관련한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Buck, 1948; Burt, 1921; Goodenough, 1926; Cooke, 1885; Machover, 1949; Jung, 1956; Ricci, 1887; Malchiodi, 1998a 재인용).

미술표현은 환상, 창의력, 그리고 무의식적인 심상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며(wadeson, 1987), 경험과 작품에 대해 언어화하는 것을 돕는다. 나아가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심상으로 사고하는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클라이언트(client)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술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와 행동양식을 훨씬 더 잘 인식하게 한다(최외선, 2006). 전통적으로 미술치료는 트라우마를 중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뢰와 인내를 회복하기 위한 경험에 참여하도록 고무한다.

최근 국내에서 미술치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연구들 중에서 미술치료와 트라우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례연구(남데레사, 최외선, 2001), 트라우마로 인해 등원거부 행동을 보이

는 아동 연구(황정향, 박인전, 2005), 아동기 성학대 트라우마와 관련한 연구(전영희, 2007; 조정자, 2006),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작품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이미지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전순영,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 학살,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미술치료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거나 치료한 사례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제주4·3 당시 과잉진압 과정에서 겪은 학살의 기억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서 진행되어왔는지 생존자 삶의 궤적을 통해 들여다보고 또한 공감을 통해 그들의 심적 고통에 다가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제주4·3생존자에게 그 경험이 ‘어떠했는가를 묻는 것’,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귀 기울여 공감하는 것은 기록이 배제시킨 개인들과 집단 기억의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는 ‘지금 여기’의 맥락 속에서 ‘그때 그곳’의 상황을 제주4·3생존자의 직접적인 경험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얻는 것이며, 이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제주4·3생존자의 생애사와 미술표현을 통해 4·3의 기억과 트라우마, 치료적 접근,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생존자는 4·3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둘째, 생애사와 미술표현 접근이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생애사와 미술표현 접근 후, 과거 제주4·3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연구는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정신치료’의 개념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를 회복하도록 ‘돕는’, 혹은 ‘완화’하는 치료적 접근에 중점을 두었다.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일은 트라우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트라우마의 사건을 삶의 전체 맥락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인간이 경험한 어떤 상처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트라우마가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배우고, 트라우마를 포함한 과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미래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다(Hagemann, 1992; Thompson, 2000).

즉 트라우마의 경험을 되짚는 목적은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통합하는 데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제주4·3생존자의 ‘생애사와 미술표현’, ‘생애사 재구성’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주4·3의 정의, 제주4·3의 배경과 전개과정,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 선행연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트라우마와 생애사’, ‘트라우마와 미술치료’ 내용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3장은 연구방법으로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과 인터뷰 일정, 인터뷰 장소, 녹음방식 등의 세부적인 연구절차 내용이 소개되었다. 분석방법으로 숏제(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과 현상학적 미술치료 접근이 제시되었다.

제4장은 연구결과로서 연구 참여자의 개별 ‘생애사와 미술표현’, ‘생애사 재구성’이 제시되었다. ‘생애사와 미술표현’ 부분은 인터뷰 요약, 가계도, 연도별 주요기록, 문단나누기, 생애사, 미술표현 등으로 제시하였고, ‘생애사 재구성’ 부분은 ‘생애사와 미술표현’ 중에서 핵심적인 상황을 추려내어 4·3 도래, 트라우마의 기억, 4·3 후유증, 한국전쟁 등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의의, 연구의 한계점,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제주4·3

1. 제주4·3의 정의

제주4·3특별법⁸⁾은 제주4·3에 대한 정의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⁹⁾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¹⁰⁾와 토벌대¹¹⁾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식(2003)은 4·3은 미군 점령기 거대한 외압과 폭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정의로운 저항이며, 왜곡된 분단체제로 나아가던 남북한 정치권력 및 미·소 균정을 거부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깔고 일어난 민중들의 통일 운동이란 견해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 제정 2000. 1. 12. 법률 제6117호.
- 개정 2007. 1. 24. 법률 제8264호.
-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9)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4·3사건’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사건’이라 함은 ‘단순히 일어난 사소한 우발적인 일 또는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 있었던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3에 대한 정명(正名) 부여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찬식, 2008).

10) 무장대의 범주에는 무장대·유격대·자위대·인민군·폭도·공비·괴한 등이 포함된다.

11) 토벌대의 범주에는 경찰·군인·서북청년단·자경대·응원대·민보단 등이 포함된다.

2. 제주4·3의 배경과 전개과정

제주4·3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국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해방 후 제주도의 인구는 징병과 징용, 일본 노동시장에 나가 있던 주민들이 대거 귀환하면서 6만 명가량이 늘어났다. 이는 전국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인구 증가비율이었다. 이 같은 인구의 양적 팽창은 정치적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지만 일본군 6만 7천여 명이 11월 하순까지 제주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자치활동을 펴는 인사들을 총칼로 위협했으며, 서비행장 등에 쌓아 두었던 엄청난 군량미를 불태우기도 했다. 해방 후 43일 만인 1945년 9월 28일에는 미군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였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외상회의에 의한 반탁·신탁안쟁으로 인해 1946년 3월부터 5월 사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각각 열렸다. 1947년 7월까지 미군정에 등록된 정당 및 사회단체는 166개에 이르고 있었다. 이 가운데 70개의 우익정당 단체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던 6월 한 달 동안 서둘러서 등록되었다. 따라서 미군정의 좌파세력에 대한 탄압은 이념의 혼란 속에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1947년 2월에는 직접적인 반미시위, 이른바 ‘양과자 반대운동’과 ‘3·1절 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양과자 반대운동에 대해 독촉(獨促) 국민회의에서 “38선 신개화와 함께 들어온 눈깔사탕을 먹다가 망해버린 경험을 상기하라.” 외쳤고(제주신보, 1947. 1. 10), 중등교연맹에서는 “조선의 식민지화는 양과자로부터 막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원된 제주농고·오현중·교양(교원양성소) 학생 등 천수백 명이 관덕정에 모여 양과자 배격구호를 외치며 일대 시위행렬을 전개하였다(제주신보, 1947. 2. 10). 이러한 ‘양과자 반대운동’은 반미운동의 초보적인 형태

로 나타나면서 일반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 경찰관 출신의 증언자는 “미국은 당시 900만 톤의 양과자를 우리나라에 갖다 소비하려 했는데, 이것이 좌익의 미군 배척 계기가 되었다.”(오성찬, 1988)며, 이 사건은 반미감정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응원경찰의 입도 등 미군정의 물리력을 증강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리던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오후 2시께 기념행사가 끝난 후 군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다.

사건은 시위행렬이 관덕정 광장을 벗어난 오후 2시 45분께¹²⁾ 한 기마경관이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6세가량의 어린이가 말굽에 채이면서 시작됐다.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몰랐던지 그대로 가려고 하자 일부 군중들은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다. 당황한 기마경관은 군중들에 쫓기며 동료들이 있던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찰의 이 발포로 6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의 발포는 위협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경찰에 의한 3·1 발포사건은 서울의 미군 사령부에 즉각 보고되었다. 하지(John R. Hodge) 사령부는 1947년 3월 8일 카스텔(James A. Casteel) 대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단을 제주도에 내려 보냈다. 미군정 시절에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현역 미군 대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곧 미군 사령부에서 제주도 사태를 중시했음을 의미한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1947년 3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이 파업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근로자, 각급 학교, 심지어는 미군정청 통역단 등 공무원과 회사원, 노동자, 교사, 학생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제주 출신 경찰관 66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가 직장 이탈사태로 이들 모두 파면 처분되었다(서울신문, 1947. 4. 2).

미 24군단 주간정보보고서는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¹³⁾고 밝혔다. 경무부 최경진

12) 한성일보, 1947. 3. 4; Hq. 6th Inf Div, G-2 P·R, No. 500, March 2, 1947.

1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947.

차장은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를 가지고 있다.”(한성일보, 1947. 3. 13)며, 후속조치로 응원경찰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카스틸 대령이 제주를 떠난 다음날인 3월 14일 조병옥 경무부장과 응원경찰 421명이 급파되었다(당시 제주경찰은 330명). 조병옥은 15일에 파업 주모자를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사이에 200명이 연행되었다. 본토에서 파견된 수사요원들에 의해 연행자에 대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1947년 11월 25일, 서북청년회 제주도 위원장이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해 왔다고 보고하였고¹⁴⁾, 12월 13일은 제주 방첩대(CIC)가 “제주도의 여론은 만일 경찰이 빠른 시일 안에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모든 조직들이 제주경찰감찰청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¹⁵⁾

사태는 해가 바뀌면서 더욱더 악화되었다. 1948년에 미군정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유엔의 주관 하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섬 전체를 휩쓸었다(최호근, 2005). 남한만의 단독 선거 윤곽이 드러난 1948년 2월 이후 국내에서는 미군정과 좌·우파 간에 치열한 대립국면을 표출하였다. 미군정과 우파진영에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단속의 고삐를 한껏 죄기 시작했는가 하면 좌파진영에서는 이에 맞서 시위, 빨라살포, 전주절단, 철도파괴, 지서습격 등의 격렬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러다보니 곳곳에서 무력충돌로 비화되면서 인명이 살상되기도 하였다(제민일보 4·3취재반 1권, 1994).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미군정은 4월 5일에 제주도에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육지의 여러 도에서 차출된 경찰 병력 1,700명을 제주에 즉각 파견했고, 서북청년회¹⁶⁾도 대거 제주로 증파했

14) Hq. USAFIK, G-2 P·R, No. 693, November 25, 1947.

15) Hq. USAFIK, G-2 P·R, No. 708, December 13, 1947.

16) 4·3과 서북청년단(서청)과의 관계는 떼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다. 서청은 4·3의 진압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4·3 발발 이전에 이미 테러행위 등으로 제주도민의 감정을 자극,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제주도와의 악연을 갖고 있다. 서청은 평남청년회·함북청년회·함

다. 4월 20일에는 제5연대 소속 1개 대대가 제9연대에 투입되었다. 미군정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다. 어떻게든 ‘빨갱이 섬’ 제주도의 반란을 조속하게 평정하는 것이었다. 제주에서 일어난 불씨를 신속하게 끄는 데 실패한다면, 단독 선거는 물론 그 이후의 한반도 전체의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최호근, 2005).

단독 선거를 눈앞에 둔 1948년 5월 5일,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등 미군정 최고수뇌부를 이끌고 제주를 방문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제주 주둔 제59군정중대장인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9연대장 김익렬, 제주경찰감찰청장 최 천, 딘 장관 전속통역관 김 모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린 채 난장판으로 막을 내렸다. 아래의 글은 회의 중 벌어진 상황으로, 김익렬의 실록유고 『4·3의 진실』¹⁷⁾에서 발췌하였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공산주의 청년이 한 사람 있어 있소.” …(중략)… “민족주의 가면을 쓴 청년들이 먼 외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소. 바로 저 연대장이 그런 청년이요. 우리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저 청년의 아버지는 국제공산주의자이며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이북에서 공산당 간부로 열렬히 활약하고 있소. 저자는 자기 부친의 교화를 받고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며 자기 부친의 지령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하면서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다(더군다나 나의 부친은 내가 다섯 살 때 이미 작고한 분이였다). 딘 장군은 조병옥 씨가 나의 부친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럴싸하게 설명하자 깜짝 놀라며 의심에 찬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남대한혁명청년회·황해청년회 등 이북 출신 청년단체가 통합하여 19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이들 조직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 전취, 군등사회의 건설, 세계평화의 건설’이란 강령을 내세우면서도 ‘조선의 국제문제를 방해하는 음모자들을 제거한다.’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좌익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류상영, 1989). 그들은 좌익조직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좌익단체의 사무실을 급습하는가 하면 좌익혐의자에 대한 테러를 일삼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혈극이 난무했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 17) 1969년 육군중장으로 예편한 김익렬은 경남 하동 출생으로, 4·3의 기록들이 너무 왜곡된 데 공분, “역사의 증인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틈틈이 회고록을 써내려갔다. 그는 4·3의 원인을 ‘압정에 못 견디 일어난 도민 폭동’이란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사태 초기에 쉽게 끝날 수 있을 사건이었는데 미군정의 실정과 경찰의 진상 은폐로 인하여 엄청난 유혈사태로 비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8년 작고한 그는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 원고가 가필 없이 세상에 그대로 알려질 수 있을 때 역사 앞에 밝히려.”는 유언을 남겼다. 김익렬 유고의 중요성은 이 원고만큼 4·3에 얽힌 고위전략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이 아직까지 없다는 데 있다(제민일보4·3취재반 2권, 1994).

맨스필드 대령까지도 의외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중략)… 나는 미친 듯이 덤볐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딘 장군은 싸움은 말리지 않고 떠들고만 있는 안재홍 씨와 송호성 장군이 지금 무어라 말하고 있냐고 통역관 김 씨를 옆으로 불러 물었다. 그런데 이자의 통역이 또 괴변이다. 그 경황 중에도 내가 단상에서 듣자니 이자는 딘 장군에게 안재홍 씨와 송 장군이 연대장에게 “너는 공산주의자이며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통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화가 치밀 대로 치밀어서 …(중략)… 김 통역관에게 발길질을 했다 …(중략)… 미군정 최고수뇌회의가 아무런 결론 없이 유회된 다음 날 오전 11시경 제주읍 소재 연대임시본부 겸 연락소(일제 때 금융조합 건물)에 난데없이 경비대 총사령부 고급부관인 박진경 중령이 도착하였다. 나는 최고참모의 방문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의 후임 연대장으로 오늘 아침에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최고수뇌부회의 다음날인 5월 6일, 그동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에 박진경 중령을 임명했다.

9연대장의 전격 교체는 군지휘관의 얼굴을 바꾸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4·3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이 화평에서 토벌로 선회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2권, 1994).

1948년 5월 10일 예정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상황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전국적으로 5·10선거 반대자들에 의한 경찰서·선거사무소 습격이 줄을 이었다. 딘 군정장관¹⁸⁾은 남한 땅의 13,800여 개소의 선거사무소를 35,000여 명의 경찰력으로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4월 16일 향보단¹⁹⁾을 조직해 경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10총선거는 전국의 긴장 속에 치러졌다. 선거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내전에 준하는 폭력이 교차되기도 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 더욱

18) 딘 군정장관은 제주 방문 직후 연대장을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갓 창설된 11연대 1개 대대를 차출, 제주에 파병을 내렸다. 이로써 박진경 연대장은 기존 9연대의 1개 대대와 부산 5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 그리고 11연대 1개 대대 등 모두 3개 대대 병력을 확보, 본격적인 토벌전에 나섰다(제민일보4·3취재반 2권, 1994).

19) 딘 군정장관은 48년 4월 16일 전국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의 보조기능을 갖는 향보단을 조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향보단원이 된다. ②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는 각기 향토방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③ 향보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역 주민의 의연금으로 충당한다는 3개항으로 되어 있었다(제주신보, 1948. 4. 18).

심각했지만 팽팽한 분위기는 전국이 매 한가지였다(제민일보4·3취재반 2권, 1994). 5·10선거를 반대하는 유혈 사태가 전국적으로 줄을 이어 발생하고 좌파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는 김구, 김규식 등 우익과 중도와 민족주의자들까지 선거 반대에 나서는 가운데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가 제주도에서 벌어지자 미군정은 크게 긴장했다.

미군정은 1948년 5·10선거를 치르면서 소요지역인 제주섬에 미군과 경비대, 경찰,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독려했지만 그 결과는 순탄치 않았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 2권). 5·10선거가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 결과, 남제주군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오용국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북제주군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미군정은 북제주군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를 선언하며 재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재선거마저 무기한 연기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5·10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3권, 1995).

이에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 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도 최고사령관으로 파견해 모든 작전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다. 브라운 대령의 성향과 제주사건에 대한 그의 인식은 강경진압작전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법조·언론·재경제주도민 등 각계에서는 “4·3의 발발 원인에는 억압에 못이겨 민심이 폭발한 복합적인 것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해결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런 원인 치유책은 외면한 채 강경진압으로 치달았음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브라운 대령의 짧은 발언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브라운 대령은 “본관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약 2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처음부터 강력한 작전을 전개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이에 박진경 신임 연대장은 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강경작전을 벌였다. 한 미군보고서는 “11연대는 6주간의 제주도 작전에서 약 4,000명을 체포하여 심문 끝에 약 500명을 구속했다. 작전 중 경비대 사상자는 사망 3명, 중상 2명이었다.”고 밝혔다.²⁰⁾ 그러나 1948년 6월 18일 새벽,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그의 숙소에서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제민일보4·3취재반 3권, 1995).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당하자²¹⁾ 미군사령부는 6월 21일 새로운 11연대장에 최

20) Weeka, No. 27, July 2, 1948, RG-9: Radiograms (Messages), 24th Corps, Jan-Aug 1948, reel 274.

정록 중령을, 부연대장에 송요찬 소령을 임명하였다²²⁾. 경비대는 6월 21일, 6월 22일, 6월 25일, 6월 26일 잇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해 253명의 ‘폭도’를 체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이후 경비대총사령부는 7월 15일자로 경비대 제9연대를 부활시키면서 연대장에는 기존 11연대 부연대장인 송요찬 소령을, 부연대장에는 기존 11연대 대대장인 서종철 대위를 각각 임명하였다.²³⁾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하면서 예고되었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조선일보, 1948. 10. 20). 제9연대는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게릴라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²⁴⁾ 즉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모두 해안지대로 소개(疎開)시킨 뒤 게릴라들이 은거할 수 없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전략으로, 이를 어겨 중산간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은 ‘폭도배’로 간주, 처단한다는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3권, 1995).

1948년 11월 중순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중산간마을 거주자에게 통행금지를 포고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작전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4·3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이 불에 타는 등 글자 그대로 ‘초토화’됐다. 진압군은 중산간마을 방화에 앞서 주민들에게 소개령(疎開令)을 내려 해변마을로 내려오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혹은 채 전달되기 전에 진압군이 들이닥쳐 방화와 함께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남녀노소 구별

21) 박 대령 암살사건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하루 전인 1948년 8월 14일 열렸다. 재판부는 군대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경비대법 35조를 적용,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신상우·배경용 하사관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양희천 이등상사에게는 무기징역을, 강승규 중사에게는 5년형을 각각 언도했으며 황주복·김정도 하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조선일보, 1948. 8. 15).

22) Memorandum to Colonel Brown, 1948. 6. 21.

23) 총사령부 특명, 제88호, 1948. 7. 6.

24) Hq. USAFIK, G-2 P. R, No. 1097, 1949. 4. 1.

없이 집단희생을 당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948년 12월 29일, 제주 주둔군이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되었다.²⁵⁾ 2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부터 서북청년단의 위세가 더욱 드세졌다. 군 수뇌부는 함병선 제2연대장에게 강경작전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2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군·경에 파견하는 것이었다.²⁶⁾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군·경에 배치하려는 계획은 늦어도 1948년 11월말 경부터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남한 전역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서청을 군에 6,500명, 경찰에 1,700명가량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²⁷⁾ 서북청년 단원들은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집중 배치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청년 단원을 경찰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원 20명을 이끌고 온 자에게는 처음부터 경사 계급을, 50명 인솔자에게는 경위 계급을, 200명 인솔자에게는 경감 계급을 주는 혜택을 주면서 적극 유인했다. 실제로 서청의 중간 간부 출신으로 삼양지서 주임으로 근무했던 정용철은 자신의 휘하에 서청 단원들을 이끌고 온 대가로 처음부터 경위로 특채됐다(김시훈 증언).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사령관에는 유재홍 대령이, 참모장에는 2연대장 함병선 중령이 각각 임명되었다.²⁸⁾ 주둔군의 위상이 한층 격상된 것이다. 유재홍 사령관에게는 제2연대와 유격대대 외에 제주도 경찰과 응원경찰, 우익청년단 등을 통합 지휘하는 권한이 부여되었고(자유신문, 1949. 5. 19), 강경작전과 함께 ‘선무공작(宣撫工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월 10일 제주 시찰에 나선 이범석 총리는 “토벌은 능률적으로 하는 한편 선무공작을 활발히 하여 관대한 태도로써 폭도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작전 방침을 시사했다(자유신문, 1949. 3. 16).

그러나 “내려오면 살려 준다.”는 선무작전에 따라 백기를 들고 삼삼오오 하산한 주민들은 주정공장 등에 갇혀 있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군 당국은 원래의 회유방침을 무시하고 강경한 처리로 일관하였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박찬식, 2008 재인용). 유 대령이 제주를 떠나고

25)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2집, 1948. 12. 29.

26)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 1. 20.

27) Hq. USAFIK, G-2 P. R, No. 1005, December 6, 1948.

28)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 3. 2.

난 후 1,600여 명이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무장대가 대부분 궤멸되어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작년에 무산되었던 제주도 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49년 4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직접 제주를 찾아 치안상황을 점검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949년 5월 10일에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유권자 등록률은 갑 선거구 96%, 을 선거구 97%로 1년 전과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투표율도 갑 선거구 97%, 을 선거구 99%를 기록했다(국도신문, 1949. 5. 15). 개표 결과 북제주군 갑 선거구에서는 홍순녕, 을 선거구에서는 양병직이 당선되었다(국도신문, 1949. 5. 14).

이에 따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1949년 5월 15일자로 그 임무를 2연대에게 맡기고 공식 폐지되었다. 제주는 다시 2연대 함병선 연대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사령부 폐지와 동시에 2연대 제3대대가 제주를 떠난 데 이어 5월 25일에는 유격대대가 배속 해제돼 철수함으로써 병력이 크게 줄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949년 6월 7일,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사살되었다. 무장대 세력이 이미 와해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덕구²⁹⁾는 김달삼³⁰⁾에 이어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주는 영향은 컸다(동아일보, 1949. 6. 10).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 이 지시문은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하달된 것인데, “전

29) 이덕구 : 1946년 3월에 개원한 조천중학원에서 1947년 3월 총파업 이전까지 역사와 체육 담당교사로 재직하였다. 1948년 8월 해주 대표자대회 참가를 기점으로 지도부가 교체될 때 2대 유격대장으로 군사부 총책이 되었다(이제사 말함수다 1권, 1989).

30) ① 김달삼 : 김달삼의 본명은 이승진으로 대정면 영락리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대구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대구 10월항쟁에 참가하였다. 1946년 말 제주도로 돌아와 남로당 대정면당 조직책을 지냈다. 3·1사건 이후 도당 조직책이었다가 1948년 도당 군사부책을 맡았다. 4·3 발발 후 인민유격대사령관으로 4·3무장투쟁을 주도하였으나 8월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해주로 떠나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및 김일성, 허헌 등과 함께 49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으로 선출된다. 1949년 8월 인민유격대 태백산지구(제3병단) 사령관이 되어 남하 1950년 3월까지 유격활동을 지휘하였다(양정심, 1999).

② 김달삼의 월북 : 무장봉기를 주도했던 김달삼의 월북이 곧 제주4·3사건 발발 때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된 남과 북에 적대적인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무장대 지도부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는 더욱 강경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무장대 총책이던 김달삼이 제주도를 떠남에 따라 무장대 조직은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덕구가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의 지휘 총책으로 나서게 되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과 “전국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었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

제주에서 이송된 4·3 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한국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제주에서의 토벌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었고, 1957년에 마지막 무장대원이었던 오원권이 체포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저항과 진압, 그리고 학살은 모두 끝이 났다. 제주도 경찰국이 한라산 금족지역을 개방한 것은 1954년 9월 21일이었다.

3.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생존자들은 반세기 넘게 숨죽이며 살아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던 제주도는 4·3이 일어나면서 정신적·물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도민의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학살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던 ‘빨갱이’의 논리는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웃을 밀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죽이도록 하여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자행되었고, 나아가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제주4·3이 갖는 역사적 의미로 주목할 점은 학살로 얼룩진 폭력적인 갈등이 성찰과 화해를 통해 평화에 대한 지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박명림(2006)이 “과거 제주4·3의 정신을 살려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제주4·3이 남긴 희생 값이며 평화정신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제주4·3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은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수준 높은 성찰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즉 깊은 성찰이란 잊힌 자, 사라져 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실존적 체험의 심연을 함께 공감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진성(2007)은 20세기 전쟁 기념 문화는 단지 전쟁 내러티브의 표면적 내용이거나 현실적 기능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내러티브를 거슬러가며 트라우마의 증상을 찾아내고 그 속 깊숙이 울려나오는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는 이들의 경험에 경청하고 공감할 때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나아갈 때 화해와 상생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4. 제주4·3 선행연구

제주4·3이 오랜 세월 금기시 되어온 탓에 4·3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 4·3연구가 전무한 상태는 아니었다. 김봉현, 김민주(1963)가 좌익적 시각에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일본에서 출간하였고, 김점곤(1973)이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에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4·3을 서술하면서 4·3의 배경, 전개, 실패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1980년 후반, 오성찬(1988)의 증언집 『한라의 통곡소리』, 제주4·3연구소가 펴낸 증언집(1989, 1989) 『이제사 말함수다 1, 2』, 제주4·3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연구한 박명림(1988)의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양한권(1988)의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1990년대, 제민일보4·3취재반(1994, 1994, 1995, 1997, 1998)이 『4·3은 말한다 1, 2, 3, 4, 5』를 통해 이전보다는 체계적인 증언 자료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제주4·3연구소 편(2002) 『이제사 말함수다 3』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이제사 말함수다 1, 2』에 이은 4·3증언 채록집으로 4·3수형인들의 일치된 증언을 통하여 그들이 받은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였는가를 알리고 있다. 고성만(2005)은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을 통해 4·3이 어떠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허호준(2007, 2010)은 『제주4·3 전개과정에서의 5·10선거의 의미』를 통해 미국이 제주4·3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5·10선거에 초점을 두면서 규명하였으며, 또한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 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제주4·3과 그리스내전이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리와 구조 속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제주4·3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에 가까운 25,000~30,000명이 희생된 이유를 국제적 맥락에서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제주4·3을 항쟁의 시각에

서 연구한 양정심(2008)의 『제주4·3항쟁』, 제주도민의 4·3에 대한 기억과 망각을 살펴본 권귀숙(2003)의 『제주4·3의 기억들과 변화』 등이 있다.

생애사와 관련하여서는 4·3수형인 여성 노인이 4·3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이 수형인 여성 노인의 4·3 해석은 어떤 의미인가를 (재)해석하는 부분에 초점을 둔 유철인(2004)의 『제주 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연구, 재일 제주도 출신 여성 김동일의 삶을 심층 인터뷰하여 4·3 당시의 삶과 일본에 안착하는 과정, 현재 일본에서의 삶을 다룬 김창후(2008)의 『자유를 찾아서』, 제주4·3연구소(2009)가 펴낸 활동가 및 유가족, 후유장애인, 호적문제 피해자 등 10명의 이야기를 담은 『그들 속의 4·3』 등이 있다. 회고록으로는 비전향 장기수 고성화(2005)의 『통일의 한 길에서』, 김병두(1999)의 『나의 삶 나의 인생』 등이 있다.

그동안 4·3연구는 구술을 통해, 혹은 문헌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되었다. 박찬식(2008)은 4·3연구는 많은 자료들을 잘 읽어내고 정리·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학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4·3의 실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서 전체상을 복원해야 하며, 나아가 집단 기억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4·3과 관련한 생존자의 구술 증언들이 부분적으로 제시됨으로 인해 심층적인 면이 간과되었다고 보고,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발자취를 통해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트라우마와 치료적 접근

1. 트라우마와 생애사

현재 서구 학계는 물론이고 국내 학계에서도 구술 자료의 활용도가 역사학, 사회학, 언어학, 심리학, 예술학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생애사 연구는 생애사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개인은 생애기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이력 즉 생애사를 만들어 간다(이희영, 2005).

생애사 연구의 역사적 뿌리는 인간의 성격 발달에 관심을 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서 개개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일종의 체험자료 또는 치료방법으로 사용하였던 프로이트(Freud)의 방법과 발견들은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세우고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심리학에서는 1942년 알포트(Allport)가 개인기록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개인기록과 생애사 연구와의 연관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Thomae, 1969; 이효선, 2006 재인용). 생애사는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자료로 인식되어왔으나, 1980년을 전후로 생애사를 자기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 그 자체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Crapanzano, 1980; Langness & Frank, 1981; Watson & Watson-Franke, 1985).

생애사의 특징이 삶과 역사,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야기를 통해 연결되고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사 인터뷰는 우리 삶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생애사는 기억을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재구성되는데, 구술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체험한 ‘객관적인’ 과거 사실을 단순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일상세계 속에서 구성되는 ‘정상적인 것’에 대한 상관관계로서의 ‘병리적인 것’, 혹은 ‘말한 것’이 지시하는 ‘말하지 않는 것’, ‘이성’이 지시하는 ‘비이성적인 것’, ‘문화적인 것’과 그것에서 ‘배제된 것’들을 모두 포괄한다(Fischer & Kohli, 1987; 이희

영, 2005 재인용). 그러므로 구술된 이야기 내용 중에는 구술자의 과거 체험을 보여주는 생애기록과 이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 혹은 분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았던 실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과정을 개인의 삶에 녹이는 것이며, 집단의 역사, 사회의 주체성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피셔-로젠탈과 알헤이트(Fischer-Rosenthal & Alheit, 1995)은 생애사는 어떤 개인이 살아오면서 하게 된 모든 행위의 총합이나 혹은 객관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의 더미가 아니라, 그것의 구조화된 자기상이라고 보았다.

톰슨(Thompson, 2000)은 구술사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영웅임을 드러내며 피지배계층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술 증거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술 자료는 첫째, 하나의 텍스트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어떤 내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하나의 증거로서 그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 구술 증거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인터뷰가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태도의 상징적 증거인지, 사실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생애사 연구는 구술자가 말하려는 주제와 문제가 무엇이든 고려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용이한 조사방법이 될 수 있으며(Cohler, 1988),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전략과 행위 결정 방법들을 통해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이를 재구성하여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관심을 둔다. 나아가 톰슨(Thompson, 1992)은 노인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의 연계성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는 개인의 적응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생애사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의 ‘생애사’ 혹은 ‘생애사와 트라우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삶을 자녀,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 구분하여 한국 여성 세대의 삶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 연구(이효선, 2009), 소외된 빈곤여성 8명에 관한 생애사 연구(안 진, 2006), 노년기 자아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는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김은정, 2008), 양육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들의 삶의 과정을 서사분석의 방법을 통해 탐색한 연구(이재인, 2005), 내러티브(narrative) 구성이 스트레스가 심한 경험을 회복하거나 또 다른 스트레

스 사건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Harvey et al., 1991; Meichenbaum & Fitzpatrick, 1993; van der Kolk & Fisler, 1995), 그리고 대량학살 사건에 노출된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재구성하여 트라우마로 인한 내적인 상실을 회복한 보고(Sewell, 1996) 등이 있다. 대량학살로 인한 트라우마 경험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가정된 세계, 이해의 기틀을 서서히 와해시킨다.

아르치에로와 귀다노(Arciero & Guidano, 2000)는 충격적인 경험은 충격적 단서를 회피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전적 연속성 (autobiographical continuity)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익숙했던 습관에 대해 일관성을 잃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양커스미트(Ankersmit, 2000)는 트라우마가 한편으로는 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망각된다함은 트라우마가 일상적 기억에서 이탈된다는 것이고, 기억된다함은 트라우마가 신경증 등을 통해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억압된 기억 불러내기로서의 생애사가 개인의 트라우마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집단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2. 트라우마와 미술표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술의 풍부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종종 경험한다. 누구나 어린 시절 소위 ‘종합장’이라고 불리는 공책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비 갠 후 축축이 젖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낙서하며 즐거워했던 적이 떠올릴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미술적인 삶’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머플러를 사기 위해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고르거나 양복과 넥타이 색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 등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미술적인 삶을 경험한다. 미술활동은 사고의 경계와 한계를 확장하고, 내·외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기회를 주는 표현방식들 중 하나이다.

철학자 랭거(Langer, 1957, 1958)는 “말과 함께 새로운 경험이나 직접적 감각을 전달하기 원할 때 은유를 하기 위해 미술의 심상에 의지한다.”며 단어로 설명

할 수 없는 경험을 표현하고 사고를 명료화하는 방법으로서 미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술과 꿈의 시각적 상징에 관심이 많았던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치료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 혹은 정서와 사고를 구체화하거나 꿈을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였다.

미술표현은 자기 반영과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보게 한다. 즉 ‘미술의 대상’은 고유한 자기직면과 관점을, ‘미술작업’은 무엇인가 숙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이끌어낸다(Wadeson, 198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카타르시스와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켜 두려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미술치료는 변화를 위한 작업 과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시간이 필요하다. 미술은 갈등, 강한 감정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행동수정과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삶의 환경들은 그림에서 이미지를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Malchiodi, 1998b).

그렇더라도 미술치료는 본질적으로 자아(ego)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표현되며, 정신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정신치료를 보완하거나 지지하는 치료적인 환경 요소를 구성함으로써(Kramer, 2000), 새로운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미술의 가장 큰 이점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미술치료에서 창조적 상황은 자유의 경험을 제공하며, 자유의 경험은 결코 측정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정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Rubin, 1984).

특히 미술치료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무의식을 이끌어내어 트라우마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Malchiodi, 1998a; Malchiodi, 1998b). 칸터는 나치 하에서의 체험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시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몰두하여서 생존에의 본능을 밖으로 이끌어냈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관찰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최소한 몇몇의 순간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었다.

-칸터(Kantor, 1971)-

그림을 그리는 것은 칸터가 기록하는 기억들의 이미지를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로 하여금 무기력한 희생자 역할에서 빠져나와 관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톨(Toll, 1993)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술표현을 통해 자기 안의 두려움, 고통, 전쟁 기간에 경험했던 두려웠던 사건들을 표현하였다. 그 결과 ‘미술’은 공포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험들에서 탈피하여 희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Kramer, 2000).

말키오디(Malchiodi, 2006)는 2004년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 사태에서 자연재해나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들의 회복에 미치는 미술과 창조적 제작 과정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연안을 강타했을 때, 한 아동이 그림을 통해서 집과 소지품을 잃은 가족의 상실감과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올 것 같은 공포를 표출할 수 있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미지를 만들고 반복해야 할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하였다.

미술표현에는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 경험이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감정들이 미술표현에 보여질 수 있다(Miller, 1986). 감정적인 경험은 트라우마의 중요한 부분으로, 페니베이커(Pennebaker, 2004)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동안이나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느끼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데 미술표현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생애사에서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주4·3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이곳에 비치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구술채록 명단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경력의 구술채록 전문가 1인과 연구 참여자³¹⁾ 선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분적인 증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를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인원(남자 1명, 여자 1명) 선정을 고려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생애사 인터뷰는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인터뷰’의 경우 최소 7일 이상, 2시간씩 ‘생애사³²⁾’와 ‘미술표현’이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특징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과 충분한 동의가 필요했다.

연구 참여자의 예기치 않은 상황, 즉 작고했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여 예비인원 20명을 선정하였다. 예비인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4·3 발발을 기준으로 당시 나이가 13세 이상 된 자(당시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 ② 대화가 가능한 자, ③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자, ④ 자발적 참여자, ⑤ 구술자 성향, ⑥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이다. 위의 6가지 선정기준 중 ②, ③은 구술채록 전문가가 인터뷰할 당시의 건강상태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연로한 분들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다.

실제로, 예비인원 20명을 선정한 후에 전화연락을 했을 때 이미 작고한 분이 있었고, 건강이 좋지 못해 동의를 못한 분, 첫 인터뷰에서는 허락했으나 다음날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 전화연결이 안 되는 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김인근’, ‘이명관’은 위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분들이다.

3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구술자’, ‘클라이언트(client)’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32) ‘생애사’란 용어는 부분적으로 ‘구술’, ‘내러티브(narrative)’, ‘서사’로 사용되었다.

제2절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제주4·3생존자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 김인근(여, 77세, 2011년 현재)과 이명관(남, 85세, 2011년 현재)의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생애사 인터뷰의 경우 라포(rapport)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라포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호칭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였으며, 연구자의 부모님 또한 4·3 경험 세대임을 알려드렸다. 이는 첫 대면으로 인한 심리적 이질감을 최대한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지속하고 인터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감적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포형성에서 공감은 중요한 요소로 초기의 공감은 차후의 성공을 예언해 주며, 공감적 이해는 연구 참여자(구술자)가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Tausch et al., 1970; Truax & Carkhuff, 1967).

공감은 ‘거리를 둔 관심’이 아닌 고통 그 자체에 대한 공감으로,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진실한 방법이다. 라카프라(LaCapra, 1994)는 트라우마에 대한 취급방식의 대안으로 공감(empathy)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인식의 대상으로서 ‘객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되어야 하며, 트라우마는 ‘증거’는 아니지만 무언가 소중한 진실을 증언한다. 나아가 공감이란, 극도의 마비를 겪은 타인의 고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에 부단히 다가서려는 진지한 노력이다. 라카프라는 이러한 의미의 공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트라우마가 역사적 객관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전진성, 2007).

인터뷰 과정은 쉷제(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를 참고하였다. 쉷제의 이야기식 인터뷰는 각 개인의 역사적 실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발달된 자아와 사회적인 경험들이 그들 삶 속에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개발되었다. 쉷제의 이야기식 인터뷰는 표준화된 인터뷰와는 달리 연구자의 간섭 없이 연구 참여자가 겪은 경험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즉흥 이야기란, 이야기의 준비 또는 표준화된 질문들을 통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 즉석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Garz & Lee, 2000). 따라서 질문의 형태는 연구 참여자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스스로 선택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예 : “4·3 당시 겪었던 삶

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을 하였다. 이야기식 인터뷰 과정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된다(이효선, 2007).

1) 이야기 요구단계

구술자는 자기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신뢰감 형성이다.

2) 중요 설명단계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이때 연구자는 구술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실마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야기 도중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구술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중단 없이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3) 후 질문단계

구술자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종료하면 연구자는 이야기 속에서 모순되거나 생략된 부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구술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후 질문은 구술자가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 중 잘 이해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을 질문하는 ‘내재적 질문’과 구술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더 이야기하도록 질문하는 ‘외재적 질문’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1> 연구절차

일 시		내 용	
2009년 8월 21일~9월 7일		· 제주4·3연구소 방문 · 제주4·3연구소 구술채록 전문가 1인과 연구 참여자 선정에 대해 논의 · 예비인원 20명 선정, 이 가운데 동의를 밝힌 최종 연구 참여자 2인 선정	
김인근 (여)	2009년 9월 8일~9월 20일 사이(11일간 실시)	본 인터뷰 (1일 2시간, 총 22시간)	· ‘생애사’와 ‘미술표현’
	2009년 12월 24일	1차 추후 인터뷰 (2시간)	· ‘본 인터뷰’의 ‘생애사’ 전사 내용 확인
	2010년 10월 21일	2차 추후 인터뷰 (2시간)	· ‘생애사’ 재확인 (모호한 날짜, 나이, 장소, 시간적 순서 등 확인)
	2011년 2월 18일	3차 추후 인터뷰 (2시간)	· 작품에 투영된 현재 심리
	2011년 4월 16일	4차 추후 인터뷰 (3시간 30분)	· ‘본 인터뷰’의 ‘생애사’ 부분 최종 재확인 · ‘생애사 재구성’과 ‘결론’ 부분 확인
	2011년 4월 18일	5차 추후 인터뷰 (1시간 30분)	· 미술표현에 나타난 현재 심리
	2011년 5월 31일	6차 추후 인터뷰 (1시간)	· 인쇄 전 논문의 구성 살피기 · 마무리 인사
	인터뷰 장소	김인근의 집	
	녹음방식	MP3 음성녹음	
이명관 (남)	2009년 10월 5일~10월 12일 (8일간 실시)	본 인터뷰 (1일 2시간, 총 16시간)	· ‘생애사’와 ‘미술표현’
	2009년 12월 22일	1차 추후 인터뷰 (2시간)	· ‘본 인터뷰’의 ‘생애사’ 전사 내용 확인
	2010년 10월 19일	2차 추후 인터뷰 (2시간)	· ‘생애사’ 재확인 (모호한 날짜, 나이, 장소, 시간적 순서 등 확인)
	2011년 2월 19~20일	3차 추후 인터뷰 (1일 1시간, 총 2시간)	· 작품에 투영된 현재 심리
	2011년 4월 17일	4차 추후 인터뷰 (1시간 30분)	· ‘본 인터뷰’의 ‘생애사’ 부분 최종 재확인 · ‘생애사 재구성’과 ‘결론’ 부분 확인
	2011년 4월 18일	5차 추후 인터뷰	·
	2011년 5월 31일	6차 추후 인터뷰 (1시간)	· 인쇄 전 논문의 구성 살피기 · 마무리 인사
	인터뷰 장소	이명관의 집	
	녹음방식	MP3 음성녹음	

‘1차 추후 인터뷰’는 연구자가 전사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받는 과정이다. 생애사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 타인의 이름이 실명으로 사용된 경우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거나 성(姓)만 밝혔다(예 : 김OO).

‘2차 추후 인터뷰’는 모호한 날짜, 나이, 장소, 시간적 순서 등을 연구 참여자와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3차 추후 인터뷰’는 그동안의 과정이 연구 참여자의 심층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작품³³⁾을 통해 현재 심리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총 4권의 책이 활용되었다. 활용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① 4권의 책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 감상, ② 4권 중 1권 선택, ③ 선택한 1권의 책에서 선호하는 한 작품 선정, ④ 선정된 작품에 자신의 현재 심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4권의 책을 선정하게 된 데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하는 동안 개인의 성향을 파악한 데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김인근의 경우 추상 표현에 근접한 그림을 그린 후[그림 14],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하였다. 따라서 순수추상 회화를 제시할 경우 김인근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명관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뚜렷하여 명확한 형상의 작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두 연구 참여자의 종교가 불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교적인 작품에 그들의 심리가 투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추측에서 제시되었을 뿐, 최종적으로 작품을 선택하는 주체는 연구 참여자이다. 4권의 책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마크 로스코』

이 책은 ‘순수추상 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년)는 러시아 태생 유대인으로서 그가 10세 되던 해인 1913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2년 공부를 마치고 중퇴하였다. 이후 46년의 세월이 지난 1969년에 예일대학교에서 명예 미술박사학위를 받았다.

33) 작품이란 ‘마크 로스코의 그림’, ‘고려불화’, ‘사진’을 말한다.

마크 로스코는 추상회화의 본질과 형상에 혁명을 일으킨 미국인 화가 세대에 속한다. 다양한 형상적 표현으로부터, 관람자가 회화와 맺는 적극적 관계에 뿌리를 둔 추상양식으로 이르는 양식적 발전은 회화에 있어서의 급진적 비전을 구체화했다. 로스코는 이러한 관계를 “회화와 관람자 간의 완전한 만남의 경험”이라고 했다. 그의 색 구성은 관람자를 내적 빛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는 주로 관람자의 경험 즉 작품과 수용자의 언어적 이해를 넘어서는 합일에 관심을 가졌다(Baal-Teshuva, 2006).

2)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이 책은 ‘구체적인 형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자연과 문화를 제시한 자료이다. 제주의 역사, 제주세계자연유산, 해양생물, 육상식물, 버섯, 육상동물, 민속문화 등 제주의 자연생태와 고유의 민속을 소개한 사진 자료이다.

3) 『고려불화』

이 책은 두 연구 참여자의 종교가 불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불교사상과 경전에 대한 이해 등을 토대로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넓히고 있으며,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고려불화를 싣고 있다.

4) 『나비일기』

이 책은 나비 도감집의 일종으로, 이명관의 ‘3차 인터뷰’시 위 3권의 책에는 없는 ‘청나비’를 희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연구자는 『나비일기』를 구입하여 다음날 재방문하였다. 이 책은 이명관에게만 제시되었다.

‘4차 추후 인터뷰’는 ‘생애사’와 ‘생애사 재구성’, ‘결론’ 부분의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와 확인·검토하는 과정이다.

‘5차 추후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마무리 미술표현으로, 미술작업을 통해 현재의 심리를 표현하는 시간이다. 이날 김인근은 미술작업을 하였으나, 이명관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미술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6차 추후 인터뷰’는 인쇄 전 논문의 구성을 연구 참여자와 함께 살펴보고, 그 동안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본 인터뷰’와 ‘추후 인터뷰’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인터뷰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21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총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김인근 34시간**(본 인터뷰 22시간, 추후 인터뷰 12시간), **이명관 24시간 30분**(본 인터뷰 16시간, 추후 인터뷰 8시간 30분)이다. ‘본 인터뷰’ 시간대는 가족 구성원이 외출하고 없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실시하였다. ‘추후 인터뷰’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4시 사이에 유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요시간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생애사와 미술표현을 읽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둔다.

1) 텍스트 정리

본 연구의 텍스트는 연구자가 채록, 제주어 전사, 표준어 대역을 하였고, 제주어 표기법에 따른 ‘제주어 표기’³⁴⁾는 제주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2) 텍스트 읽기

본 연구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생애사’의 줄임표(……)는 구술자가 말끝을 흐리거나,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될 때, 침묵이 흐를 때 사용하였다. 큰따옴표(“ ”)는 과거의 대화 혹은 과거 구술자의 말이 재현될 때, 작은따옴표(‘ ’)는 구술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강조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애사 재구성’에서는 큰따옴표(“ ”)의 경우 ‘생애사’의 내용을 인용할 때, 작은따옴표(‘ ’)는 연구자가 강조할 때 각각 사용하였다.

34) 제주어 표기법의 예 : 하다(爲) → 헸다, 하나(-) → 헸나, 마음(心) → 멍음

3) 미술표현

화지의 크기는 5절(440mm×317mm)을 사용하였으며, 매체는 한국화 물감, 붓, 붓펜, 먹, 화선지, 색지, 사인펜, 색연필, 파스텔 등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참여자 모두 연필과 지우개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재료가 친근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 제시된 연구 참여자의 미술표현은 연구자가 그려주거나 가필하지 않았으며, 온전히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것임을 밝혀 둔다.

4) 편지쓰기

편지쓰기는 김인근에게만 실시되었다. 이는 인터뷰 중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형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형제’라는 인식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연구자가 “돌아가신 부모형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쓰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향을 물어보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김인근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편지쓰기는 인터뷰 시간이 아닌, 김인근이 자유로운 시간에 쓰도록 하였다.

5) 연구 참여자의 실명 기재 여부

김인근은 실명 사용을, 다른 연구 참여자는 가명(이명관)을 희망하였다. 이 가명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지은 것이다. 김인근의 실명 사용 허락은 ‘김인근 자신’과 ‘첫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있었다.

제3절 분석방법

1. 쉘제(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과정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은 독일의 언어 사회학자 쉘제(1981, 1984, 1987, 1989)에 의해 개발된 ‘이야기식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 쉘제의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과정’을 참고하였다. 쉘제가 체계화한 이 분석과정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각 단계의 형식은 ① 형식적 문장 분석단계, ② 구조적 기술단계, ③ 분석적 추론단계, ④ 비교·분석단계로 이루어진다(Bartmann, 2005; 이효선, 2009).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4단계를 2단계로 수정하였다. 즉 ①, ② 단계를 ‘생애사’로, ③, ④ 단계를 ‘생애사 재구성’으로 제시하였다.

1) 생애사

(1) 형식적 문장 분석단계

연구자는 먼저 인터뷰를 정독하며 구술자가 구성한 생애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삶을 요약하여 생애 전체를 파악한 후, 중요 사건을 형식적 단락의 구분과 주제 요소의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분절과 부호들에 의한 부분으로 나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이 의사소통 양상 분석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단계적 상호작용 상황, 연구 참여자와 다른 사람들의 말의 인용 등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여 자료의 질을 평가한다(Hermanns, 1987).

(2) 구조적 기술단계

삶의 과정과 문맥 속에 포함되어진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과 그 밖의 사회

화 과정(어린 시절, 학교생활, 삶을 변화시켰던 사건 등)을 구조적으로 기술한다. 구조적 기술은 이야기의 형식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방식, 태도 또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자의 편견과 왜곡이 배제되도록 해석적 추론은 미리 하지 않고,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경험되고 기억되어지는 사건들의 연대순과 사실상의 연속성들을 구조화한다.

2) 생애사 재구성

(1) 분석적 추론단계

구조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적인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이야기 단락들의 추상적인 진술은 다른 것과 관련되어 생애사 전체가 추론된다. 생애사 모양 혹은 형태가 구성되고 외부로부터의 이론상의 지식이 해석학으로 포함될 수 있다.

(2) 비교·분석단계

생애사 내용들이 특수성과 보편성의 비교점에 의해 대조된다. 이러한 비교·분석 과정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에 도달하게 된다. 각 사례들의 경험적 사실들은 상호주관성으로 끊임없이 고찰되고 반성됨으로써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재구성 작업이 진행된다.

2. 현상학적 미술치료 접근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중기 이후로 철학에 알려졌으며,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주제로 발전시켜 왔다. 20세기 무렵 후설(Husserl)은 의식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경험으로 의식에 표상되는 사물과 대상에 대한 현상학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Husserl, 1913; Rubin, 1987 재인용). 특히 현상학은 인본주의적 심리치료에 영향을 주었는데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완전히 탐색하도록 하였다(Rubin, 1987). 이는 생애사 분석의 한 방법인 슛제의 ‘이야기식 인터뷰’의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슛제의 ‘이야기식 인터뷰’가 연구자의 간섭 없이 연구 참여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점, 연구자에 의한 표준화된 질문이 아닌, 즉석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치료에서의 ‘현상학적 접근’과 생애사에서의 슛제의 ‘이야기식 인터뷰’는 개인의 주관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지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미술치료의 방법론적 특징 중, ‘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것이며 거기에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Merleau-Ponty, 1962), 즉 기존 개념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눈으로 미술표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미술표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자는 조용히 참여하였다(그렇다고 수동적이지는 않았다). 나아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 혹은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 4 장 연구결과

이 장은 숫제가 제시한 이야기식 인터뷰의 분석과정 4단계(① 형식적 문장 분석단계, ② 구조적 기술단계, ③ 분석적 추론단계, ④ 비교·분석단계)를 본 연구에 맞게 2단계로 수정하였다. 즉 ①, ② 단계를 ‘생애사’로, ③, ④ 단계를 ‘생애사 재구성’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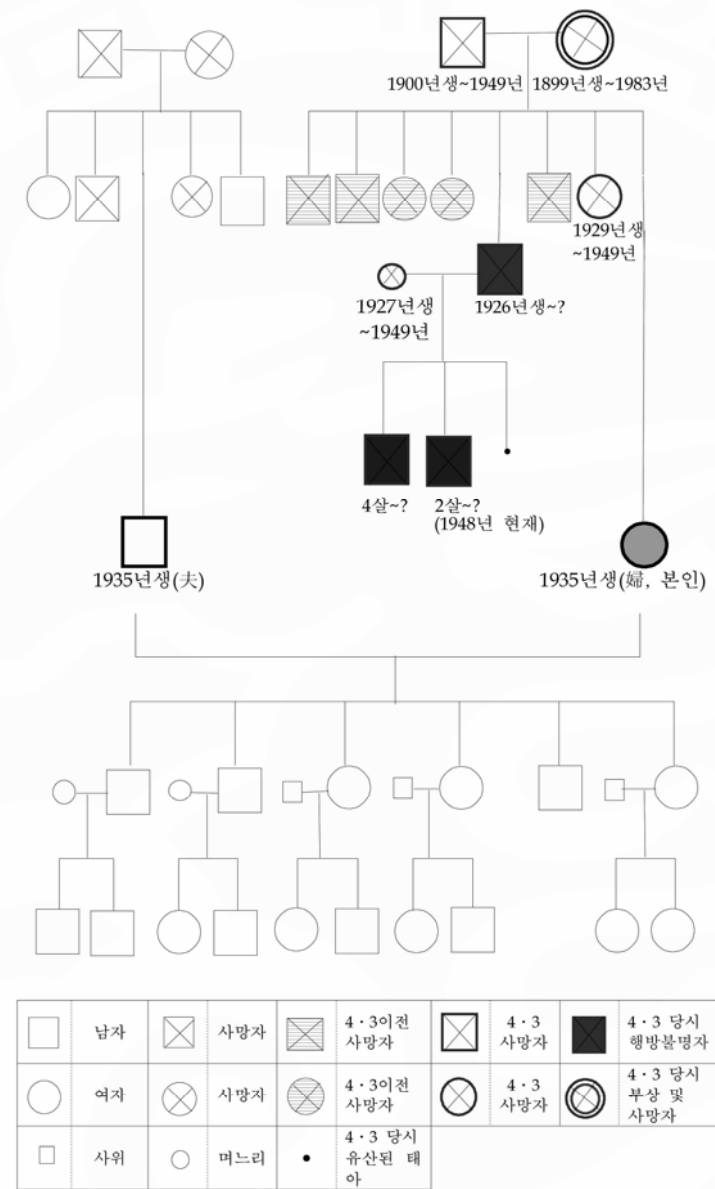
제1절 김인근 사례

1. 생애사와 미술표현

1) 인터뷰 요약

김인근은 1935년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리에서 부모님 슬하 4남 4녀 중 여덟 번째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4·3 발발 이전 5명의 형제가 몸이 아파 사망하여, 남은 가족은 부모님과 1남 2녀(오빠, 언니, 자신)가 되었다. 오빠는 집안의 경제가 넉넉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일본에서 일 년 정도 공부하고 있을 때 쯤 어머니는 오빠가 외아들이고 일찍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권유하는 편지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후 오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제주도로 내려와 결혼하였으며,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4·3이 발발하자 오빠가 출근하는 직장으로 ‘OO에 동참하라.’는 쪽지가 거의 매일 날아왔다. 고민 끝에 오빠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대한청년단(한청단)’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오빠는 책임자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근무 도중 오빠가 무장대에 잡혀 산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인근의 가족은 이른바 집안에 청년이 사라진 ‘도피자 가족’으로 몰리게 되면서 일가족이 몰살당하게 된다. 1949년 1월 8일, 제주읍 누러리와 그으니마루에서 각각 총살이 이루어졌다. 이날은 김인근의 가족뿐 아니라 화북리 마을 사람 수십 명이 함께 희생되었다.

2) 가계도³⁵⁾



[그림 1] 김인근의 가계도

35) 김인근의 가족은 4·3 당시 ‘아홉’ 명이 희생되었다. 작은아버지(가계도에는 표시되지 않음), 아버지, 언니, 올케와 태아 등 5명이 사망하였고, 오빠와 조카 2명은 행방불명되었다. 어머니는 총상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가 1983년에 작고하였다. 김인근에 의하면, 공식기록에는 오빠의 출생년도가 1928년생(용띠)으로 기재되었으나, 오빠는 ‘범띠(1926년생)’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때에 근거하여 출생연도를 적어달라고 연구자에게 요청하였다. 위의 가계도는 이를 참고한 것이다.

3) 연도별 주요기록

- 1935년 (1세) : 출생³⁶⁾
- 1945년 (11세) : 화북공립국민학교 입학³⁷⁾
- 1948년 (14세) : 4·3 발발³⁸⁾
- 1949년 1월 8일 (15세, 양력)/1948년 12월 10일(14세, 음력) :
일가족이 총살되는 비극을 겪음
- 1949년 (15세) : 오빠 늦은 봄 귀순(제주경찰서→동척회사)³⁹⁾
- 1950년 6월 (16세) : 오빠, 서울마포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
- 1954년 (20세) : 봄에 결혼
- 1955년 (21세) : 첫 출산
- 1983년 (49세) : 어머니 돌아가심
- 2004년 (70세) : 협심증 진단
- 2007년 (73세) : 제주4·3평화공원 방문
- 2008년 3월 (74세) : 4·3체험담 발표⁴⁰⁾
- 2009년 9월 (75세) : 연구자를 만남
- 2011년 (77세) : 현재

36) 김인근은 실제 출생 연도와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도가 다르다. 실제 출생 연도는 1935년생, 주민등록상으로는 1938년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출생 연도(1935년)를 기준으로 생애사가 진행되었다.

37) 이후 김인근은 화북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1951년(21회)에 졸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38) 1935년 출생을 기준으로, 음력 1948년 12월 10일을 계산하면 김인근의 당시 나이는 14세이다. 그러나 김인근은 13세로 인지하고 있다.

39) 김인근의 오빠는 '1949년 늦은 봄'에 산에서 내려와 자수했다. 이 시기는 1949년 3월 10일 이법석 총리가 '선무공작'의 방침을 선포한 시점과 맞물린다. '내려오면 살려 준다.'는 선무작전에 하산한 주민들은 주정공장에 갇혀있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김인근의 오빠 김 OO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국가기록원), 서울마포형무소 수형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이 명부에는 당시 오빠의 나이가 '23세'이며, 형량·판결은 '무기', 언도 일자는 '1949년 7월 1일'자로 기록되어 있다(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2008). 오빠는 1950년 6월 행방불명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마포형무소는 남하한 인민군에 의해 모두 출옥했지만 대부분 북한 의용군에 편입돼 전쟁을 치르다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 그 행방을 확인하기는 더욱 힘들다(미디어제주, 2007. 10. 29).

40) 2008년 3월 28일 제주4·3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주4·3 60주년 기념 4·3증언 본풀이 마당'(일곱 번째, 소외된 그들에 사는 사람들).

4) 문단나누기⁴¹⁾

- ① 가족 구성원의 성향 : (1)-(4)
- ② 초등학교 시기 : (5)-(7)
- ③ 4·3의 전조 : (8)
- ④ 4·3 도래 : (9)-(11)
- ⑤ 1948년 1월 8일에 일어난 사건 전개 : (12)-(21)
- ⑥ 구술자가 어머니를 간호하는 과정 : (22)-(25)
- ⑦ 오빠의 귀순 : (26)-(27)
- ⑧ 4·3으로 인한 트라우마 후유증 : (28)-(34)
- ⑨ 4·3에 대한 구술자의 소견 : (35)
- ⑩ 어머니에 대한 기억 : (36)-(37)
- ⑪ 수의(壽衣)에 대한 기억 : (38)
- ⑫ 자식들을 키울 적에 : (39)
- ⑬ 현재 : (40)-(42)

41) 문단번호는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 제시하였다.

5) 본 인터뷰 : 생애사와 미술표현⁴²⁾

그러니 이렇게 싸워서 무엇을 하고 북한 남한이 무엇을 하는지, 그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 죽이는 것이, 이제 살충제 해서 벌레 죽이는 것만도 아니 했지. 43째 죽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그 내막을 알까. 모두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몰죽음 한 거야. 죄 없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김인근의 생애사-

부모님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는 차분하셨어. 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엇을 하면 칭찬해주는 성격. 그냥 내 버리지 않아. 다른 집 아이들이나 언니가 무엇을 하면 “OO는 언제나 …하는 거 보면 참 잘해” 하면서, 물결 모양으로 부드럽게 말해. “너 잘한다.” 단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는 자그마한 키에 여름엔 모시치마. 꼭 풀해서 다림질해서 뽀뽀하게끔 해서 입고. 아기들 끓는 한이 있어도 첫째 아버지를 위하고. 음식 하나만 보여도 일단 아버지. 음식이 적을 것 같아도 우선 아버지 먼저. 모든 걸 아버지. 아버지가 음식 잡수시다가 “저 어린 것들도 더 주어라.” 하면, 어머니는 “아이들 다들 먹었어요.” 해. 그러면 나는 “우린 먹지도 않았는데 먹었다고 해요?” 하고.

부모님이 일할 때는 갈옷⁴³⁾을 주로 입었어. 두어 벌씩 해서 감칠 나면 감물 들여서 바닷물에 담가뒀다가 햇빛 아래 널어서 말려서 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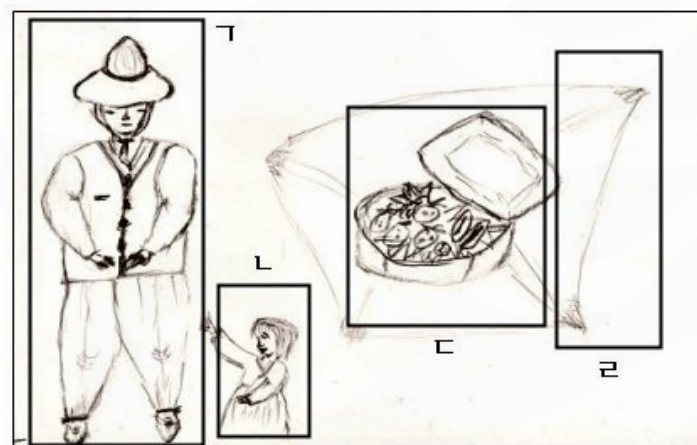
그 당시 우리 집에 밭이 많았어. 보리, 조, 콩, 고추 농사, 무, 양파해서 시내로 팔러 가고. 한 해에 그거 저거 다 해서 돈이 생기면 큰밭 사고, 작으면 작은밭 사고. 부모님은 비 오는 날 조금 쉬지. 그저, 일이라 일.(1)

42) ‘본 인터뷰’ (1)-(42)의 생애사와 미술표현 내용은 부록에 제주어로 제시하였다.

43) 감물을 들인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제주어사전, 2009).



[그림 2] 아버지의 산열매 도시락



- ㄱ. 아버지
- ㄴ. 자신
- ㄷ. 산열매가 담긴 도시락
- ㄹ. 언니가 만든 보자기

[그림 2 내용]

농사 다 하면 여름 때엔 쇠파리 때문에 저기, 산중에 소들하고 말들 오르거든. 그때는 꼴도 좋고 나무 아래서 소들이 무럭무럭 잘 커. 그러면 열흘 만에 아버지가 소 보러 산에 올라가. 그곳에 소 돌봐주는 책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아버지가 소 보러 갈 때는 미숫가루하고, 고기 마른 거 하고, 소 돌봐주는 사람 도시락, 아버지 도시락을 짊어져서 갔어. 고마운 말도 말할 겸해서. 그때는 일한 샅을 팔로 몇 말해서 먹여놨거든. 아버지가 소 보고 집에 올 때에는 산딸기, 으름 같은 것을 도시락 안에 잎사귀 깔아서 산열매들을 툭툭 넣어서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왔어. 아버지가 처음 도시락에 산열매를 담고 온 날 “인근아, 도시락 씻어라.” 해. “언니한테 시키세요.” 하니까 “인근이가 꼭 씻어라.” 그렇게 말씀해. 마지못해 도시락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산열매가 있는 거야. 그땐 막 좋아서 기뻐서하고.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소 보러만 가면 ‘올레’⁴⁴⁾에 나가서 아버지 오길 기다렸어. 아버지 모습이 보이면 달려가서 “그 도시락 내가 씻을게요. 도시락 주세요.” 하고. 가끔 도시락 안에 산열매가 없는 날은 ‘도시락 내가 왜 맡아졌는가. 씻기 싫은데.’ 속으로 생각하고(웃음). 아버지가 장난으로 “인근이가 산열매를 안 좋아하는 거 같다. 다시는 안 따서 오겠다.” 하면 “맛있습니다. 많이 따서 오세요.”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고.

오빠

오빠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똑똑하고 공부도 괜찮게 하고.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닭싸움. 동네 닭싸움하는 데 가서 이겨서 온 날은 어머니한테 깨도 갖다 주고. 그러다가 일본에 공부하러 갔는데 오빠가 외아들이니까 손자라도 보려고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 “좋은 새각시 있다. 빨리 내려와서 결혼하라.”고. 그런데 오빠가 안 내려왔어. 다시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 “어머니 많이 아팠으니 내려오라.”고. 그때 내려와서 결혼식을 했어.(2)

44)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제주어사전, 2009).

친언니

올케언니가 아기보고 임신하고 하니까 주로 언니가 밥을 지었어. 청소하는 것도 언니. 아버지 와서 하면 손, 발 씻는 물 떠가는 것도 언니. 이제 같으면 내가 했으면 좋을 텐데, 꾀부리면서 그걸 하지도 아니 해서.

옛날에는 ‘모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친구들끼리 쌀 모아서 떡 해먹는 거. 언니가 모듬하러 갈 적에 내가 “어머니한테 쌀 몰래 가져간다고 말해 버려야지.” 하면 “갓다 와서 사탕 사줄게.” 하고. 어디 갈 때는 언니가 ‘나 업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뽀뽀뽀뽀 걸어가고 있으면 “등에 확 매달려라.” 하면서 업어 주고. 언니가 그렇게 착하고 바느질도 잘했어. 저고리, 치마 싹싹싹싹 만들고. 헌 옷 재단해서 내 옷도 만들어 주고.(3)

[그림 3 내용]

“마루라도 닦아라, 현관이라도 쓸어라.” 해도 내가 빠빅거리어서 안했어. 그러면 언니가 “나 죽어서 가면 공 갇아줄 테니 그거 좀 해라.” 항상 그 말을 했어. 그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 죽어지면 너 잘 되게 해 주마. 왜 그렇게 말 안 듣느냐?” 하는 말이야. 지금 언니만 살아있더라도 내가 벼슬 삼을 것인데.



[그림 3] 친언니

나

대여섯 살에 어리광을 부려야 할 텐데, 여남은 살 넘도록 어리광을 부렸어. 어리광이 심해서 무엇을 할 줄을 알까, 무엇 하나 만들 줄 알까. 친언니는 “어리광도 징그럽다.” 말할 정도. 심부름시키면 핑계대서 안 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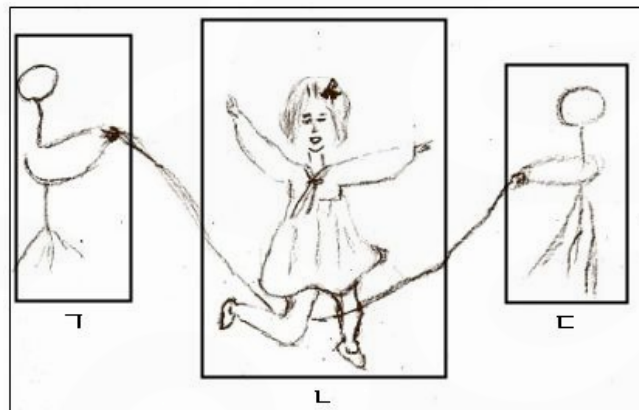
어머니가 일하러 가면서 “집 지켜라.”, “물 길어오라.” 하면 막 싫어했어. 친구들과 놀지 못하니까.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빠가 빠개지는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 오자미, 고무줄 하고, 공기 주워다가 놓고 따 먹는 거, 남의 땅 따먹는 거 주로하고. 달 뜨면 바깥에 나가서 등에 옷들 담아서 구부리면서 곱추춤 추면서 놀고. 숙제는 대충 해서 들어 던져두고 어머니한테는 “오늘 숙제 많이 했습니다.” 해서 놀고.(4)

[그림 4 내용]

열두 살까지는 쾌활해서 남이 줄넘기 한 번 하면 나는 두 번을 뛰어야 속 시원하고. 오자미 던지는 것도 남보다 한 번 더 던져야 속 시원하고. 머리에는 친언니가 사준 반짝이 닮은 나비 리본 꽂고. 운동화는 오빠가 일본에서 사다 줬어. 누워서 잘 때는 책보자기 옆에 툭 놔뒀다가 뒷날 신어서 가고. 그렇게 운동화를 아꼈어. ‘세상에 나 같은 신발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때는 고무 타이어 신발 그것만 신을 때야. 여자는 리본 달린 타이어 고무신. 남자는 리본 없는 것이 남자 것.



[그림 4] 줄넘기 놀이



ㄱ. 친구
 ㄴ. 자신
 ㄷ. 친구

초등학교(수업)

일본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 주면서. 만일에 일본 말로 ‘네꼬’면 우리나라 말로 ‘고양이’라고 해 주고. ‘부다’면 ‘돼지’라고 해 주고. 그런 걸로 숙제도 내 주고. 시험 볼 때는 동물 그림 밑에 일본 글로 적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1학년 2학기부터는 ‘ㄱ, ㄴ’ 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막 외우고. 일본말 ‘가, 기, 구, 게, 고’ 배우다가 우리나라 말 ‘아, 이, 우, 에, 오’ 하니까 뒤죽박죽. 그렇게 해도 ‘ㄱ’ 에 ‘ㅏ’ 하면 ‘가’ 되고, ‘ㅇ’에 ‘ㅏ’ 하면 ‘야’ 되는 것이 그거 재미나는 거야. 책 읽으면서 말이 되면 그거 신나는 거야. 산수보다도 국어가 제일 재미있었어. 학교 가면 극락이야.(5)

초등학교(소풍)

소풍 갈 때는 어머니가 도시락에 흰 쌀밥하고 계란 하나 해준 것이 전부. 껌은 지금처럼 좋은 껌이 아니고 푸석푸석한 딱딱한 파란 거 그것이 전부. 어머니가 막 생각한 날은 계란 몇 개 더 삶아서 그 동글동글한 거 몇 개 톱 넣어주고. 계란 들어간 것이 그게(웃음). 친구들과 동그랴게 앉아서 도시락 먹고 있으면 어떤 아이는 도시락 안 가져 와서 나무 아래 앉은 아이도 있어.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 해도 안 오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먹던 밥하고 김치만 넣어서 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 계란 두어 개 삶아서 도시락에 넣어주고 하면 이거 날 아지는 거야.

어머니는 도시락에 그거 하나 꼭 넣어줬어. 강낭콩. 강낭콩 삶아서 도시락 밥에 푹푹푹 넣어주면 소풍 가서 점심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강낭콩은 푹푹푹 골라서 손에 쥐었다가 말쑤에 먹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과자냐고(웃음). 강낭콩을 밥이랑 움작움작 먹으면 될 건데, 밥 먹으면서 그 강낭콩을 손에 불끈 쥐어서 나중에 먹었어.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웃음).

그때 보물찾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저 아이도 부르는데 나는 왜?’ 하면서 먹따는 소리라도 같이 노래하고 싶어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없었어.(6)

초등학교(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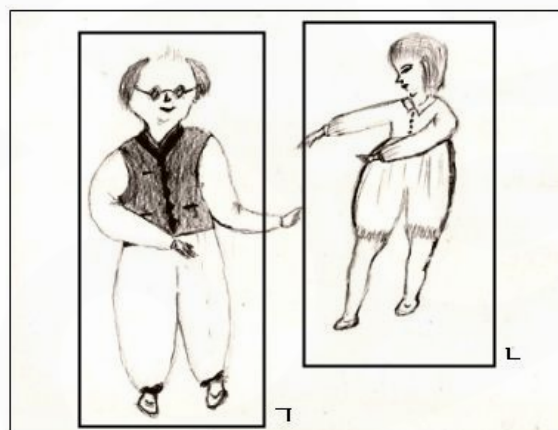
화북초등학교에 최고로 잘 뛰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 조금 용렬하여 야무지지 못하고 남의 아이 가방만 들어서 다니는 아이. 그런데 달리는 것에는 개 이겨 볼 아이가 없어. 운동회 때 ‘준비 땅’ 해서 아이들이 막 뛰는데 개가 천리를 가다가 나 뒤에 달려쫓아. 말쑤에 “너 왜 그렇게 했니?” 물어보니까 “내가 일등 해버리면 네가 막 뒹달해 버릴까봐.” 하는 거야(웃음).(7)

[그림 5 내용]

운동회 날 ‘사람찾기’ 경기할 때, 뛰어가서 보니까 ‘안경 쓴 사람과 손잡고 뛰세요.’ 써 있는 거야. 이제 같으면 본부석 가서 안경 쓴 어른 아무나 확 잡고 뛰었으면 내가 일등을 하다가도 남을 텐데, 그때는 “안경 쓴 사람 나와 주세요.” 소리쳐도 죽어도 안 나와. 그래도 막 소리쳐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안경만 벗어 주면서 “나는 달릴 필요 없다.” 하는 거야. “안경은 벗어줘도 안 달리겠다.”고. 다시 내가 “안경 쓴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아이, 참말로” 해. 겨우 그 할아버지 손잡고 달려서 삼등을 먹었어. 상품으로 빨래비누 받고. 경기 끝나서 할아버지께 비누를 드리려고 찾아보니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 운동장 몇 바퀴 돌아서 겨우 찾았는데 넷가에서 밥을 먹고 있어. “할아버지, 우리 삼등하니까 비누 줬어요. 비누 드릴게요.” 하니까 “아니다. 너 가져가라. 너 가져가라.” 해. 그래도 난 일등을 못한 아쉬움에 “할아버지, 그 안경만 주려고 하지 말고 일찍 할아버지와 함께 뛰었으면 일등해서 비누 많이 탔을 텐데.” 한마디 하고(웃음).



[그림 5] 초등학교 운동회(안경 낀 할아버지와 손잡고 달리기)



ㄱ. 안경 낀 할아버지
ㄴ. 자신

4.3의 전조

4.3은 나 열세 살 때 일어나도 그 전 열두 살 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부산스러웠어. “산에 쌀 지어서 올라간다.”, “반찬 해서 올라간다.”, “옷들 가져간다.”, “밤에 뼈라 뿌린다.”, “산사람들이 큰길에 차 다니지 못하게 길 가운데 돌 쌓아버린다.” 하는 그런 말들 들었었고.(8)

마을과 학교가 소개되고

열세 살 때 마을이 불바다가 되었어. 산사람들이 와서 이집 저집 불붙이고 학교도 불붙이고. 형편이 아니. 저기 곤을 마을⁴⁵⁾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불타기 전에 화북초등학교는 기와집이었어. 교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고. 한 사람에 한 명씩 앉는 조그만 나무 의자에 책상은 둘씩 앉게 하고. 그러다가 4.3때 산사람들이 와서 불 태워버리니까 초가 지어서 가교사⁴⁶⁾를 만들었어. 교실 흙바닥에 가마니 찢어서 깔고, 그 위에 줄지어서 앉아서 옆드려서들 무엇 쓰면서 공부들 하고.(9)

작은아버지의 죽음

작은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총살당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음력 11월 13일 날(양력 1948년 12월 13일), 소 물 먹이러 가다가. 겨울 소는 바깥에 내놓으면 기꺼워 바다닥 바다닥 뛰면서 도망가고 하거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소 도망가지 못하게 소 잡으려고 뛰니까 9연대가 도망가는 줄 알아서 그냥 총으로 쏘아버린 거야. 그때 아버지 울면서 “불쌍한 동생, 나 손으로 물어두고 가야지. 나는 어떻게 해서 갈지 모르지만.” 하면서 막 슬퍼했어.(10)

45) 제주읍 화북리 곤을 마을은 1949년 1월 4일 소개, 약 70여 호 주민이 거주했던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었다. 현재 복구되지 못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46) 1949년 1월 11일 교사가 전소되었으며, 1949년 5월 10일 화북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제주도교육위원회, 1987).

대한청년단⁴⁷⁾에 가입한 오빠

오빠가 일본에서 제주도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하면서 토목과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출근하는 아침만 되면 직장 난간에 ‘직장 다니면 총으로 쏘아버리겠다. OO에 동참하라.’는 종이쪽이 있는 거야. 매일같이 출근하는 아침만 되면 그 종이쪽이 오니까 오빠가 아버지와 상의해서 한청단(대한청년단)에 들어가게 되었어.

거기서 한청단 책임자로 있었는데 산사람들이 내려와서 화북초등학교랑 마을에 불붙이러 왔다가 오빠한테 “너는 뭔데 한청단에서 그렇게 주동을 사고 있냐?”고 하면서 오빠를 죄인처럼 끌고 산에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 여기서 오히려 오빠가 산에 잡혀가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주어야 할 차례인데, 거꾸로 뒤집어져서 우리 가족을 총살시켜 버렸어. 그러니 이런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 건가. 복통이 끊어질 노릇이지.(11)

아버지의 고문

음력 12월 10일(양력 1949년 1월 8일) 날씨가 쌀쌀했어. 구름은 끼어도 햇빛이 가끔 비추는 흐린 날씨. 눈도 안 오고 흐려서 이런 저런 것 가려지는 듯해도 가끔 햇빛 나왔다가 짝 가려져 버리고. 그 전날 전날은 사람이 빠질 정도로 눈이 형편없이 왔어. 엄청나게 눈이 쌓였는데 그 눈이 차츰차츰 녹기 시작하고 바람은 하늬바람같이 켹켹 불고.

아버지는 이날 아침도 보통 때처럼 화북초등학교에 성담 지러 나갈 채비를 했어. 그날 난 따뜻한 방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께 “옷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하니까 “모자 쓰고 두꺼운 것 입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집에 와서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군인들이랑 평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잡아서 가버렸어. 조금 있으니까 어머

47) 대한청년단은 우파청년단체이다. 1947년 9월 21일 대동청년단으로, 그리고 1948년 12월 19일에 대한청년단으로 규합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선을 걷게 된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니, 올케, 친언니, 나를 잡아가고. 학교에 끌려가서 보니까 4학년 교실에 아버지가 옆으로 반쯤 누워서 쓰러져 있었어.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소리치면서 보니까 아버지 눈알이 밖으로 튀어 나와서 볼까지 쪽 하게 내려와 있는 거야. 피투성이에.(12)

어머니는 저고리 고름을 찢어 내 코피를 막아주고

아버지 고문당한 모습 보면서 내가 막 소리치니까 경찰이 사무실 같은 데로 데려가는 거야.

첫 질문이 “오빠 친구들 이름 말해 봐.” 하면서 소리를 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뺨을 착 때려. 겁나서 주변을 보니까 책상 위에 방망이하고 작은 총이 있어.

두 번째 질문은 “오빠 친구들 집 가리켜 봐.” 하는 거야. “우리 오빠 친구가 어느 어른이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어. 그렇게 하니까 이젠 “모르겠다고.”만 한다고 막 두드리니까 코피가 나는 거야. 코피 나니까 어머니가 있는 여자들만 있는 교실에 보냈어. 어머니는 나 코피 나는 거 보면서 “울면 피가 더 날 것이니 울지 마라.” 하면서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찢어서 코를 막아주고. 나는 어머니도 만나고 코피까지 나니까 더 크게 울면서 “죽어지겠다.”고 하고.(13)

교실 유리창에서 마을 어른들의 총살장면을 목격하고

저고리 고름으로 코피 막고 창문유리에 매달려서 바깥으로 보니까 검은 천으로 눈 가린 어른들이 세워져 있고, 군인들이 총 끝에 칼 같은 거 꽂은 총으로들 쏘니까 뭉땅 쓰러졌어. 그 장면⁴⁸⁾ 보고서 별별별 떨고 있었는데 그다음은 군인들이 학교 교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아까 마을 사람들 총살당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야. 군인들은 우리를 쏘려고 하고. 그 찰나에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더니만 우리한테 총 쏘는 거 중지시키고 군인들은 바사 바사 모이러들 갔어. 우리한테는 “앞사람 뒤꽂무니 잡아서 성담 돌아서 정문 향해서 가라.”고 지시하고.

48) 어른들은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총살장면을 볼 수 없었다.

난 성담을 나가면서도 ‘어디로 도망칠 구멍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 그런데 도망칠 데가 없어. 중간 중간 군인들이 딱 들어서 있고. 도망칠 수가 없어. 구불구불한 성담을 돌아서 정문까지 나오니까 학교정문 옆에 트럭 3대가 있어. 군인들이 우리 보고 “이 차에 가.”, “저 차에 가.” 탁탁탁탁 지시하면서 모두 타라고 하고.(14)

트럭에서의 탈출

첫 번째 차에는 여자만 탔어. 어머니, 올케, 조카 두 명, 친언니, 나하고 동네 여자 어른들. 세 번째 차에는 아버지하고 남자 어른들 타고. 차에 앉으니까 넉넉하게 앉지도 못했어. 사람이 꽉 차게 많으니까.

난 첫 번째 차에 탔다가 차 안에서 도망치려고 올케언니 옆에 가서 “언니야, 언니야, 내가 차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밀어줘. 빨리 밀어줘.” 하니까 올케언니가 “인근아, 가면 어디 가니? 도망가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살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울기만 해. 그렇게 하니까 난 더 이상 올케언니한테 부탁하지 않았어.

그다음은 친언니한테 가서 “언니야, 언니야, 내가 차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밀어줘. 밀어줘.” 하니까 친언니도 막 울면서 “만일에 도망쳐서 가게 되면 작은고모님네 집에…….” 해두고는 말을 잇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만일에 도망치게 되면 작은고모님네 집에 가서 살고 있어라.” 하는 말이라. “작은고모네 집”까지 말하고 언니가 막 울어 버리니까 “아유, 울지 말고 나 차 아래로 밀어줘. 밀어줘.” 해도 안 밀어줘.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차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밀어 주세요.” 하니까 어머니는 “너 도망가면 우리 식구 다 죽을 건데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면서 차 아래로 안 밀어줘.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나대로 트럭 가장자리에 앉아다가 몰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탁 떨어졌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는 거야. “이 빨갱이 새끼, 어딜 도망가.” 하면서 총부리로 찌르면서 두들기고. 그때부터 머리가 핑 돌고.(15)

트럭 밑으로 몸을 숨기고

이젠 도망갈 데가 없어서 차바퀴 틈에 가서 숨었어. 그러니까 또 경찰, 군인들이 총부리로 일로 절로 찌르면서 “차 밑에서 빨리 나와.” 소리치면서 난리야. 내가 차 밑에서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무리 해 봐도……. 나중엔 “나가겠습니다.” 말해 놓고는 ‘워커 신발이 많이 안 보이는 데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워커 신발이 적게 있는 쪽은 군인 수가 적고, 워커 신발이 많이 있는 데는 군인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워커 수가 적은 데로 쑥 하게 나오니까 군인이 내 옷을 잡아서 사람들이 탄 트럭 안에 끌어다가 올리려고 해.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미끄러지는 것처럼 하면서 뛰웅하게 내려오면서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또 차 위에 올리려고 하면 내려와 버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말쑈에 “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말해 놓고는 나가 막 뛰어 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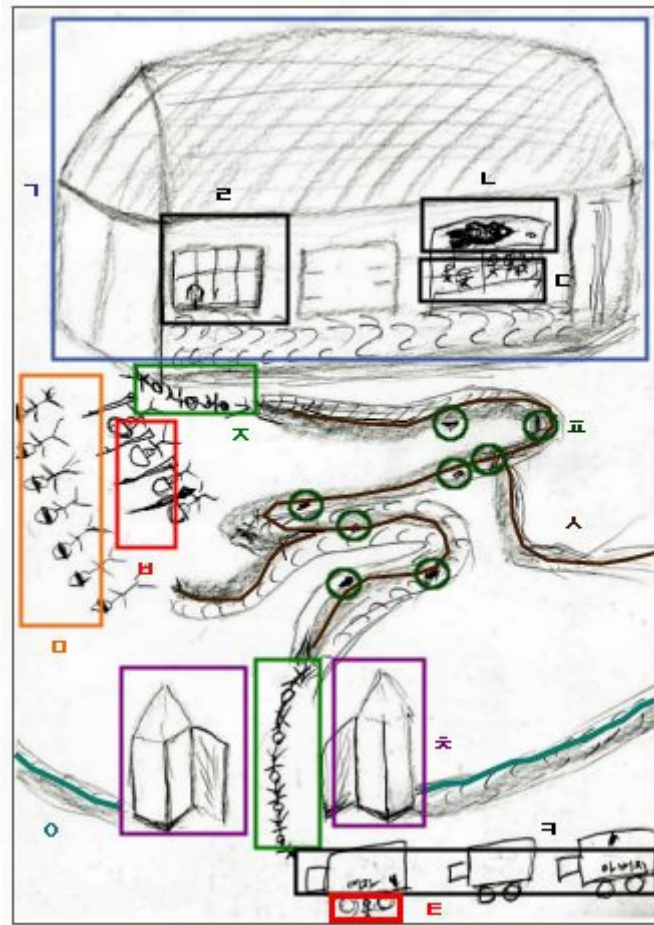
뛰어서 화북초등학교 근처 우리 친구네 집 머귀나무 있는 데까지 갔는데 군인이랑 경찰 몇 사람이 쫓아와서 “도망쳤다.”고 막 두들겨 버리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빨갭게 보이는 거야(이러한 증상은 이틀간 지속됨). 그 전에는 빨간 것, 노란 것 모두 구분했는데 빨간색 한 가지로만 보였어. 내가 막 때 맞아 가니까 군인 한 명이 하는 말이 “아이를 차에 넣으면 되니까 때리지는 마십시오.” 해서. 그러는 찰나에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서 군인, 경찰들이 학교정문에 가득 모여드는 거야. 차에 탄 사람들 실어서 출발⁴⁹⁾하려고 하니까.

그때 나는 나 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군인이랑 차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군인이 “울지 말고 어머니가 탄 차에 가자.”고 해. 나는 “예, 예.” 대답만 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막 뛰어 버렸어.(16)

49) 당시 트럭에 탔던 어머니 말에 의하면, “트럭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트럭에 탄 사람들 머리 위로 나무를 쌓고, 그 나무 위에 군인들이 올라타 총살현장인 제주읍 누러이까지 갔다.”고 한다.



[그림 6] 1949년 1월 8일,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ㄱ. 가교사

ㄴ. 고문 후 옆으로 쓰러진 아버지

ㄷ. 고문 후 벽에 기대고 있는 마을 남자 어른들

ㄹ. 유리창 밖으로 총살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자신

ㅁ. 눈에 검은 천을 두르고 총살당하는 마을 어른들

ㅂ. 총을 겨누는 군인들

ㅅ. 학교 운동장에 마을 사람들이 쌓아 놓은 성담

ㅇ. 학교 담

ㅈ. 구부 구불한 성담을 따라 한 줄로 학교정문을 나오는 사람들

ㅊ. 학교정문

ㅋ. 여자는 첫 번째 트럭, 남자는 세 번째 트럭에 타도록 군인들이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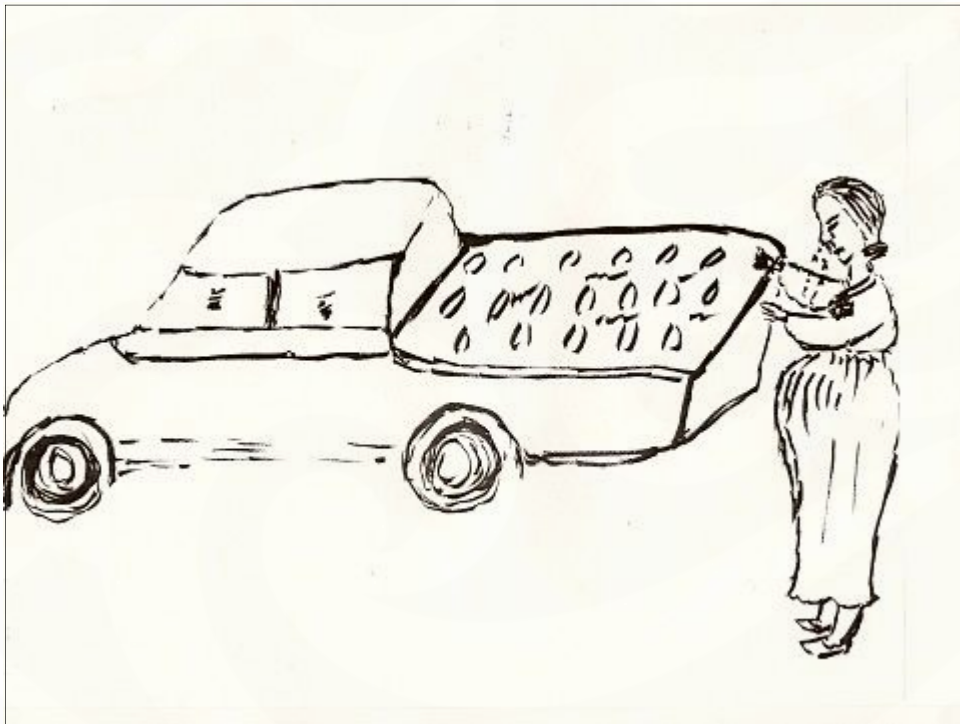
ㅌ. 트럭 아래 숨은 자신

ㅍ. 성담 중간마다 뚫린 조그마한 구멍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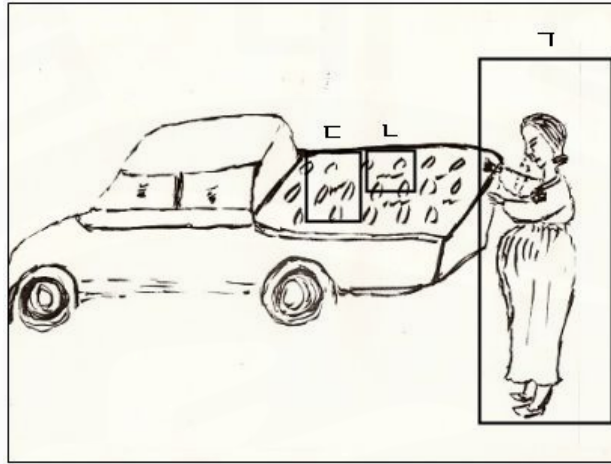
[그림 6 내용]

산사람들이 습격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이 운동장 안에 성담(人)을 오글다글 오글다글하게 쌓았어. 성담 중간마다 동네 사람들이랑 경찰들이 숨어서 산사람들 보이면 총으로 빵 쏘려고 구멍들 뚫고(표). 이 성담을 지러 아버지가 갔다가 이 교실에서 고문을 당한 거야.

이 운동장 빈 데가 있어. 빈 데. 요 장소에서 바지저고리 입고 검은 천으로 눈들 가린 마을 어른들이 일렬로 서 있고. 난 저고리 고름으로 코피 막은 채, 유리창에 우뚝 서서 보니까 군인들이 서 있다가 총으로 버버버버 쏘니까 마을 어른들이 뭉땅 쓰러졌어.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을유지들이라 해서. 동부락에 장OO 죽고, 백OO 죽고. 죄 없는 사람들만.



[그림 7] 1949년 1월 8일, 올케언니



- ㄱ. 올케언니
- ㄴ. ~~ 기호로 사람들이 올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 ㄷ.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의 머리

[그림 7 내용]

올케는 임신……. 그 달이 산달. 배가 이만큼해서 걷지도 못하고 뒤통뒤통 막 아파서. 그러는데도 잡혀갔어.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프니까 트럭에 팔딱팔딱 뛰어 올랐는데, 우리 올케언니는 차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 배도 부치고 몸이 아프니까. 그 트럭 가장자리만 잡아서 막(울먹임).

경찰, 군인들은 찌부러서 안 올라간다고 올케언니를 막 때리고. 올케언니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배가 트럭 가장자리에 걸려서 올라가진 못하고. 그때 엉덩이 아파서 다리를 옮기지 못했어. 산달이니까.

차에 사람들 다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서 앉았는데, 올케언니는 막 울면서 차에 올라오지 못했어. 지금 같으면 “내가 뒤로 받치거든 올라가라.”고 하지마는 매 맞을까봐 차에만 앉아서 “언니야, 빨리 와버려.” 하면서 차에 타서 옮기만 하고. 어머니도 올케언니가 매 맞아 가면 “아이고, 어떻게 해서 빨리 올라와졌으면 매를 안 맞을 건데 어떡하면 좋을까.” 하면서 울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올케언니가 어떻게 해서 차에 겨우 올라오니깐 반 죽은 언니가 되었어.

트럭 밑에서 나온 후 한청단으로 갔으나

그렇게 뛰어서 오빠 있었던 한청단으로 갔는데 한청단에서는 철창들 들고 나와서 나한테 쏘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막 울면서 “죽여 줘. 죽여 줘. 너희들은 우리 오빠 있을 땐 객소리 못했었는데 지금 나가 누구한테 죽어지는 것은 알고 죽겠다.”고 울면서 바둥바둥해 가니까 사람들이 슬슬슬슬 한청단 본부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집에 오는데 길에선 뛰지를 못해. 뛰면 군인들이 미친 사람같이 총으로 쏘려고 하니까. 길 가던 군인이 나한테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하니까 “숙제 낸 책 빌리러 갔다 옵니다.” 했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소리를 쳐. 집에 오니까 눈물이 막 나고 지치고 하니까 이불 위에서 고꾸라져서 잠이 들었어.(17)

울면서 잠든 시간에 어머니는 총상을 입고도 친언니를 업고 오고50)

교육대학 위 별도봉 쪽으로 가는 논두렁(누리이)에서 어머니, 올케, 친언니가 총을 맞았어. 어머니는 눈이 피에 절어 앞이 보이지 않아 눈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 윗어깨가 들쭉들쭉거리니까 누군지 봐보려고 눈에 붙은 피를 겨우 닦아서 보니까 언니가 돌 두둑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 언니가 총알 박힌 배 움켜잡으면서 “나, 이 총알만 빠지면 살겠습니다.” 말하니까 어머니는 손가락이 치렁치렁해도 언니를 확 훔쳐 업어서 그 교육대학 아래 내(개천), 그 화북다리, 그 동산. 그 스물 된 딸을 업어서 이 화북까지 업고 온 거야.

그때 화북 들어오는 입구에 작은고모가 살았는데 등에 업혀있던 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거세게 밀어 버리면서 “나, 작은고모님네 집에 가서 숨어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는 “아이고, 그럼 작은고모님 식구까지 다 죽는다. 죽어도 우리 집에 가서 죽자. 집에 가자, 가자.” 해도 “안 가겠다고. 숨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언니는 작은고모님 집에 들어가 버리고 어머니만 집으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온 지 몇 분 안 되어서 작은고모 집에서 사람이 왔어.

50) 김인근은 탈출하고 집으로 왔기 때문에 제주읍 누리이에서 일어난 상황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다.

“OO 숨이 토근토근 지려고 합니다.” 소식 전해 주려고. 그때 언니가 돌아가셨어. 그 이후에 언니 시신을 토롱⁵¹⁾을 만들어서 잠시 놔뒀는데 서너 달 후에 봉분을 만들려고 흙을 파서 보니까 그 속에서 총알이 두 개가 나왔어. 그 총알 보면서 나가 막 울었어. ‘이 총알이 우리 언니를 죽였구나.’ 하면서.(18)

울다 잠든 후 깨어 보니 어머니 몸은 피로 물들고

울다 고꾸라져서 잠을 자다가 ‘응응’ 하는 소리에 깨어 보니까 아주 큰 귀신이 있는 거야. 머리가 얼굴에 탁 덮어지고 머리카락이 피로 뭉쳐서 뺏뺏하고. 얼굴 색은 하나도 없고 피로만.

겁나서 ‘으악’ 뒤로 넘어졌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보니까 어머니야. 어머니를 내가 누웠던 이불 위에 눕혀 놓은 다음, 어머니 바라보면서 “어머니, 내일 죽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서 어머니랑 실컷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어가니까 어머니는 손만 흔들어. 손 흔들 때마다 총 맞은 손가락들은 사뭇 흔들거리고. 어머니는 말 못하고 못 건디면 눈물만 뚜룩뚜룩뚜룩…….

누워 있는 어머니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총알이 오른쪽 목으로 들어가서 왼쪽 턱으로 나오면서 턱뼈는 깨지고 살은 모두 헤지고. 혀도 일부분 없고 손도 총 맞고. 저고리도 피범벅, 손가락에 흐르는 피, 윗어깨로 내리는 피,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 등에서 나오는 피, 팔꿈치로 나오는 피, 온몸이 피. 그 피가 그치지 않는 거야. 그놈의 피가. 몸이 풀어지고 따뜻해 가니까 그놈의 피가 더 나는 거야(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임). 뒷날에야 피 묻은 옷을 차츰차츰 벗기면서 피들 나오는 구멍을 세어서 보니까 총을 ‘일곱 발’⁵²⁾ 맞은 거야.(19)

51) 흙을 모아 쌓아서 만든 약식(略式)의 무덤(국어대사전, 1982).

52) 일곱 발이란, 총알이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한 발로 기준한 것이다. 김인근은 총알이 들어가면 나선형으로 돌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총알보다 나오는 총알의 부상 면적이 더 컸다고 한다.

[그림 8,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곤 : (우리) 어머니가 그때 총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올 때 것은 그리기가 곤란해서 잘 못 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그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못난이 그것처럼 낙서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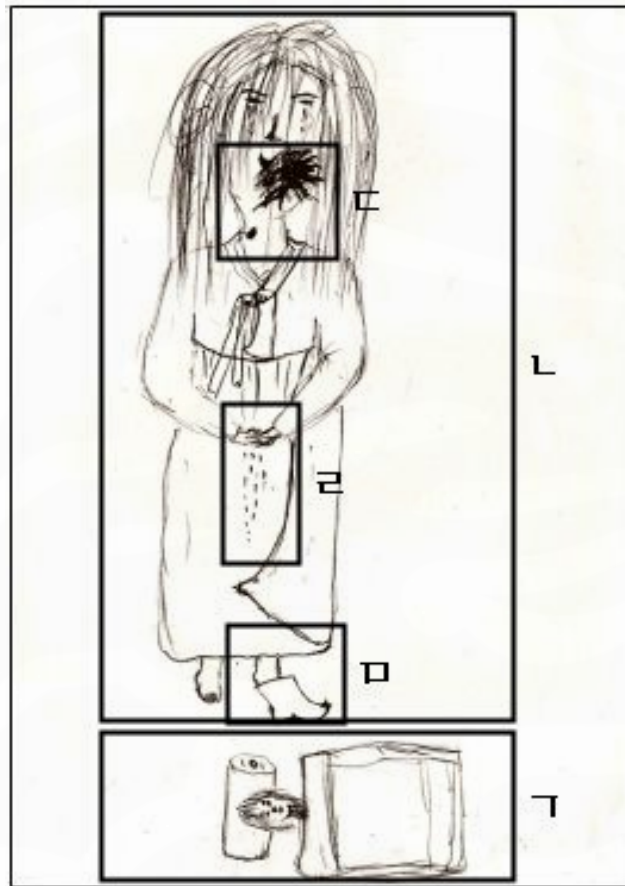
연구자 :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펼쳐보면서) 이 그림들 아무도 못 그려요.

김인곤 : (맞장구치며) 응, 왜냐하면 나 속에 있는 거니까. 나 오장 속밖에 없는 것이지. 남의 사람은 그릴 수가 없는 거.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림.

연구자 : 맞습니다. 어머님만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8] 1949년 1월 8일, 어머니의 총상



- ㄱ. 자신
- ㄴ. 잠에서 금방 깨었을 때 본 어머니의 모습
- ㄷ. 오른쪽 목을 통해 왼쪽 턱으로 총알이 관통한 상처
- ㄹ.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
- ㅁ. 발가락에 간신히 걸쳐진 버선 한쪽

[그림 8 내용]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 붙을 정도로 큰 귀신이 방 안 가득하게. 이제 만화책도 그만큼 무서운 만화책이 없을 거야. 별건 핏덩어리 그 형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어머니는 막 크게 그리고 나는 작게 그린 거. 이 그림이 그때 나 생각이야.

그때 어머니 눈은 자주 깜박거리지는 않고, 희미한 눈으로 천천히 깜박깜박.

턱 박살나고 입술은 조금만 남고. 풀치마⁵³⁾ 입고 머리에 은비녀 했었는데 그 은비녀도 없어져 버리고. 머리카락은 옷에 풀 바른 것처럼 피로 뺏뺏.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은 단단히 잡고. 얼굴은 막 형편이 아니. 말로 표현 못해. 버선 한쪽은 벗겨져서 없어져 버리고, 한 쪽은 앞부리만 꿰어져 있고. 더러운 흙 색깔.

윗어깨로 나오는 피, 손에서 흘러면서 나오는 피, 옆구리 틈에서 나오는 피, 어디로 나오는 피인지 구분 못할 정도.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서 발끝까지. 버선도 버선이라고 하니까 버선이지. 버선이 안 닳아버렸어. 빨강색에 흙. 팔죽 속에 들어갔던 버선같이.

아버지는 저수지에서 총살당하고

아버지는 OO주택 바로 위 ㄱ으니ㄴ루 논밭 저수지에서 돌아가셨어. 옛날 차 없을 때 “ㄱ으니ㄴ루 동산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었다.”고 하는 말도 있고. 과거 보러 갈 때는 “ㄱ으니ㄴ루에서 점심밥 먹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어머니가 총 맞아서 들어온 그날 밤, 동네 어른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 왔어. “아버지가 ㄱ으니ㄴ루 저수지에서 총살당했다.”고. 날이 어두우니까 동네 사람한테 손전등 빌리고 아버지 입었던 검은색 두루마기 가지고 저수지로 갔어. 그 ㄱ으니ㄴ루 저수지 물이 근본은 파랗고 풀색이었는데 아버지 찾으려고 손전등을 비춰서 보니까 다 붉은 물이 되어 버렸어(울먹임). 마을 어른들 시신도 거기에 둥둥 떠 있고. 그 물에 떠 있는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 빨리 이 물에서 건져 놔야 할 건데, 건져 놔야 할 건데.’ 막 걱정하고.

같이 갔던 동네 어른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 시신을 두둑에 옮겨 놓아 주었어. 그렇게 한 다음에는 피 묻고 젖은 옷 입고 누워 있는 아버지 시신 위에 검은 두루마기 덮고. 동네 어른이 “밤중에 고양이나 짐승이 시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두루마기를 덮어야 한다.”고 해. 그 두루마기 덮고 흙으로 잠시 툭툭 덮은 다음, 뒷날 아침에 토룡을 만들었어. 몇 개월 후에는 봉분 만들고.

그러니까 음력 12월 10날(양력 1949년 1월 8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9일 날 제사고. 그때 우리 15반(당시 주소지)에서 두 집만 빼고 한 집안에 한 분이나 두 세 분이 그날에 돌아가셨어. 우리 동네는 그날 제사가 많아.(20)

53) 좌우 쪽으로 선단이 있어 둘러 입게 된 치마(국어대사전, 1982).

조카들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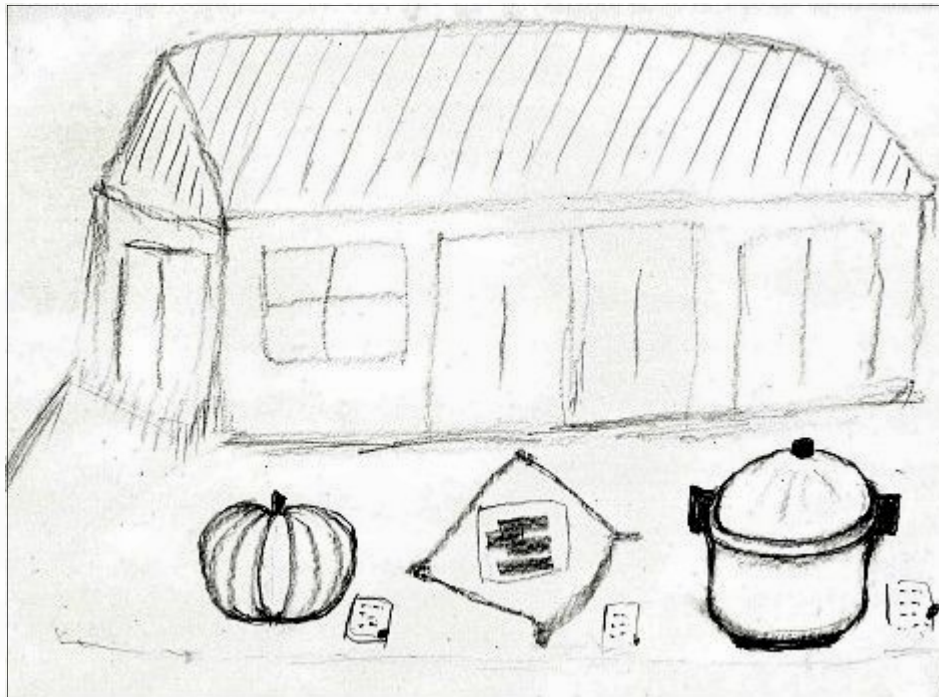
네 살, 두 살 조카들 차에 탈 때는 봤는데……. 그 물에 흘러 어디로 내려가 버렸는지, 총으로 쏘아서 어디에 버려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갈 때는 한 차에 타니까 아는데. 임신한 올케는 그 달이 산달. 배 속에 있는 아기도 총을 맞았어. 그러니까 그 아기도 산모 배 안에서 죽어간 거야. 죄인도, 배 속에 있는 아기도 죄가 되었어. 세상에……. 세상에……. 남편이 죄가 있으면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서.(21)

호박, 소고기, 소변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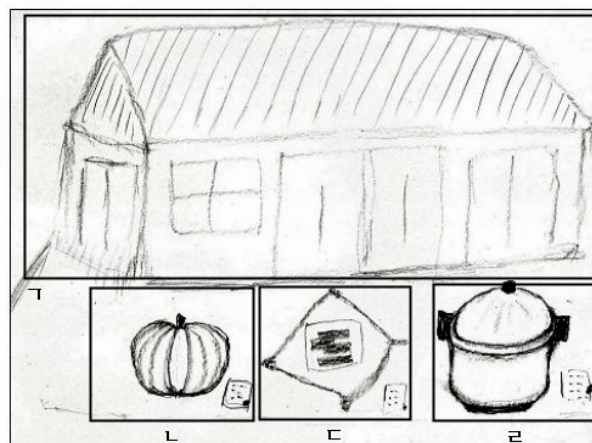
소고기, 호박 안 붙여서 상처 싸맨 천 떼어낼 때는 어머니가 “아이고, 나 죽고 싶다.”고 바짝바짝 뛰었어. 그렇게 할 때마다 난 ‘어떡하면 좋을까, 어떡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못 하고.

그런데 어머니 총상 입고 15일쯤 되니까 소고기하고 호박이 오기 시작했어. 소고기, 호박을 교대로 붙이면서 하니까 떼어내기 좋고.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고. 소고기, 호박이 다 떨어지는 3, 4일쯤 되는 날엔 난간에 또 호박이랑 소고기가 있고. 한 3개월 넘게 그 도움을 받았어. 음식과 쪽지도 함께 왔어. 고기 우려낸 국물에 온 쪽지에는 ‘국물은 어머니 드시게 하고 고기는 인근이 먹어라.’ 써 있고. 녹두에 온 쪽지에는 ‘녹두 삶은 물이니까 어머니 먹여라.’ 써 있고. 죽에 온 쪽지에는 ‘울지 말고 살고 있으면 살아진다. 죽 많이 끓였으니 어머니도 먹고 인근이도 같이 먹어라.’ 써 있고.

가끔 동네 어른 한두 분이 집에 와서 어머니 상태 보면서 “어머니는 음식 잘 드시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니는 잘 먹질 못해. 좁쌀, 미음 같은 거를 입에 넣으면 구루룩 툭 구멍으로 똥똥 나와 버리고. 그러면 그릇 받아서 흘러내린 것은 버리고. 한 사발 해도 어머니 입 속에 들어가는 것은 두 숟가락쯤. 호박하고 소고기를 교대로 3개월쯤 넘게 해 가니까 상처가 쑹쑹 오므라들기 시작했어. 소독약이 없어서 어머니 소변, 내 소변을 작은 대야에 와서 소독하고. 숨도 없어서 이불숨 뜯어내서 모두 닦고.(22)



[그림 9]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의 도움



- ㄱ. 김인근의 집
- ㄴ. 호박과 쪽지
- ㄷ. 소고기와 쪽지
- ㄹ. 죽이 끓여진 냄비와 쪽지

[그림 9 내용]

아침에 일어나서 난간에 보면 돌맹이 지지른 쪽지와 소고기, 호박이 있어. 소고기에 온 쪽지 펴서 보면 ‘인근아, 이 소고기 얇게 종이쪽같이 오려서 어머니 아픈 부위 처매라.’ 써 있고. 호박에 온 쪽지에는 ‘호박 속을 숟가락으로 박박박 긁어서 부드럽게 으깨어 만들어서 상처에 처매라.’ 써 있고. 그러니 쪽지 보면서 호박 긁는 줄 알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먹으라고 가져온 줄 알 것인데.

시국이 위험한 때에 도움을 준 이 고마운 분들 알아졌으면 너무나……. 그런 땐 ‘흥’ 해서 ‘나도 살아야지, 도피자 집에 무엇 하러 가리.’ 하지마는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왔다갔다한 그분들한테 공을 갚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잘못 다니다가 그 사람들 죽을 수도 있고, 잡혀 들어가서 징역이라도 살 수 있을 때였는데. 소고기, 호박 갖다 놔두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오빠 친구인지, 어머니 아는 분인지, 할머니 아는 분인지. 냄비를 전하려고 해도 전하질 못했어. 찢어서 난간에 놔두면 아침에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 몰래, 사람 안 볼 때 밤중에 다닌 거야. 냄비가 없어져서 가버린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옛날 나 일기장 틈에 끼워져 있었던 이 쪽지들은 시집올 때 일기장이랑 다 태웠지마는 이 그림을 보니까 그 시절 쪽지가 ‘요디 와서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살아났어. 요 쪽지들이.(본 인터뷰)

시집오기 3, 4일 전에, ‘4·3에 대해 깨끗이 잊어버리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일기장하고 쪽지를 모두 태웠는데, 잊어버리기는커녕. 누가 4·3말만 하면 눈물이 막 나고.

그때 ‘그 쪽지들 가만히 놔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시집 올 때 일기장 속에 있던 고마운 분들 쪽지는 태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쪽지들 10~20장 정도 되었지. 짤막하게 쓴 것도 있고, 길게 쓴 것도 있고. ‘음식 만드는 방법’, ‘힘내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사람은 상대방의 ‘하찮은’, ‘조그만 도움’에 용기를 얻고 사는 것 같아. 내 경험을 보더라도. ‘호박’, ‘소고기’를 갖다 준 그 덕에 ‘나는 어머니 꼭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어. 그때는 ‘소고기’, ‘호박’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살아난다.’ 하는 오로지 그 생각만 했어. ‘이것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약이다.’ 하는 그런 생각만.(5차 추후 인터뷰)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는 일주일도 안 되어 떨어지고

(어머니 총 맞고 온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떨어졌어. 썩어가니까. 뼈가 있는 건 그대로 붙어 있는데 뼈가 잘라지면서 살만 붙은 것은 저대로 떨어졌어. 어머니한테 “떨어진 손가락들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아무 데라도 버려라.” 하셔. 그 말 듣고 ‘어떡하면 좋을까, 어떡하면 좋을까.’ 막 걱정했어. 무섭기도 하고 떨어진 손가락에 손톱 봐 가면 더 무섭고. 그래도 그거 천에 싸서 나대로 텃밭에 묻었어.(23)

다시 어머니를 죽이러 온 사람들

어머니 총 맞아서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경찰들이 어머니가 살았다고 또 집에 왔어. 그날도 어머니 간호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나 툭툭 치면서 “저기 누구 온 거 같다. 뒷담 넘어서 빨리 도망쳐라.” 하셨어. 어머니 말대로 뒷담 넘어서 숨었는데 그때 생각에 ‘총소리가 나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겠구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숨었어.

밤이 이슬하니까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 “어머니, 어떻게 하니까 안 쏘았습니까?” 물으니까 어머님이 경찰들한테 “이 동네에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 죽이면 냄새 날 거니까 저 위 우리 밭 가장자리에 가서 죽이면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서 죽겠습니다. 그리로만 데려다 주십시오.” 하니까 경찰들이 “에이, 며칠 안 가겠네.”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24)

오빠는 산에서 내려와 자수했으나 이곳저곳 불러 다니면서 조사 받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잡혀가고

어머니 총 맞고 온 후에 5, 6개월 지나서 어머니가 경찰서로 잡혀갔어. 난 매일매일 어머니 먹을 도시락 준비해서 경찰서로 가고. 어머니한테 도시락 드리면서 “나도 어머니 따라서 경찰서에 들어오겠습니다.” 하니까 “어서 집에 가라. 어서 집에 가라.”만.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니까 경찰서에 있을 때는 어머니 스스로 고무신에 소변

받아서 치마 찢어서 상처 소독하고, 밥은 겨우 먹고. 가끔 옆의 사람들이 어머니 머리 빗겨주고, 소변볼 때 옷 입고 내리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2, 3개월쯤 경찰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빠가 어머니 총 맞은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어. 그 순간 오빠가 “나만 죄인이지, 우리 어머니는 아픈 몸인데 저 상태로 경찰서에 있게 하면 어떻게 하나.”고. “우리 모친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왔냐고.”, “내가 죄인인데, 어머님만 내보내 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몸짓 하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와작작, 와작작 매 맞고 또 매 맞고.⁵⁴⁾ 어머니는 칸막이 하나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 매 맞는 소리에 마음 아파하고. 그 일이 있는 후에 일주일쯤 되니까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왔어.⁽²⁵⁾

오빠는 귀순 후, 경찰서에서 동척회사로 그리고 서울마포형무소로

오빠는 경찰서에서 술 공장(주정공장) 했던 동척회사로 잡혀갔어. 거기에 수감자들 났었거든. 동척회사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오빠가 반장을 했어. 그래서 며칠마다 수감자 5, 6명을 인솔해서 산것물 길러 나왔거든. 그날만 되면 난 동척회사 뒤에 숨었다가 덜거덜덜거덜 달구지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일어서서 도시락 짹어져서 입구 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때 오빠랑 눈이 마주치면 땅에 발 안 붙여서 공덕동산 오름 타서 내려가는 곧은길로 뛰어서 산것물 옆, 남의 집에 갔어. 그 집 주인한테 “삼촌(삼촌)⁵⁵⁾, 여기에서 오빠 밥만 먹여 두고 가겠습니다.” 하면 “아유, 그래라.” 하면서 허락해.

그 집에서 도시락 끌러 놓고 숟가락 놓고 해서 앉아 있으면 오빠가 와. 그 집에서 그렇게 몇 번 밥을 먹었거든. 오빠는 밥 한 술 먹고 “어머니 어떡하고 있니?” 묻고. 밥 한 술 먹고 “어머니 어떡해서든지 꼭 살려야 한다.” 하고. 밥 한 술 먹고 “어머니만 잘 간호하고 있으면 공책 사 주고, 운동화도 사 주고, 위에 학교 보내 주겠다.”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 번 정도 만나다가 네 번째 되는 날에는 오빠가 “나 어디로 물 넘어서 갈 것 같다.” 하는 거야.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오빠가 “아니, 그래, 응.” 하면서 말을 막 어지럽혀 버렸어. 며칠 있다가 도시락 짹어져

54) 이 상황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다.

55) 제주도에서 ‘삼촌’이란 호칭은 표준어 ‘삼촌’보다 그 쓰임이나 폭이 넓어 아저씨, 아주머니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친한 어른을 총칭하여 사용한다.

서 가서 보니까 동척회사 옆에 사는 할머니가 어젯밤에 배에 몽땅 실어 버렸다고.

그 후에는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서울마포형무소’ 글이 쓰인 편지가 오빠한테서 왔어. ‘치약, 칫솔, 편지 쓸 종이 보내 달라.’ 써 있고. 어머니 건강 걱정하는 글, 어머니 안심시키는 글 써 있고. 그 편지받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도 포장해서 보냈는데 물건 받았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 그러니까 오빠는 서울마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버린 거.(26)

어머니는 오빠가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서울마포형무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 기다리다 답답해서 “어디 가서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 갔어. 무당이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힘없이 집에 와서 그냥 막 울고불고. 내가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해도 막 울고.(27)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면서 놀다가 4·3이 일어나니까 벗도 없어지고 비비비비 울기 시작했어. 물 길러 갈 때도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야 물 길어서 집에 확 들어와 버리고. 길에서 친구들 만나게 되면 “다음에 갈게.” 해서 안 가고. 저대로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친구한테는 움츠러들고.

오빠가 한창단에 있다가 산에 잡혀서 올라가니까 ‘혹시나 그 집에 내가 갔다가 피해라도 주면 어떡하리.’ 하는 마음에 나대로 나를 당겨서 가지를 못했어. 그러니 친구 집에 못 가는 순간, 집으로 들어올 때는 창자는 굶어지고 막 우는 거야. ‘내가 다니면 전염병 환자 모양으로 그 집에 지장을 줄 건데 내가 무엇 하러 가나.’ 하는 그런 생각만.(28)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열네 살 고비에 ‘나도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 말로 표현 못할 정

도야.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가고 싶다.’ 하는 걸. 이제 젊은 사람 누가 자살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심정을 탁 알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저 사람도 바늘톱만큼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29)

고통스러운 날들 방 안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신병 환자 모양으로 했던 것 같아. 그냥 사람만 봐지면 방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방 안에만. 방 안에 앉으면 아무 거라도 달싹달싹 만지작거리다가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가사도 나대로 만들면서. ‘못 견디게 외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노래 부르다가 울먹임)…….’ 안 붙어야지. 난 이 노래 그 옛날 부르면서 하도 진저리가 났는데 오늘은 친언니 그림을 보니까 이 노래 불러지네.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도 ‘가는 님’은 ‘부모님’이라고 바꾸고. ‘열풍아, 불어라.’ 하는 데는 ‘인근아, 울어라. 이 밤이 새도록 울어라.’ 해서 나대로 가사 만들면서 부르고. 원래 노래 가사는 저리로 던져두고 음만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심상하게 방 안에 앉았다가 다시 ‘못 견디게 외로워도…….’ 이젠 그때 생각하지 말아야지(노래 부르다가 눈물 흘림)…….

나, 그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그 아이들 오라고 해서 같이 하고 말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릴 때에 문을 푼 닫아버린 거야. 나대로 내가. 아버지, 오빠, 언니, 작은아버지고, 올케고 아무도 산 사람이 없이 나 혼자만 덩그러니 해 놓으니까 울려고만 했었지. 집에 와도 아무도 없지,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지. 말이라고 한 것은 ‘못 견디게 외로워도’ 그 노래만 부르는 거야.(30)

고통스러운 날들 일기를 벗 삼아

“살려고만 몸짓했던 내가, 가고 싶다고 한 심정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지?”(연구자에게 물음) 어머니, 아버지 트럭에 모두 실어도 살고 싶다고만 몸짓하고 발버둥쳐서 그 차 아래로 숨으면서 도망친 내가 살아서 와서 두서너 달 사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가고 싶다. 아버지한테 나도 가고 싶다.’ 열네 살 때, 그땐 도저히. “우리 부모님 죄가 있다면 농사 많이 지은 죄밖에는 없는데, 부모님이 농사 많이 지은 것도 죄가 됩니까?, 농사짓는 것도 죄가 됩니까?” 막 소리치면서 울고불고.

그러면서도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이 보내 준) 호박에 온 쪽지, 소고기에 온 쪽지, 죽에 온 쪽지 그것을 펴서 읽어 난 다음에는 (일기장에)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고마운 공을 갚겠습니다. 삼촌, 어느 삼촌인지는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쓰고. 그 보내온 쪽지들은 일기장 틈에 톱 끼워두고(울먹임)…….

그때 거면 공책 있었거든. 거기에 일기 쓰고 쪽지들 하고, 그날 일어난 일들, 음식 한 거, 나 학교 못 가서 한이 된 거, 괴로운 가운데서도 어머니 웃기면서 어머니 웃는 모습 보니까 막 기뻐했던 거, 어머니 고통스러워 하면 ‘어머니, 꼭 살려야 한다.’ 마음먹은 거, 그렇게 하나하나 낙서하다 보니까 일기가 많아 버렸어.⁵⁶⁾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때 벼를 삼아서 살아온 것이 일기. 일기 쓰는 것이 나 벼 삼은 거.(31)

호루라기 소리 후유증

열다섯 살까지도 넘게 한 거 같다. 그것이. 차가 웁웁웁 왔다가 갔다할 때, 사람들 실어서 출발할 때, 어머니네 차에 실어서 총살시키러 갈 때, 사람들 두들길 때, 그렇게 할 때마다 그 호루라기를 불었어. 집합하라고 할 때도 호루라기 이리저리 쭉쭉 불어서 그냥 막. 매미들 모양으로 서로 연결 연결 하면서 신호를 하는 것같이.

어디서 호루라기 소리만 나면 갑자기 구토가 나와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배가 쑥 가라앉아 가면 구토도 가라앉고.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호루라기 쭉쭉 불어가면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탕탕탕탕하면서 구토 나오려고 하고. 열다섯까지 심하게 하다가 차츰차츰 없어졌어. 이제는 호루라기 소리가 나도 어떻게 안 하고, 차 소리가 나도 어떻게 안 하고. 그런데 차 타면 떨미는 하고. 떨미는 보통이 아니.(32)

56) 김인근은 13살부터 20살 결혼 전까지 썼던 일기를 모두 쌓아 높이를 정한다면 약 50c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김인근은 4·3과 관련한 모든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결혼 3, 4일 전에 일기장과 고마운 분들의 쪽지를 모두 태워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희생⁵⁷⁾

산사람들 마을에 내려와서 집들 학교들 불태워 버리고, 차 못 다니게 큰길에 돌 쌓아 버리고, 뼈라 뿌리고 해 가니까 동네 사람들 동원시켜서 산사람들 못 들어오게 학교 운동장이랑 동네에 높은 성담을 쌓게 했어. 큰돌 옮길 때는 남자 어른들이 지렛대로 밀리면서 하고. 성담을 만들 때는 성담은 높고 통로는 좁게 만들고, 성담 위로는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중간 중간마다 보초설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산사람들이 발견되면 쏠 수 있게 하고.

그 성담 보초를 동네 사람들이 지키고 하는데 폭도들이 들어와서 불붙여 버리니까 군인, 경찰들이 성담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지키니까 폭도들이 와서 마을에 불붙였다.” 하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총살시켜 버렸어. 또 우리 시할머님은 아들 일로 해서 대 코 뽕죽한 것으로 막 찍어 버리니까 그냥 돌아가셨어. 산 채로. 뒷날 친정어머니 와서 시할머니 피 묻은 옷보면서 막 울고. 그러하고 우리 올레 저 위에 사는 언니는 몸뚱이에 돌 묶어서 바다에 밀어 버리니까 그냥 가라앉았어. 그 언니 어머니 막 울면서 딸 건져서 보니까 발 하고 몸에 돌 묶어 있었다고.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어, 죽지. 그때 그 언니는 시집도 안 갔는데 남편 숨겨둬서 남편 안 내놓는다고. 원, 그런 억울함도 있을까. 그 언니 어머님 하는 말이 “딸 건지러 가서 보니, 배에 사람들 가득 실어서 몸에 돌 묶어서 바닷물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산 채로.

그러니 이렇게 싸워서 무엇을 하고 북한 남한이 무엇을 하는지, 그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 죽이는 것이, 이제 살충제 해서 벌레 죽이는 것만도 아니 했지. 4·3때 죽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그 내막을 알까. 모두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몰죽음 한 거야. 죄 없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33)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4·3

주전자나 냄비 데우는 건 잊어버려서 태워서 냄새가 나야 아는데, 4·3 저쪽에 일은 생생하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안 해. 총 멘 군인들, 경찰들이 눈 반짝반짝 반짝 하면서 바짝바짝 돌아다니는 모습, 호루라기 소리들. 어릴 때는 살려고 도

57) 제주4·3 당시 북제주군 제주읍 화북리 희생자 수는 297명이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망쳤지마는 다시는 산지옥을 살고 싶지 안 해.

만일에 4·3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부모님 형제간보다도 내가 먼저 떠나고 싶어. 다시는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지도 안 할 거. 절대 살아서 취조 받느니, 그 피해 받느니 그……, 밖으로 나와도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그……. 참, 뭐랄까(깊은 한숨). 저, 정말 눈빛, 행동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상대방은 그렇지 안 했지만 나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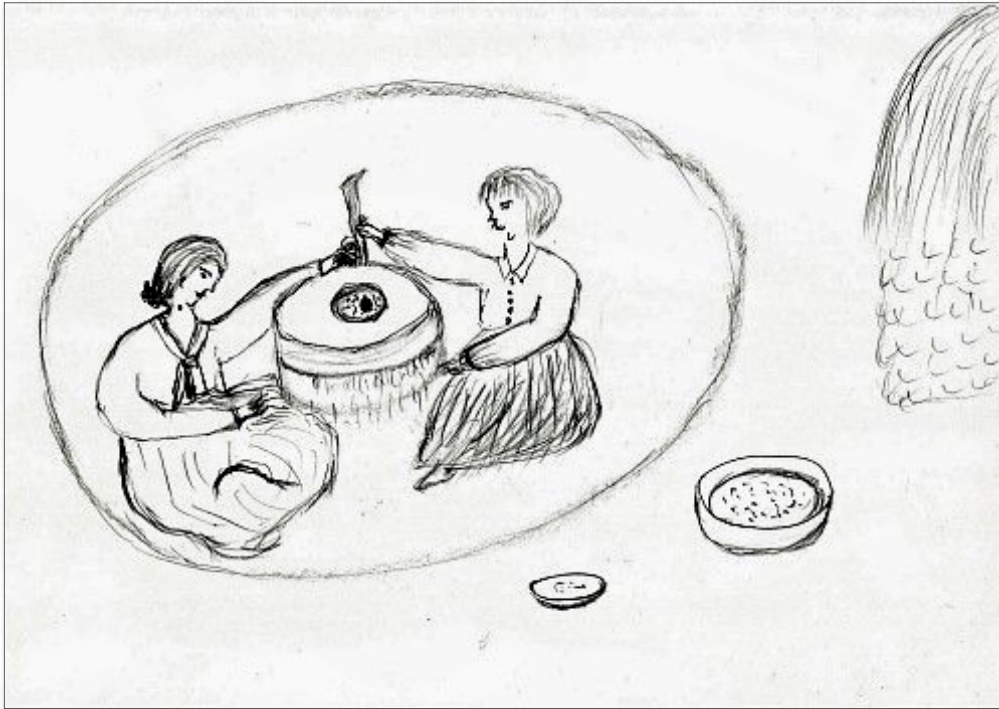
4·3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4·3은 이북, 이남이 갈라져서 “빨갱이 죽여라.”, “군인 죽여라.” 하는 사이에 그 중간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 4·3. 죄 없는 사람들만 막 억울하게 되어 버렸어. 죄인들처럼 만들어 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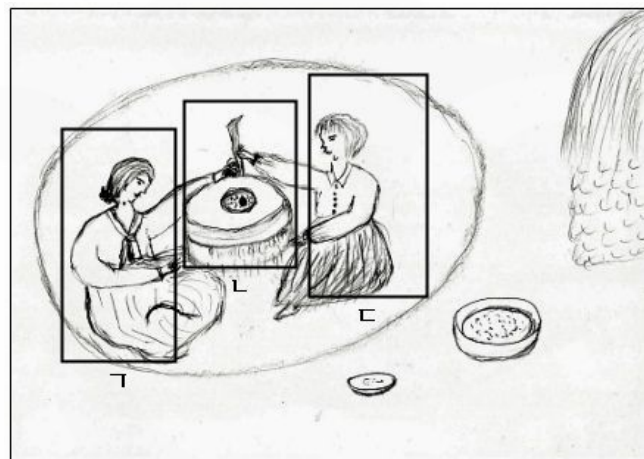
우리 대한민국이 북이고 남이고 하나가 되었으면 4·3은 안 일어날 거. 나 생각으로는 북한, 남한 이것을 구분해 가는 가운데 4·3을 만들어 놔서 ‘우리 억울한 사람들 죽여 버렸지 안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 뚜렷하게 4·3이 어느 줄거리로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은 난 잘 모르지마는 무턱대고 남한하고 북한이 통 갈라져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싸움바람 하는 사이에 4·3이 일어난 거야.(35)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말씀이 “인근아, 어머니 보고프면 절에 오라. 절에 오면 법당 어느 한 구석에 내가 있을 테니. 제대로 된 고운 데로 앉겠느냐마는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내가 꼭 앉아 있을 테니까. 절에 오라.”고 하셨어. 네가 오면 나도 너 보고 너도 나 보고. 제사 때나 보고 싶을 때랑 절에 오라고.(36)



[그림 10] 어머니와의 추억



ㄱ. 어머니
 ㄴ. 맷돌
 ㄷ. 자신

[그림 10 내용]

이때부터 친구들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일어나서 앉을 쯤. 어머니가 고구마 구워서 놔두었다가 “친구들 갖다 주어라.”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바깥에는 안 나가도 우리 마당이 컸으니까 거기서 고무줄하면서 놀고. 어머니가 멧돌로 미숫가루 갈아주면 신나게 봉투에 담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미숫가루는 길가에 뿌려지고(웃음).

운동회 때 안경 쓴 할아버지와 함께 땀 때 마음이 ‘10’이면[그림 5], 이때는 ‘10에 7’ 정도 기분이 좋을 때[그림 10]. 어머니 자신은 아파서 있지마는 난 ‘세상사람 다 돌아가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죽을 거다. 절대 안 죽어서 나와 같이 살 거다.’ 그런 생각으로 신난.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85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파서 하면서도 울케언니 말만. “불쌍하게 남의 집 자식, 우리 집에 와서 가게 했다.”고. (어머니는) 음식도 바삭바삭한 거 시원하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고기라도 제대로 차근차근 씹어서 드시지도 못하고. 물 닭은 거, 죽 닭은 거, 단지 물죽으로만. 말쑥 가가니까 바짝 말라서 뼈 위에 가죽만 남아가고. 그러다가 85세 가까워 가니까 자리에 눕기 시작하다가 돌아가셨어.

지금 같으면 약도 먹고, 진통제 주사도 맞으면서 치료 할 건데 그 당시 약이라고는 단지 ‘호박’ 하고 ‘소고기’로만. 내가 간호를 더 잘 했으면 어머니가 더 살 수도 있었을 건데 내가 잘 못해 버리니까 돌아간 것만 같고. 고운 옷 입어서 나랑 어디 손잡고 구경 가보지도 못하고.

난 멀미해서 차를 못 타는데 언제 한번 동네 노인들이랑 ‘키미테’ 붙여서 관광을 갔어. 거기서 코끼리 쇼랑 말 쇼랑 오토바이해서 뱅뱅 돌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 살아 계시면 여기 와서 이런 거라도 보여 드릴 것인데.’ 하는 생각이 막 나고.(37)

수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깨끗한 수의를 입혀 드렸지마는 그건 생각이 안 나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피범벅 된 수의를 입어서 세상을 떠나서 갔구나. 고운 옷 한 벌 못 입고 그 피범벅 된 옷만 입어서 갔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간은 모두 피범벅 된 수의를 입어서 간 걸로만 생각이 들어. 지금도(울먹임). 스락⁵⁸⁾한 수의를 입어서 세상을 떠난 생각이 안 들어. 어머니, 아버지, 언니네 모두 그 피로 범벅된 그 수의만 입어서 떠나가 버린 거(울먹임). 세상에, 세상에, 그런 시절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먼저 떠나야지. 그 꼴을 보느니 참, 볼 수가 없지. 무서워.(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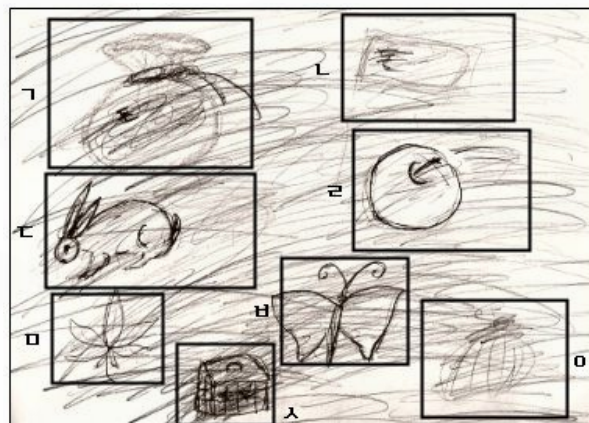
자식들을 키울 적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보통 대여섯 개는 싸야 되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 놓으면 가마솥에서 퍼 놓은 밥이 찬밥 될까 봐 담요 속에 줄줄이 놔뒀다가 나갈 때 도시락 하나씩 주고. 그래도 아버지(배우자)는 조금 다른 도시락 했어. 쌀 섞는 것이 보리쌀에 흰쌀을 섞어서 밥을 하는데, 아버지(배우자)는 보리쌀 조금 들어가고 흰쌀은 많이 들어가게 해서 먼저 떠서 뜨고. 그다음 아이들 밥은 보리쌀 흰쌀 섞어서 뜨고. 도시락 주고 다 나가 버리면 빈집이야. 자식들 소풍 갈 때는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 다 저리 밀어두고 꼭 따라갔어. 운동회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달리기는 거꾸로 1등만 해 가니까 한번은 ‘어머니 달리기 경기가 있다고 해서 본부석에 시아버님 앉아도 뛰었어. 다 뛰고 와서 아이들한테 “어머니도 1등을 먹는데 학교를 5년간 다녀도 상을 못 땀으면 기록 아니냐?” 하니까, 큰딸이 “거꾸로 2등은 했습니다.” 하니까 한바탕 웃고(웃음).(39)

58) 만지거나 스칠 때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 모양(제주어사전, 2009).



[그림 11] 자유로운 낙서



- 가. 돈이 가득 담겨진 주머니
- 나. 지폐
- 다. 토끼
- 라. 사과
- 마. 단풍잎
- 바. 나비
- 사. 곤충 채집 바구니
- 오. 참새가 알을 낳았던 둥지

[그림 11,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곤 : 50대쯤에는 비 오고 저녁할 거 다 하고, 시간 남고 혼자 있을 땐 월력에 낙서하고. 월력 뒤에 그림 그릴 때는 복잡한 거 싹 잊혀지고. 그림에만 집중해 버리니까.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주머니에 돈 가득 담어진 거. 집에 토끼 키웠던 생각. 참새 집 지은 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렸어. 낙서 하면서. 그런데 토끼가 돼지 닮지 않은가?

연구자 : 토끼 닮습니다.

김인곤 : 이런 토끼도 있을까?

연구자 : 있습니다. 토끼 종(種)이 많아요(웃음).

김인곤 : 뭉툭한 종(種)(웃음).

현재 건강

협심증이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갑자기 자다가도 더버더버해 가면 큰 돌을 가슴에 가져다 눌러 버린 거 닮아. 혈관 막혀 가는 병. 오랜 시간 안 해. 30분 남짓하게 해. 30분이 300시간 지나는 것처럼 막 못견뎌. “어머니” 부를 때도 잘 부르질 못해. 겨우 “어·머·니” 하면서 고꾸라져. 그 병은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 조금 숨이 나와.

어지럼증도 어지럼증이지마는 협심증. 협심증이 제일 고통스러워. 어떠한 때는 소망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어떠한 때는 한 달에 두 번이나 그 이상할 때도 있고. 협심증으로 아프고 나면 누구한테 매 맞았던 것처럼 폭삭 아파서 어디를 가고 싶지 않아. 밥맛도 툭 떨어지고. 약을 안 먹을 때는 낮에도 꾸그려 앉아서 박박 떨고. 땀은 발땀하게 나고.

처음엔 협심증이 아니고 어지럼증. 머리가 땡 하게 돌면 집이 거꾸로 돌면서 구토 나오려고 하고. 큰어머니 살아 있을 때는 “인근이 4·3때 머리 맞아서 고통 받아나니까 그 어지럼증이 생긴 거 아닌가, 그거 같다.”고 했어. 이젠 그 어지럼증 다음으로 협심증이 일어나 버렸어. 병원에 가니까 “합병증으로 된 거.”라고. “혈압에 당까지 있으니 음식 주의하라.”고 했어. 한 달에 두 번 그것에 대한 약

(협심증)하고, 혈압 약 타 오고.(40)

현재 주로 가는 곳

텃밭은 남이 내버린 거. 밭 주인이 “채소라도 갈아서 사용하라.”고 했어. 텃밭은 5, 6년 넘게 했지. 조금씩 즉석에서 나 먹을 정도. 운동 삼아 올라가서 김이라도 있으면 뽑아두고. 콩 심고, 고구마 몇 줄 심고, 고추·파는 심을 장소가 있는데 아직 못 심고. 치커리·배추도 이제 갈아야 할 건데. 또 호박·부추.

며느리나 아들이 “어머니, 호박 하나 따다 주세요.”, “부추 조금 주세요.” 할 때는 그거 주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 저들대로 모두 사서 먹고 있지마는 “어머니가 키운 채소는 막 맛 좋습니다.” 하면서 아양으로들 말하고.

김을 매거나 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가서 서너 시 넘도록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두 시 되기 전에 오고. 밭에 가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듣지도 안 하고 부끄럽지 않으니까 시원하게 노래도 불러보고. 고음 처리 못해 버리니까 밭에서는 ‘끼익’해도 누구 웃을 사람도 없고. 나 하고픈 대로(노래 부름).

못 전디케 외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눈물로서 보내는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부모님,
울어라 인근이 밤이 새도록.

‘열풍아, 불어라.’ 그건 ‘인근이 밤이 새도록 울자.’ 그렇게 하고. ‘기막힌 내 사랑아.’ 할 것을 ‘기막힌 내 부모님’으로 바꿔치기 하고. 노래 부르다가 나만 씩씩 울어도 지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때는 부모님이 막 보고 싶을 때나 살아가는 것이 답답할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어리광도 부리고 옛날같이 언니한테 가서 이런 저런 말이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때. 찬바람이 쌀쌀할 때 울어 가면 얼굴이 막 트고 갈라져.(41)

다시 태어난다면

김인곤 : 난 다시 태어나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보면서 다니면서 실컷 공부만 하고 싶어. 외국사람 통역도 해 주면서. 영어, 독일어 그런 거.

다 내가 공부해서 통역하는 거. 여자라도 당당하게 남 앞에 서는 그런 것을 하고픈데. 이거 꿈이지. 이 말하면서도 내가 나 생각에 부풀었어(웃음).

연구자 : 어머니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하신 정성이면 무슨 일이든 다 잘하실 거예요.

김인곤 : 말해 두고도 우습지마는 그렇게 큰 꿈을 가졌어.

연구자 : 어머니, 그거 큰 꿈이 아닙니다.

김인곤 : 누구든지 하고프지?

연구자 : 저도 하고프죠. 근데, 간호하신 일 있잖아요? 그 일은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김인곤 : 우리 동네 친한 친구 언니들도 다 그렇게 말해. 그 언니들이 “인곤아, 간호할 때 구토 안 해지더냐?” 그 질문을 했었어. 난 다른 어머니나 다른 사람, 남의 그런 일하라고 하면 막 구토가 나올 건데 어머니 것은 냄새도 안 나 보이고, 썩은 고름 나와도 그것이 콧물이지 아니했어.(42)

2. 생애사 재구성

1) 가족 구성원의 성향 : 아버지, 오빠, 친언니, 자신

(아버지는) 다른 집 아이들이나 언니가 무엇을 하면 “OO는 언제나 ...하는 거 보면 참 잘해” 하면서, 물결 모양으로 부드럽게 말해. “너 잘한다.” 단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1)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했으며 다정다감하였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동네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준다는 점, 도시락에 산열매를 담고 오는 모습[그림 2]에서 자상함을 엿볼 수 있다.

오빠는 부모님과 올케언니, 조카에게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으나, 공적인 일에서는 당당하게 주장하는 성격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두 개’ 있는데, 옷 어른이 ‘한 개’라고 하면 오빠는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라며 끝까지 주장한다. 간혹 오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때는 즉시 옷어른께 수십 번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하였다.

(친)언니는 차분하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다. 부모님이 농사일로 바빴기 때문에 집안일은 늘 언니의 몫이었다. 언니는 부엌일에서부터 옷을 만드는 일까지 거뜬히 해냈으며, 일을 마치면 야학에 나가 공부하였다. [그림 3]에서 치마가 아닌 몸빠로 표현한 것은 언니가 집안일을 도맡았기 때문에 편한 복장을 선호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낮익은 모습이 그림에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김인근은 자신에 대해 “열두 살까지는 쾌활해서”라고 언급하였다.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으며, 열 살이 넘도록 어리광을 부릴 만큼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동행하여 학급 친구들의 가정방문을 도울 만큼 신임(信任)도 있었다. [그림 5]에서 운동회 날 함께 뛰었던 할아버지 몫의 상품을 건네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며 찾는 모습에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

2) 4·3 도래 : 오빠가 대한청년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47년 봄부터 세상이 어수선해져 갔다. 처음에는 인민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순박한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다. 얼마 후에는 국민회의, 민애청, 자위대, 대동청년단 등에서 서로 자신의 조직에 들어야 된다고 선전했지만 어떤 말을 들어야 옳은지 촌사람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김병두, 1999).

출근하는 아침만 되면 직장 난간에 ‘직장 다니면 총으로 쏘아버리겠다. 〇〇에 동참하라.’는 종이쪽이 있는 거야. 매일같이 출근하는 아침만 되면 그 종이쪽이 오니까 오빠가 아버지와 상의해서 한청단(대한청년단)에 들어가게 되었어.(11)

당시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대한청년단이나 민보단에 의무적으로 편입돼 토벌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산으로 오른 사람들은 무장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척과 친구들끼리도 무장대와 토벌대 편으로 나뉘게 했다. 시대상황이 강요한 비극이었다(제주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김인근의 오빠가 산으로 붙들려 간 사건은 구술자의 가족을 ‘도피자 가족’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산(무장대)도 무섭고, 여기도 (군, 경 토벌대) 무섭게” 되었다. 김인근은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어느 편인지 알 수 없는” 분열을 경험한다.

3) 가족의 희생 : 1949년 1월 8일

1949년 1월 8일, 가교사 4학년 교실에는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이 심한 고문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있었다. 아버지는 피투성이 모습으로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눈알은 밖으로 튀어나와 볼까지 내려와 있었다. 다른 남자 어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가까스로 벽에 기대고 있었다. 김인근은 당시의 아버지 모습이 잊히지 않아,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1》에서의 첫 시작을 “아버지 눈은 그대로 인지 요?”라고 물으며 써 내려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1949년 1월 8일), 유리창을 통해 본 마을사람들의 총살장면 목격은 김인

근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했다. 김인근은 트럭에서 탈출하기 위해 땅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가족에게 “밀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스스로 몸을 던져 탈출을 시도한다. 당시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으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이는 “트럭 밖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밀어 달라(15)”는 김인근의 간곡한 요청에, “여기 있으면 살건데”(올케언니), “너 도망가면 우리식구 다 죽을 건데 어딜 도망가려고 하니”(어머니)라는 반응에서 알 수 있다.

4) 트라우마 :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계기와 그 이후

탈출 후 대한청년단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으나, 그곳에서는 김인근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일은 자신이 예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 사건이었으며, 바깥출입을 삼가는 원인이 되었다. 트럭에서의 탈출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면, 이후 계속되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죽고자 하는 욕망’을 솟구치게 했다.

길에서 친구들 만나게 되면 “다음에 갈게.” 해서 안 가고. 저대로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친구한테는 움츠러들고. 오빠가 한청단에 있다가 산에 잡혀서 올라가니까 ‘혹시나 그 집에 내가 갔다가 피해라도 주면 어떡하리.’ 하는 마음에 나대로 나를 담겨서 가지를 못했어.(28)

당시 김인근은 친구들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과 돌려보내야하는 상반된 갈등 사이에서 힘들어 한다. 지나친 경계심이나 불안, 위축, 지속적인 악몽, 인지적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반적인 증상들이다(Terr, 1990; Green, 1983). 억압된 분노는 내면의 흐르지 못한 상처가 되고 자신만이 아닌 타인들을 배제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을 잉태시킨다. 결과적으로 불가항력적 폭력에 노출된 개인은 집단의 반응에 따라 개인화를 상실하게 된다(이영문, 2011).

5) 유일한 삶의 통로 : 일기 쓰기와 고마운 분들의 도움

4.3 당시 김인근의 삶을 지속시켰던 요인으로 ‘일기 쓰기’와 ‘호박과 소고기를 보내준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들 수 있다. 김인근은 과거 일기를 썼던 경험에 대해 “일기 쓰는 것이 나 벗 삼은 거.”라고 하여 당시 글을 쓰는 일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무서운 외상적 장면과 관련한 심상, 그리고 조절되지 못한 감정이 침습적으로 의식에 올라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일기 쓰기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최대한의 적응기제였다.

그때 거먼 공책 있었거든. 거기에 일기 쓰고 쪽지들 하고, 그날 일어난 일들, 음식 한 거, 나 학교 못 가서 한이 된 거, 괴로운 가운데서도 어머니 웃기면서 어머니 웃는 모습 보니까 막 기뻐했던 거, 어머니 고통스러워 하면 ‘어머니, 꼭 살려야 한다.’ 마음먹은 거, 그렇게 하나하나 낙서하다 보니까 일기가 많아 버렸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때 벗을 삼아서 살아온 것이 일기. 일기 쓰는 것이 나 벗 삼은 거.(31)

2차 세계대전 당시 ‘안네 프랑크(Anne Frank)’⁵⁹⁾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암스테르담에서 숨어서 지내며, 일기를 통해 나치의 참상을 고발하였다. 비슷한 시기 김인근은 4.3 당시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하면서 당시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일기에 표현하였다. 현재에 와서는 《편지 1》, 《편지 2》, 《편지 3》, 《편지 4》, 《편지 5》, 《편지 6》, 《편지 7》을 통해 4.3 당시 희생된 가족 구성원에게 그동안 못다 한 말을 표출하고 있다. 글쓰기는 억압된 감정과 심리적 상처에 대한 외부의 비난, 즉 내부와 외부세계 검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나’에게 털어놓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내적으로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삶을 지속시킨 요인은 ‘호박’과 ‘소고기’를 몰래 갖다 준 이웃 어른(들)의 선행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었던 이웃 어른들의 선행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미프 히스(Miep Gies)는 안네 프랑크가 죽기 전,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녀는 사람들로 부터 “안네 프랑크 가족을 도

59) 안네 프랑크(Annelies Marie Frank)는 1929년 6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 3월 12일, 베르겐 벨젠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

을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프 히스는 “나는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곤경에 처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도와주었다.”(Müller, 1998)고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더불어 전하였다. 김인근에게 도움을 준 이웃 어른(들)도 이와 동일한 마음이었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행을 베풀었을 것이다.

김인근은 지금까지도 도움을 준 어른(들)의 얼굴을 알 수 없다며, “언젠가는 찾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여태껏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4·3 당시 돌아가신 것 같다며 직접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권귀숙(2006)은 4·3 당시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도왔던 ‘좋은 이웃’에 대한 기억을 발굴하고 기념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는 4·3의 의미를 보편화하고, 대량학살을 예방하려는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긍정적 사고를 지닌 개방세대의 정서에 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4·3 기억을 만들어가는 데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편지와 미술표현(본 인터뷰, 추후 인터뷰)

1) 본 인터뷰 : 편지

이 장의 편지는 ‘본 인터뷰’ 기간 중 김인근이 자유로운 시간에 쓴 내용이며, 편지가 완성될 때마다 연구자에게 건네 준 글을 모은 것이다.

(1)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아버지 눈은 그대로 인지요?
인근이 13살 때 나 혼자였는데
지금은 아들 딸 손자 벼를 삼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좋은 세상도 보지 못하고
떠나간 우리 아버지
지금은 전기불, 수도, 쌀밥
살기가 매우 좋은데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셨습니까?
아버지가 산에 갔다 돌아올 때는
틀, 유름, 산딸기 따다가 주기도 하고
아버지 딸 아니라고 하면서 장난도
하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꿈속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시거든
달빛 햇빛처럼 우리 가족을 비추어
주십시오.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막내딸 인근 올림

아버지 눈은 그대로 인지요?
인근이 13살 때 나 혼자였는데
지금은 아들, 딸, 손자 벼를 삼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좋은 세상도 보지 못하고
떠나간 우리 아버지
지금은 전기불, 수도, 쌀밥
살기가 매우 좋은데
아버지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셨습니까?
아버지가 산에 갔다 돌아올 때는
틀, 유름, 산딸기 따다가 주기도 하고
아버지 딸 아니라고 하면서 장난도
하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꿈속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시거든
달빛 햇빛처럼 우리 가족을 비추어
주십시오.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막내딸 인근 올림

《편지 1》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2) 어머니

어머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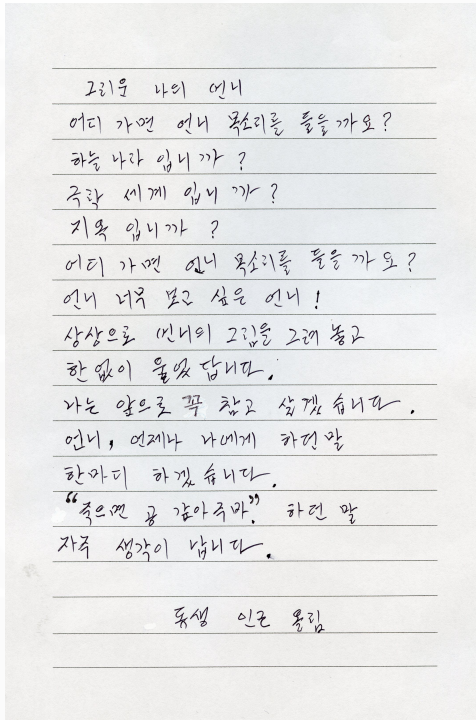
어머님께
고생 고생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인근이가 좋은 음식, 좋은 옷 한 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신 어머님!
뭐가 그리 급하여 빨리 떠나셨습니까?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어머님 손잡고 구경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가 잘 못하여 돌아가게 하여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우리 어머님
막내딸 인근 올림

고생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인근이가 좋은 음식, 좋은 옷 한 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신 어머님!
뭐가 그리 급하여 빨리 떠나셨습니까?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어머님 손잡고 구경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가 잘 못하여 돌아가게 하여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우리 어머님

막내딸 인근 올림

《편지 2》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

(3) 친언니



그리운 나의 언니

어디 가면 언니 목소리를 들을까요?
하늘나라입니까?
극락세계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디 가면 언니 목소리를 들을까요?
언니, 너무 보고 싶은 언니!
상상으로 언니의 그림을 그려 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꼭 참고 살겠습니다.
언니, 언제나 나에게 하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죽으면 공 갠아주마.” 하던 말
자주 생각이 납니다.

동생 인근 울림

《편지 3》 친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4) 오빠

오빠에게

오빠에게
 오빠 어디에 계십니까?
 인근이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오빠 동척회사에 있을 적에
 인근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하시던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님 심부름 잘 들고 있으면
 웃학교도 보내주고 운동화도 사준다”는 말씀.
 오빠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인근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인근 올림

오빠 어디에 계십니까?
 인근이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오빠 동척회사에 있을 적에
 인근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하시던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님 심부름 잘 들고 있으면
 웃학교도 보내주고 운동화도 사준다”
 는 말씀.
 오빠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인근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인근 올림

《편지 4》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5) 올케언니

올케언니에게

올케 언니에게
 언니, 만삭의 몸으로 시부모님 따라서
 음력 12월 10일 날, 지옥 같은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십니까?
 언니, 인근이는 혼자 도망쳐 살겠다고
 나와서 어머님하고 사는 것이
 산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도 한두 번 언니 곁에
 가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언니!
 언니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내 시누 인근 올림

언니, 만삭의 몸으로 시부모님 따라서
 음력 12월 10일 날, 지옥 같은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십니까?
 언니, 인근이는 혼자 도망쳐 살겠다고
 나와서 어머님하고 사는 것이
 산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도 한두 번 언니 곁에
 가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언니!
 언니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
 니다.

막내 시누 인근 올림

《편지 5》 올케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6) 고마운 분들

이름 없는 편지

이름 없는 편지

이름 없는 편지 한 장 올립니다.
우리 모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호박, 소고기, 죽을 가져다 놓고 간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연락 한번 받고 싶습니다.
부모 형제도 찾아다니지 못할 때
음식까지 가져다주신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 인근 올림

이름 없는 편지 한 장 올립니다.
우리 모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호박, 소고기, 죽을 가져다 놓고 간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연락 한번 받고 싶습니다.
부모형제도 찾아다니지 못할 때
음식까지 가져다주신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 인근 올림

《편지 6》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께 보내는 편지

김인근은 60여 년이 흐른 뒤 아버지, 어머니, 친언니, 오빠, 올케언니, 고마운 분들에게 그동안 못다 한 말을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였다. 김인근은 “편지에 있는 그 말들이 당최 나올 수가 없는 말인데”(본 인터뷰)라며,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비록 ‘부치지 못하는 편지’이지만 김인근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Pennebaker(1997)는 심하게 절망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쓰기’는 매우 도움이 되며, 글을 쓰는 과정은 본인이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고찰하게 되고,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객관화가 이루어져 다른 과업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2) 본 인터뷰 : 연구자의 연상그림에 투영된 현재 심리

이 장의 미술표현은 ‘본 인터뷰’ 기간 중, 연구자가 김인근의 생애사를 듣고 그린 연상표현이다. [그림 12]는 초기 인터뷰에, [그림 13]은 후기 인터뷰에 그린 것이다. 두 점의 연상그림은 김인근이 미술 작업하는 동안 약 10분을 할애하여 그렸다. 이 연상그림을 통해 김인근의 현재 심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인터뷰



[그림 12] 초기 연상그림

[그림 12 내용]

이 그림 나 마음에 꼭 드네. 내 마음에 딱 드네. 이 캄캄한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왔어. 아버지 물에 빠진 저수지가 이처럼 벌개 버리고, 어머니 총살시킨 그 넷물 흐르는 데도 핏물로 흘러내리고, 어머니 몸에도 다 피. 그러니 이거야, 이거. 나도 취조 받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세상이 빨강색 한 가지로 보이고. 온 식

구가 이런 불구덩이 모양으로 피 속에서 헤맸어. 사람만 보이면 문 닫아서 캄캄한 데서 살다시피 하면서 일기하고 뱃 삼아서 살 때가 이때.

(2) 후기 인터뷰



[그림 13] 후기 연상그림

[그림 13 내용]

나는 이런 거 좋아해. 깨끗한 거. 촛불이 활활활활 해가는 거. 환한 세상을 막 비추는 거야. 부모형제 흩어 되어 버렸지만 내가 하나하나 말을 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언니들이 저 불빛같이 바깥으로 솟아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야. 환한 세상으로 영혼이 나오는 기분.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부모형제가 ‘우리는 그 억울하고 말 한마디도 못해서 세상을 떠나서 와버렸는데 인근이가 우리 속마음을 말해줘서 우리도 저렇게 촛불 모양으

로 환한 세상을 봐지는구나.’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로 생각하면 촛불이 환한 세계에서 이제는 살아지는 기분. ‘내가 어두 캄캄한 지옥 속에서 환한 세상으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환한 세상으로 뛰쳐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림은 한 가지라도 이념 마음속에서는 여러 갈래로 들고 있어. 저것을 보니까.

3) 본 인터뷰 : 후기 미술표현

이 장의 미술표현은 김인근 스스로 구상하고 직접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미술작업 과정 중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미술표현이다.

[그림 14,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근 : (그림을 그리면서 웃음) 에이 참, 여든 돼서…….

연구자 : 어머님, 재미있습니까?

김인근 : 응, 막 낙서해 가니까 신나서. 이렇게 신나는 데 남이 이거 보면 “참, 희한한 이런 그림도 있나.” 해서 웃을 거라도. 웃거나 말거나 이젠.

연구자 : 이 그림은 어머님만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김인근 : 에이, 참(웃음), (빨간색을 집으며) 새빨간 거 이것인가?

연구자 : 예, 맞습니다.

김인근 : 그런데 구렁텅이는 어느 색을 하면 좋을까(혼잣말로 중얼거림). (검은색을 찾으며) 거무스레한 거?

연구자 : (검은색 크레파스를 건네며) 요겁니다.

김인근 : 지금 (낙서하듯 색칠하면서) 그리는 것은, 나 좋아하는 낙서하는 거 나왔다. 막 이리로 삭삭, 저리로 삭삭.

연구자 : (웃음)

김인근 : (이전까지는) 색을 칠하고 싶지 않았어. 그림으로만(연필로 그리는 구체적 표현) 낙서 하지. 이런 건 해 보지를 않았어. 하면 어떻게 내가 어색해져.

연구자 : 색칠하는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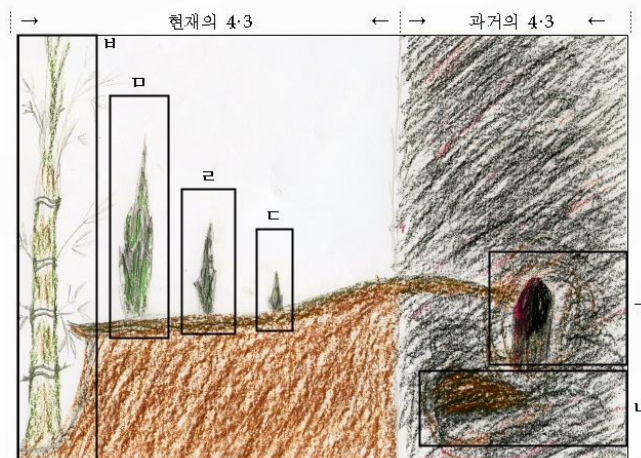
김인근 : 응.

연구자 : 지금은 어떠십니까?

김인근 : 아이, 이젠 막 낙서하니까(웃음). 첫날 이거 했으면(색을 사용한 그림) 별별 땔었을 것인데(웃음). 지금은 낙서하니까(자유로운 색칠) 신나는 거야. (자신이 그리던 '그림 14'를 가리키며) 이러한 구렁텅이에서 어머니하고 나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하는 거야. 오늘 낙서하는 것은 제일 좋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했는데, 이젠 그런 생각은커녕.



[그림 14] 과거의 4·3과 현재의 4·3



- ㄱ. 자신
- ㄴ. 어머니
- ㄷ. 4·3평화공원 다녀온 후의 죽순
- ㄹ. 4·3체험담 발표 후의 죽순
- ㄱ. 연구자를 만난 후의 죽순
- ㄴ. 위의 ㄷ, ㄹ, 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자라난 대나무

[그림 14 내용]

여기 검은색에 빨간색 칠해 버린 데가 나(ㄱ). (사람 형태로) 나 그럴 필요 없이. 이것은 냄새나면서 썩어가는 어머니(ㄴ). 나는 빨간 색깔 있고 머리밖에 없는데…….(ㄱ). 이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어머니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그냥 시체가 된 몸이야. 피고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나한테만 빨간색 칠한 것은 내가 어머니보다 조금 건강한 모습이니까 빨간색을 칠한 거. 난 이 구렁텅이에서 햇빛 속으로 나가지 못할 바에는 형제간 있는 데로 가고 싶다고 막 몸짓 할 때가 이때. 여기서 밖으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할 때. 남이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산폭도’라고 하는 것 같고(목이 멎).

지금 도둑놈, 사람 죽인 사람보다도 그땐 막……. 죄인 아닌 죄인 몸이 되어서. 복통은 끊어지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 닫아서 하다가 답답하고 미쳐질 거 같으니까 종이 주워서 종이쪽에 일기 쓰고. 어머니가 조금 정신 나서 걸으시고 어머니대로 조금 옷 갈아입을 정도 해도, 그래도 이 속에 살 때야.

“4·3평화공원⁶⁰⁾에 집 짓고 있다. 위패들 얹히고 있다.” 하는 소식은 들었지. 그래도 안 갔어. 그날 책자 나오면 그 책만 빌려다가 보고. 4·3평화공원에 동네사람들 세 번째까지 간다고 해도 나는 안 갔어. 그때까지도 여기에서 쭉그려 앉은 거. 다들 간다고 해도 안 갔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

네 번째 되는 해에 동네에서 차들 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가서……. 혹시……. 아버지, 어머니 위패들이라도 거기 있을까, 가서 확인만이라도 해서 오자.’ 해서 국화꽃 한 송이 들고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올케, 언니 위패들이 얹혀 있었어. 오빠는 행방불명 돼 버리니 다른 데에 따로 위패가 있고. 위패를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을 폭도라고 나무라다가 우리를 살어나게 해 줬구나.’, ‘이젠 우리 오빠 죄가 없구나.’ 하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어.

위패들이 셀 수 없이 짝 차게 얹은 걸 보고 있으니 ‘나만이 아니로구나. 저 어른들도 나 같은 어른이고 나보다 더한 시체 못 찾은 어른들도 있는데, 그래도

60)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4월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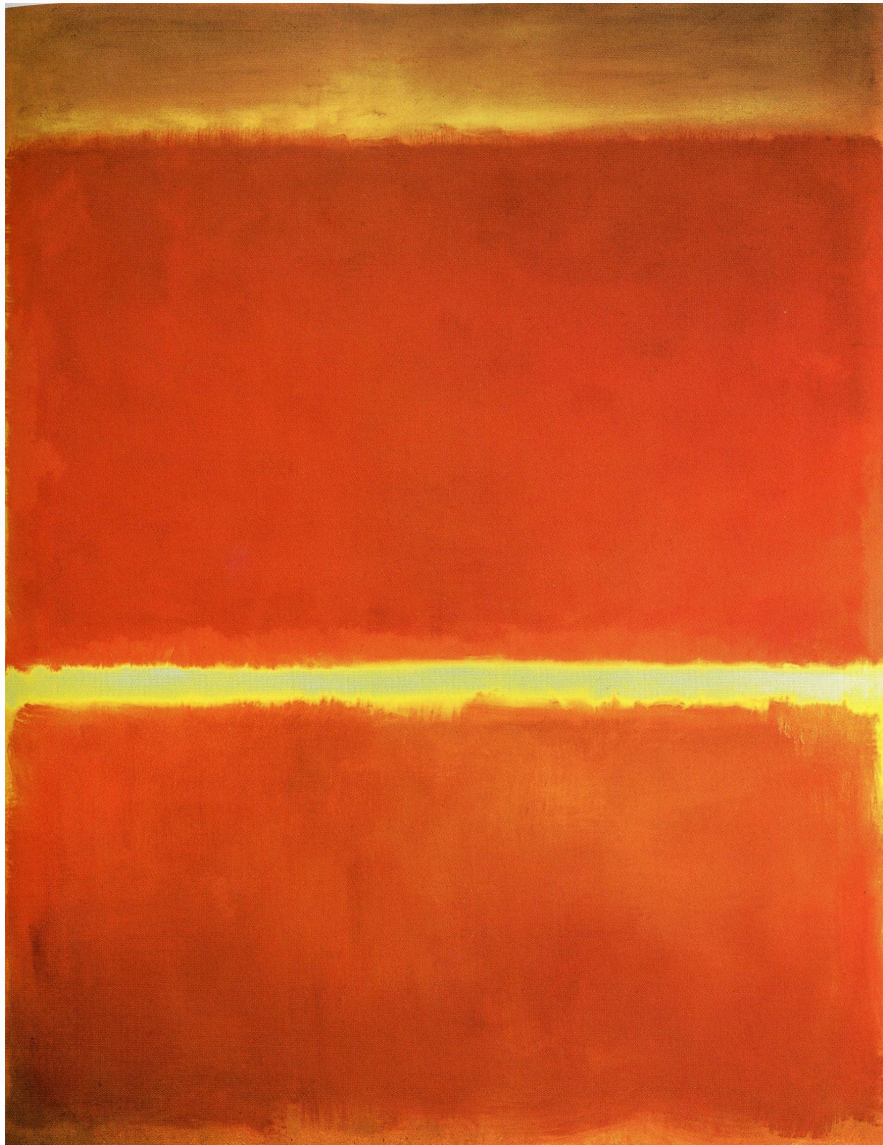
나는 부모님 시체라도 찾으니까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 못 찾은 어른들은 ‘시체라도 찾아졌으면’ 할 사람이 천지니까. ‘아, 그걸로 생각하면 내가 좀 낫구나.’ 해서 그때 용기 얻어서 왔어. 그리고 ‘부모형제가 여러 고인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때 죽순이 조금 기어 나왔어(ㄷ).

그다음은 4·3평화공원 갔다 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3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 “시민회관에 가서 4·3때 겪은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사.” 하고. 시민회관 가서 ‘4·3체험담 발표’ 한 후에는 죽순이 요만큼 나왔어(ㄹ).

그다음은 선생님(연구자)을 만난 거야.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걸 답답한 그림이고, 나 편지들 보내고 해 가니까 죽순이 요만이 올라와 버렸어(ㄱ). 그래서 이 죽순이 나 마음속에서 막 크는 거야. 이 죽순이 커서 대나무가 되어서 이파리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ㅂ).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당당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대나무가 나올 정도로 사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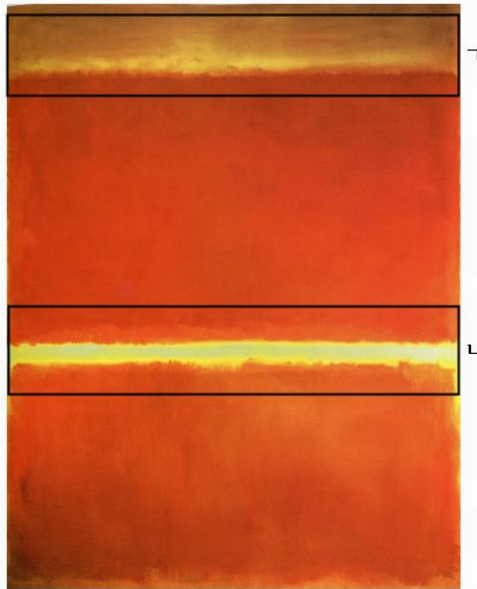
4) 3 차 추후 인터뷰 : 작품에 투영된 현재 심리

김인근은 『마크 로스코』,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고려불화』 중에서 『마크 로스코』 작품을 선택하였다.



[그림 15]

캔버스에 유화, 177×137cm, 리히텐슈타인, 개인소장



[그림 15,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근 : 이쪽 부분(ㄴ)보다 여기(ㄱ)가 좋다. 무엇이 살아나는. 기분이 환해지는 기분.

연구자 : 아랫부분(ㄴ)보다 윗부분(ㄱ)이 마음에 드신다는 말씀이죠.

김인근 : 이 화가는 나 같은 생각을 요만큼도 안하겠지만, 나는 빛이 출렁출렁 해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

연구자 : 어머니는 빛을 좋아하시나 봐요.

김인근 : 응, 그런데 이 빛이 불빛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속이 캄캄하게 썩어 들어가면서 울며불며하던 그 세계가 이젠 환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은 거야). 내가 속이 뭉그러지고 캄캄한 그런 생활을 했어.

이것이('ㄱ'의 빛) 아직은 요만큼이지만(조금이지만). 차츰차츰 퍼지면서 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이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표현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나 생각으로는 희미한 곳에서 환한 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

연구자 : 환한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건지요?

김인근 : 명예회복!

연구자 : 어머님 가족은 이미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김인근 : 그래, 그때⁶¹⁾ 명예회복 되었다고 해서 내가 아주 기뻐했어.

연구자 : 명예회복이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듣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김인근 : 이전에는 ‘명예회복만 해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했는데, 명예회복해도 지금 이제 회-미하게(되는). 그래서 43 공휴일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들 데리고 할아버지 위패 있는 곳에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이날 하루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그리고 우리 부모형제 영혼들을 딱 끌어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눈 편안히 감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아버지는 “인근아 집에 있으라.”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어. 아버지께 “무슨 죄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말도 하고 싶고. 부모형제가 인근이한테 할 말이 있으면 실컷하고 나도 듣고. 그 저 주고받는 말만 하고 싶어.

연구자 : 아, 대화를 하고 싶었군요.

김인근 : (맞장구치며) 응.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대화만 하고 싶어. 몇십 년 된 이 일(43)은 잊어버려지지 않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고. 부모형제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정도지. 매일이야. 매일. 길가다가 자식들이 노인 손잡고 병원에 모시고가는 것만 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계신다면 난 저 사람들보다 더 곱게 손잡아서 갈 건데’ 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연결되는 거야. 그래도 이젠 선생님(연구자) 온 후에는 내가 신이 났어.

내가 숨기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림 그리고 편지 쓰고 하니깐 어디 나가면 움츠러들지 않는 거야. 움츠러들고 병 걸린 사람처럼 했는데, 이젠 당당해진 거야. 죄인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분.

61) 2000년 정부에 의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폭도’라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기분.

마음 한 구석에 시커멓게 탄 그 병이 조금 ‘하얗게’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라. 표현을 하자면 그런 기분. 이젠 노인당에 누가 오라고하면 달려가고.

연구자 : 예전에는 노인당에 잘 다니지 않았습니까?

김인근 : 가더라도 움츠러들고. 뒤편에만 앉고. 그런데 이젠 차츰 그런 것이 없어졌어.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책을 보면서) 난 이런 꽃도 좋아하고, (고려불화 책을 보면서) 절에 대해서라면 책도 보려고 하는데, (마크 로스코의 책을 보면서) 오늘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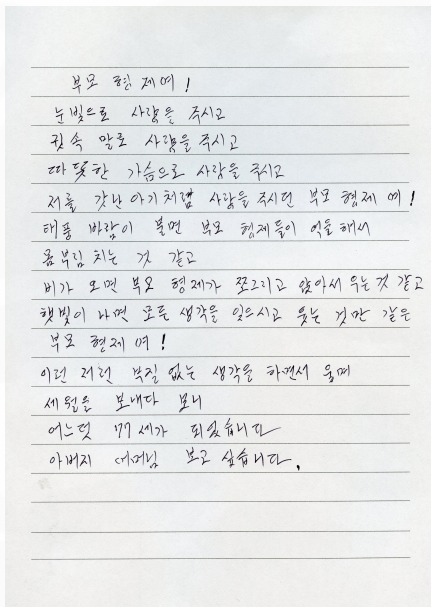
연구자 : 제가 다녀간 다음부터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인근 : 너무나. 나, 조금 젊어 보이지 않은가?

연구자 : (웃으며)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김인근 : 그 전에는 우울증 모양으로 옷도 산뜻하게 입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이젠 나도 당당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 전에는 43 이야기만 하면 움츠러들고 아이고 또 무슨 일이 터질 건가 했는데.

5) 3차 추후 인터뷰 : 편지⁶²⁾



부모형제여!

눈빛으로 사랑을 주시고
 귓속말로 사랑을 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주시고
 저를 갓난아기처럼 사랑을 주시던
 부모형제여!

태풍 바람이 불면 부모형제들이 걱정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고,
 비가 오면 부모형제가 쫓그리고 앉아서
 우는 것 같고,
 햇빛이 나면 모든 생각을 잊으시고 웃는
 것만 같은 부모형제여!
 이런 저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울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77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님 보고 싶습니다.

《편지 7》 부모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62) 이 편지는 '3차 추후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 김인근이 즉흥적으로 쓴 내용이다. 이날 연 구자와의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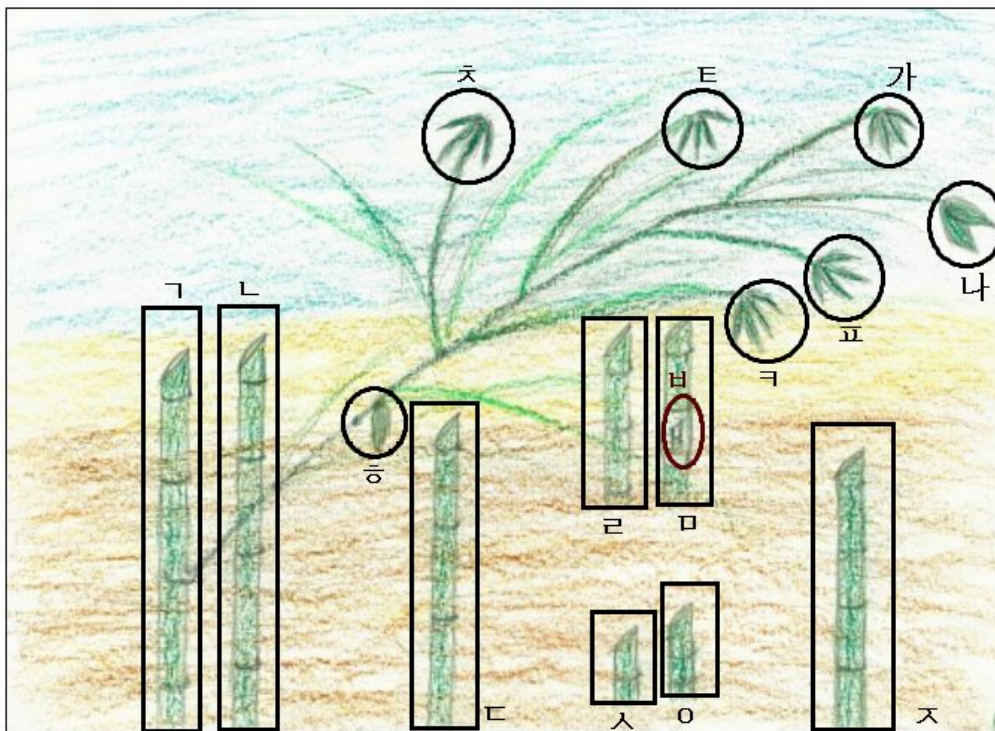
6) 5차 추후 인터뷰 : 미술표현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4·3에 대한 말만 하면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싫었어. 4·3 대해 물어보면, ‘난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만 했어. 집에서는 아이들 아버지(배우자)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4·3에 대한 말을 꺼낼 때가 있는데, 난 그 (4·3) 말만 (배우자가)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딱 중단시켜버렸어. 무섭고 듣기도 싫은데 왜 그 말을 꺼내느냐고. 그럴 때마다 (배우자는) 서운해 하고.

그런데 이젠 4·3에 대한 이런 저런 말, 하고 싶은 말 해가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 아이들 아버지(배우자) 하는 말이, “4·3에 대한 말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아주 좋다.”고 해. 또 노인당 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못 견디게 외로워도” 그 노래를 불렀어. 나대로 가사 만들면서. 텃밭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계속 눈물이 났는데, 노인당에 가서 부를 때는 울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 노인당에서 그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나 마음이 풀어진 거야.



[그림 16] 4.3 당시 희생된 원가족과 현재 가족



4.3 당시 희생된 원가족	ㄱ.	아버지
	ㄴ.	어머니
	ㄷ.	작은아버지
	ㄹ.	오빠
	ㅁ.	올케언니
현재 가족	ㄴ.	올케언니 배 속의 태아(작은 대나무로 표현)
	ㄷ.	오빠의 첫째 아들(당시 네 살)
	ㄹ.	오빠의 둘째 아들(당시 두 살)
	ㅁ.	친언니
	ㅂ.	첫째 아들의 가족(네 개의 잎사귀=네 명의 가족)
	ㅅ.	둘째 아들의 가족(네 개의 잎사귀=네 명의 가족)
	ㅇ.	셋째 딸의 가족(네 개의 잎사귀=네 명의 가족)
가족	ㅈ.	넷째 딸의 가족(네 개의 잎사귀=네 명의 가족)
	ㅊ.	다섯째 아들
	ㅋ.	여섯째 딸의 가족(네 개의 잎사귀=네 명의 가족)
	ㅌ.	김인근과 배우자(두 개의 잎사귀=부부)

[그림 16 내용]

‘대나무’하고 ‘나비’가 생각났어. 그런데 ‘대나무로 그리는 것이 나비로 그리는 것보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돼지, 말, 소 꼭 차게 그려서 즐겁게 사는 것을 그리고도 싶었는데……. 큰 꽃밭 모양으로 해서 나비들을 그리고 싶었는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나비는 기빠서 날아갈 수도 있고. 기빠서 먹이 찾으러 갈 수도 있고. 어느 꽃밭에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나비가 될 정도로 우리 부모님 여유 있게 아니 갔다.’, ‘잔인하게 칼로 탁탁 베는 것처럼 떠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칼로 대나무 자르는 연습하듯이 우리 부모형제 단번에 돌아가셨어. ‘악!’ 하는 소리도 못 내보고 단번에 가버렸어. 그러니 한참 커울 때 사람들이 와서 탁탁 쳐서 뿌리까지 다 죽여서 없어. 나만 저렇게 살아서 뽀족뽀족 살아있는 거. 나 혼자 살아서 자식하고 손자들을 대나무 잎으로 표현하고. 대나무 이파리가 저렇지 않지만 식구들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건 대나무 이파리도 아니고, 들에 나는 풀도 안 같고 해도. 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가족을 표현한 거.

가지들은 자식들, 한 집안에 네 식구씩 다 있고. 그러니까 저 그림에는 돌아가신 우리 아홉 식구, 지금 내 식구들 전부 들어갔어.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친언니, 작은아버지, 오빠, 올케언니, 조카 2명, 올케언니 배 속의 애기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글자인 줄 알거야(ㅂ). 배 속의 애기인 줄은 모를 거야. 그런데 배 속의 애기.

4.3 때 우리 가족, 그런 비극이 없었다면 이 대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룰 건데, 이 도화지 속이 짝 찰 텐데……. 한라산에 숲 속은 저리 가라 일 텐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 하나뿐. 이 그림은 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우리 식구.

김인근은 “악! 하는 소리도 못 내보고 단번에 가버렸어.”라며, 어떠한 발언도 못하고 떠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자신이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트라우마에는 타인의 고통스런 경험이 잠재해있다고 볼 수 있는데, 라캉(Lacan)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통해 타인의 트라우마와 만나게 되는 방식에 주목했다(Caruth, 1996). 타인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불가해하지만 바로 이러한 ‘타이성’이 생존자의 윤리적 책무를 일깨운다. 트라우마는 사라진 타자와의 약속이다. 그것은 타자의

호소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했음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응답의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일깨운다(민승기, 2005).

7) ‘본 인터뷰 그림’과 ‘5차 추후 인터뷰 그림’에 나타난 심리 변화 비교



[그림 17]
과거의 4·3과 현재의 4·3
(본 인터뷰, 2009년 9월 실시)



[그림 18]
4·3 당시 희생된 원가족과 현재 가족
(5차 추후 인터뷰, 2011년 4월 실시)

[그림 17, 18 비교 내용]

지금은 대나무[그림 18]가 그때 보다[그림 17] 내 마음 속에서 컸어. 커도 커도 많이 컸지. 이렇게 답답할 때하고[그림 17], 저 그림 그릴 때하고[그림 18] 그리 는 걸로만 해도 마음이 ‘서너 단계’ 올라간 거 같아. 여기서는[그림 17] 나 답답한 것만 구렁텅이 닳은 데서 나오는 그런 생각만 표현했고. 이제는[그림 18]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

그림 그리고 글(편지) 쓸 때도 ‘아~ 좋다, 아~ 좋다.’ 했는데 오늘은 총 ‘팡’ 쏘면 탁 자빠지는 돌아가신 어른들 표현하니까 마음이 좋아. 이전까지는 가족이 죽어간 참혹한 모습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어. ‘돌아가셨다’는 말 자체를 하기 싫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처참한 모습이 떠오르면서 몸이 발발발발 떨리고 속이 답답하고, 말이 목에 걸려서 잘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내 부모형제가 돌아가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이 그림처럼

[그림 18] 당당하게.

남이 이 그림 보고 ‘그림이라고 해서 그렸는가’ 웃어도……. ‘3살 난 아기 그림’이라고 하면서 웃어도……. 내가 이분들의 고통을 알린 것 같아 기분이 편안해. 억울하게 간 것을 알린 것이 좋다 하는. 그래도 나 혼자 살아서 자식, 손자들 그림으로 그리니까 저기[그림 18] 다 ‘우리 가족이 있구나’ 하는. ‘4·3’ 글자만 나오면 말도 못 꺼냈는데, 이젠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 살아올 때 거. 아버지 고통 받아난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느 한 부분(오른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며) 수술 받은 거 같아. 기분이 시원해졌어. 나 속에만 놓지 않고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와 버린 것 같아.

이 두 그림을 통해 그동안의 심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7]이 개인의 고통을 표현했다면, [그림 18]에서는 대나무 그림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원가족과 현재 가족을 모두 표현하였다. “가족사진”이라고 지칭한 이 그림을 그린 후 김인근은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다. 이는 말할 수 없었던 참혹한 가족의 죽음을 말함으로써 오는 후련함의 상태라고 보아진다. 그동안 김인근의 뇌리 속에 각인된 가족의 형상은 흩어진 존재였으나, 미술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원가족과 현재의 가족을 한 곳에 초대할 수 있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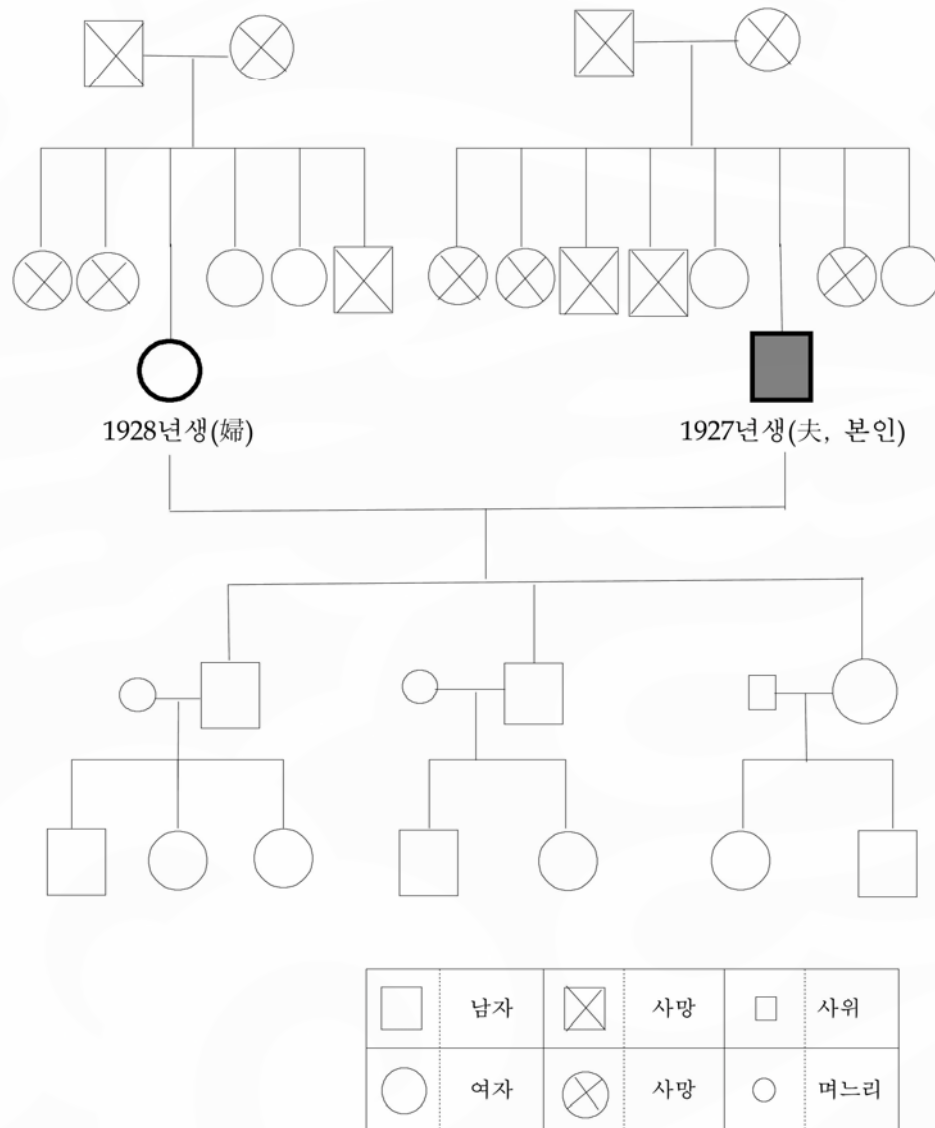
제2절 이명관 사례

1. 생애사와 미술표현

1) 인터뷰 요약

이명관은 1927년 북제주군 애월면 어음2리에서 부모님 슬하 3남 5녀 중 여섯 번째로 출생하였다. 본업은 농업이다. 길을 가던 중 응원대와 마주치자 애월지사로 강제 압송되었다. 이곳에서 이틀간 취조 받고 제주경찰서로 이송, 21일간 수감 후 무죄 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민보단에서 (1년 이하)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전투 중 이마의 총상으로 제대하였다. 제대 후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4·3 중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정착은 어려웠다. 1954년 어음리가 재건되자 비로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명관의 가족은 4·3으로 인한 피해자 및 사망자는 없다.

2) 가계도



[그림 19] 이명관의 가계도

3) 연도별 주요기록

- 1927년 (1세) : 출생⁶³⁾
- 1940년 (14세) : 온신서당 입학⁶⁴⁾
- 1941~42년 (15세~16세) : 어도 간이학교 다님
- 1946년 (20세) : 어음리 1, 2 합구(合區)⁶⁵⁾
- 1947년 (21세) : 결혼
- 1948년 (22세) : 4·3 발발
- 1948년 10월경 (22세) : 어음리에 경찰이 주둔하기 시작⁶⁶⁾
- 1948년 (22세) : 제주경찰서에서 21일간 수감 후, 무죄 석방으로 풀려남
- 1948년 11월 15일 (22세) : 진압군이 어음리에 소개령을 내림⁶⁷⁾
- 1948년 11월 20일 (22세) : 청년 10여 명이 한림국민학교에서 총살당함⁶⁸⁾
- 1949년 (23세) : 봉성 처가댁으로 내려감
- 1949년 (23세) : 첫 출산
- 1950년 9월 1일 (24세) : 육군 입대
 - ▶ **입대경로** : 한림초등학교(입대장소)→모슬포(모슬포항)→산지항(제주항)
→부산 5호 훈련소(1개월)→부산 통신학교(7일)→8사단 21연대
→강원도 홍천→대구 육군병원→제대
- 1951년 12월 31일 (25세) : 군 제대
- 1954년 (28세) : 어음2리 재건⁶⁹⁾
- 1954년 (28세) : 부락 경비대장
- 1963년 (37세) : 어음리 1, 2 분리⁷⁰⁾
- 2009년 10월 (83세) : 연구자를 만남
- 2011년 (85세) : 현재

63) 이명관은 실제 출생 연도와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도가 다르다. 실제 출생 연도는 1927년생이며,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도는 1929년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출생 연도(1927년)를 기준으로 생애사가 진행되었다.

64) 온신서당은 1926년에 인가되었다(김병두, 2003).

65) 1916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이 1, 2구로 분구했었다(김병두, 2003).

66)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

67) 위의 보고서(2003).

68) 위의 보고서(2003).

69) 김병두(2003). 내고향 어음1리.

70) 위의 책(2003).

4) 문단나누기

- ① 어린시절 : (1)-(2)
- ② 생활사 : (3)
- ③ 일제강점기 : (4)
- ④ 4·3 도래 : (5)-(8)
- ⑤ 군생활 : (9)-(13)
- ⑥ 어음리 재건 : (14)
- ⑦ 4·3과 남·북에 대한 구술자의 소견 : (15)-(16)
- ⑧ 현재 : (17)-(19)

5) 본 인터뷰 : 생애사와 미술표현⁷¹⁾

이제는 43을 말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 옛날에는 당최. 43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말을 못해. ‘편안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생각만. 그제,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없는 사람들 왜 죽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지……. 사니까 참 살았지.

—이명관의 생애사—

서당과 간이학교를 다니고

왜정 때 내가 13살 적에 온신서당에 다녔어. 2년을 못해서 한 1년 정도. 그다음은 저기 봉성이라고 하는 부락에 (어도) 간이학교⁷²⁾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2년 다니고. 간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30명쯤은 되었어. 교실에는 책상 있고 앉는 걸상 있고. 글은 ‘ㄱ, ㄴ, 가, 갸, 거, 겨’ 한글도 하고, 일본글도 하고. 공부하는 말로만 재미있게 가르쳤어. 그때 시험도 보고 다 했거든. 시험 볼 때는 선생이 문제를 내서 의미를 다 알아야 푸는 문제였어. 그거 다 해석하면 합격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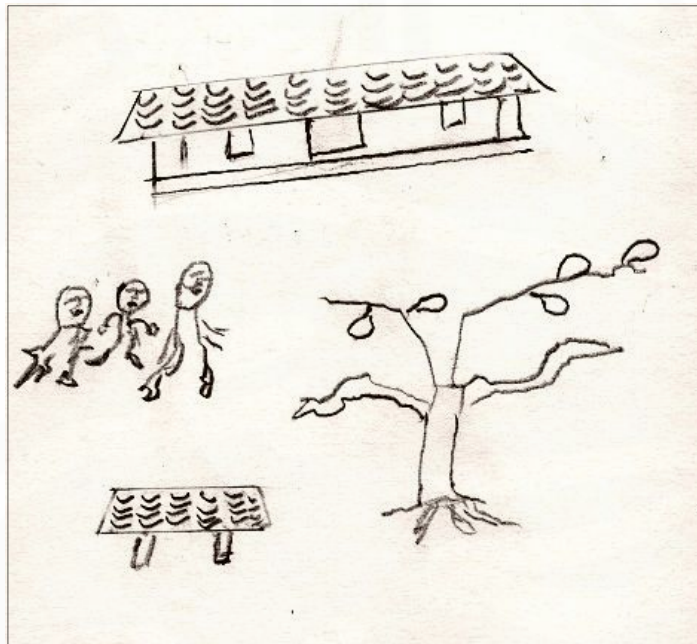
그런데 공부는 별로 안 하고 풀 베고 퇴비 만들고 했어. 나가 그때 반장을 했는데 “너희들 풀 베.” 그런 지시도 하고.

그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애월초등학교⁷³⁾에 다니고, 없는 사람들은 온신서당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달에 얼마 돈 내서 학교 다녔지. 그때 돈이 얼마나 귀했다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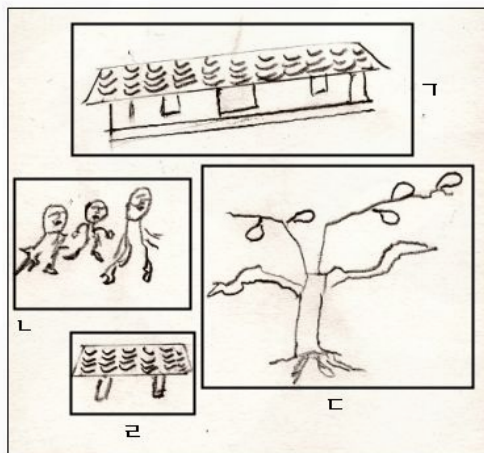
71) ‘본 인터뷰’ (1)-(19)의 생애사는 부록에 제주어로 제시하였다.

72) 어도 간이학교는 애월초등학교 부설학교이다. 2년제이며, 2년을 수료하면 애월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할 자격이 있었다(김병두, 1999).

73) 애월초등학교의 전신은 애월신우공립보통학교이다(제주교육박물관, 2009). 애월신우공립보통학교는 1923년 9월 4일 개교하였다(제주도교육위원회, 1987).



[그림 20] 옛 온신서당



- ㄱ. 온신서당
- ㄴ. 학생들
- ㄷ. 먹구슬나무
- ㄹ. 서당정문

어린 시절 놀이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랑 연극할 때 내가 영감을 했어. 지팡이 짚고, 노래 부르고, 내가 그때 연극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⁷⁴⁾ 잊어버리지 않아. 그 노래.

그때는 음악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북하고 장구, 징. 징하고 북을 같이 치면서 포장을 옆으로 짹 걸어. 그러면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면 마을 사람들이 뺑뺑이 모여 있어.

또 ‘구멍치기’라고 하는 거. 돈, 노란 쇠로 만든 일진. 그것으로 어떻게 ‘구멍치기’ 했냐 하면,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들어서 선을 그어. 그런 다음에는 선 밟지 않게 서서 그리로 넣으면 먹는 거고 넣지 못하면 지는 거야.(2)

생활사

부모님이 농사짓는 거 보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농사지었어. 옛날 제주도 돼지 우리네 돼지 기르는 데에 양쪽으로 돌 놔서 사람이 대소변 보게끔 했거든. 돼지 우리 안에 돼지 집도 있어. 그 안에서 새끼도 낳고. 그러면 돼지들이 인분을 먹고 돼지우리 안에서 크는 거야. 사람이 준 음식물도 먹으면서.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서 먹는데 “그렇게 맛이 있어.” 지금 돼지보다 훨씬 맛이 좋았거든. 내가 먹어보니까 이 말을 하지(웃음).

봄에는 풀 먹은 소들이 똥, 오줌을 싸면 그걸 돼지우리에 넣었거든. 그러면 돼지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섞어지면서 골고루 썩게 되거든. 나중에 그걸 끄집어내서 사람 밭로도 밟고 소로도 밟고 해서 먹통구미에 골고루 담아서 소에 싣고 밭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리 씨에다 그걸 섞어서 보리를 갈았어. 한 밭에 몇 평이면 얼마 든다는 것을 넣어서.

여름농사는 거름 안 주고 그냥 씨만 뿌리고. 비료가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⁷⁵⁾. 왜정 말기에는 했지. 그때 콩도 많이 갈고, 조도 많이 갈고, 팥, 메

74) 이 노래는 1940년에 발표한 백설희의 ‘나그네 설움’이다. 당시 10만 장의 음반이 팔릴 만큼 인기 있는 대중가요였다(이이화, 2004).

75) 일제는 1930년대에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화학비료공장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비료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고 수요도 급격히 상승했다(이송순, 2003).

밀 그런 농사. 밭에서 메밀을 손으로 다 베고 으깨고 해서 실어다 먹었어. 메밀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변 사람들이랑 바꿔 먹기도 하고.

또 그때는 물이 귀해서 우마(牛馬)나 사람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고인 물을 먹었는데 사람이 먹는 물에는 우마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놓았어. 그러면 물구덩이에 물동이를 넣어서 걸머지고 그 물을 길어다 먹었거든.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물동이’인데, 저기 모슬포에 그릇 만드는 데가 있었어. 신평이라고 하는 데. 거기서 만들었어. 그거 저서 이까지 팔러 왔었어.(3)

일제강점기 말의 상황

왜정 말엽에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적에 식량이 모자랐던 모양이야. 개인으로 얼마 바치라고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곡식을 다 바치라 이거야. 안 낼 수가 없어. 온신서당 가서 다 바쳤어.

그 기간이 오랫동안 굶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분간, 몇 개월 정도. 1년은 아니고. 왜정 말엽이었으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적에 한 9월 달인가. 폭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 일본 잠수함이 비양도 근처, 그리로 와서 세울 적에 미군 비행기가 날아가 일본 잠수함을 폭발시켜 버리니까 일본군들 거기서 많이 죽었어.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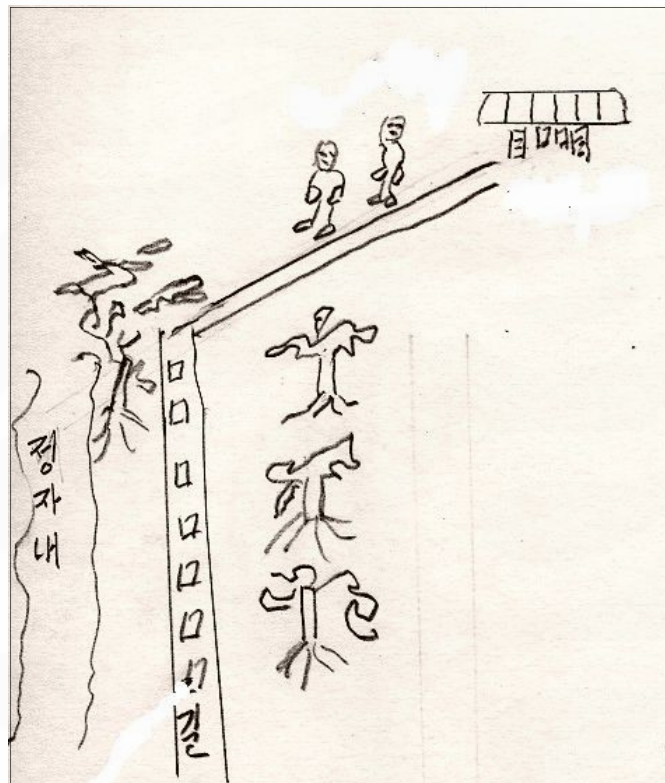
그때는 우리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이랑 똑같이 군대 갔어. 그 당시 징용 가는 사람은 애월면에서 상부 지시를 받아서 몇 명 보내라 하면 그대로 보냈거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큰형님도 북해도 탄광 거길 다녀왔어.(4)

4.3의 전조

해방되니까 아주 참 마음이 좋았어⁷⁷⁾. 이제 살아질려구나. 그런데 그것도 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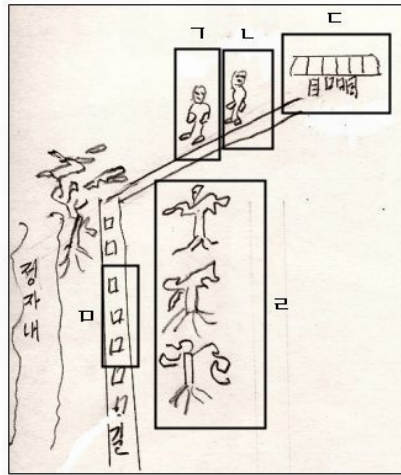
76) 비양도 앞 바다에 일본 군함 두 척이 숨어 있는 것을 한 밤중에 미군기들이 폭격하여서 그 폭음 소리에 우리 마을 집의 문이 열릴 정도였다(김병두, 1999). 미군이 제주도를 공습했던 것은 1945년 2월 14일, 마라도 근해에서 일본군 해방함 제9호가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침몰했으며, 4월 14일에는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해방함 31호와 능미호가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격침되었다. 5월 13일에는 한림항과 비양도 근해에서 일본 호위함 4척과 수송선 1척이 미군 잠수함과 비행기의 공격을 받고 격침되었다. 일본 군함이 격침되고 나면 제주의 바닷가에는 검은색 해군복을 입은 일본군 시신들이 부지기수로 떠올랐다. 비양도 앞의 한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이영권, 2005).

친족 종손 집에 아버지하고 제사 보고 오는 새벽 2시 경에, 길에 한글로 써진 빠
라⁷⁸⁾가 흩어져 있었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명(목숨)이 바빠서 이런 짓을 한
다.”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사태가 커져서 경찰이 와서 무조건 잡아갔어. 무조건
이야. 길에 다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 죄가 있건 없건 잡아갔어.(5)



[그림 21] 4·3의 전조

- 77) 히로시마에 징용 갔던 형님도 9월에 돌아왔고, 북해도 노무자들도 돌아왔다. 마을마다 걸공을 하고 축제 분위기였다. 일 년간은 평온한 세상이 계속되었다(김병두, 1999).
- 78) 군정당국은 1947년 5월 17일 정치적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3호’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무허가 집회와 빠라살포 혐의로 검속되는 사건이 빈발했다(제민일보4·3취재반 1권, 1994).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1947년 6월 1일 경찰이 ‘빠라 살포혐의’로 제주읍내 중학생 20명을 검속, 6월 18일 ‘빠라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교원양성소·조천중학원 학생 10명에 체형 등 언도, 6월 20일 여러 마을 청년들이 ‘빠라 살포혐의’로 재판에 회부, 7월 3일 빠라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하자 제주농업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에 반발, 농성하였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ㄱ. 자신
- ㄴ. 아버지
- ㄷ. 제삿집
- ㄹ. 나무
- ㅁ. 흩어진 뺨라들

마을 소개

산에서 내려와서 불붙이는 바람에 이 부락이 소개를 당하니까 봉성도 가고, 한림도 가고, 애월도 가고, 시내도 가고. 이 부락 사람들이 각 처로 흩어졌어.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헛간에서 살고.

마을이 소개되어 내려갈 적에는 식량 하고, 소 있으면 소 끌고 가고. 그때 해변가 사람들이 어음리에 와서 짐 운반하는 거 도와주고. 차도 없고 달구지도 없어서 어깨에 걸머지고 운반했어. 마을 아래에 내려온 후에, 나는 봉성 처가댁에 가서 살고. 어머니 아버지는 큰누님네 집에 가서 살고.

식량을 산사람들이 모두 털어가 버리니까 먹지 못해서 몸이 부은 사람도 있었어.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으니까 어디서 곡식을 쫓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마을 정미소에서 가마솥에 죽을 쑤서 굶는 사람들 먹였었고 했어.

박OO라고 경찰관 하다가 파면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 사는 집에 놀러 왔다가 콩죽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나무 속껍질을

달여서 먹었다.”는 거야. 마을이 소개 당하니까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 그러니 삶을 삶으로 안 살았거든. 목숨만 붙은 거지.(6)

마을 사람들의 희생⁷⁹⁾

그 당시에는 사람 마음이 안심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죽고 살고 막 할 때니까. 젊은 청년들을 무조건 잡아갔어. 죄가 있고 없는 것은 우리도 당최 모르는데, 막 취조하면서 “바른말 하라.” 이거야. 내 생각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나도 경찰서까지 가오긴 했지만 그때 심정이 괴롭게만 살았지.

지금 저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은 전기 취조까지 당했어. 취조가 여러 가지야. 비행기 취조가 있어. 비행기 취조. 천장에 매달아서 막 때려. 거기서 죽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죽을 정도면 그보다 더한 취조가 어디 있어. 사태가 그렇게 컸으니까.

하루는 9연대 군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온신서당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야. 온신서당 마당에 쫓 앉으니까 “이름 부른 사람 나오라.”고 해. 그때 내 이름은 안 불렀어. 이름 부른 사람은 “산에 가담되었다.”, “빨갱이다.” 해서 잡아다가 그날 다 총살시켜 버렸어.(7)

무죄 석방으로 풀려나고

비가 촉촉 오는 아침에 우장 쓴 사람이랑 같이 집에 오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웅원대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까 “소 보러 갔다 옵니다.” 했어. 내가 살려고 그 말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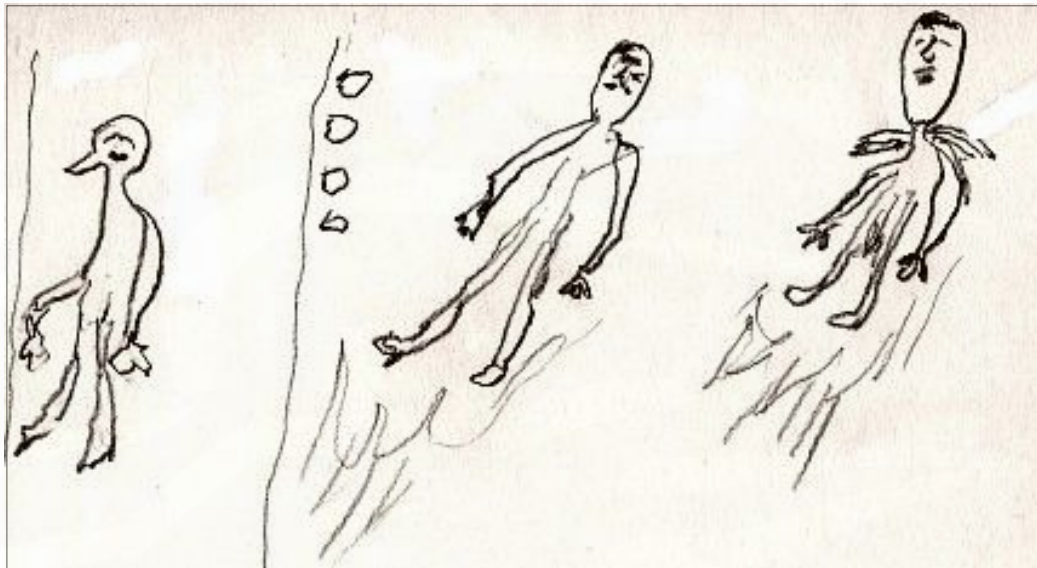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버리고 나를 잡아갔어. 개머리판으로 내 어깨 몇 번 때리면서 (애월지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대로 애월지서에 따라갔어. 가서 보니까 여자는 없고 남자 동네 분들 여러 사람이 모두 포승을 찼어. 나도 매 맞고 포승 차고. 거기 경비하는 경찰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감시했어.

취조가 끝나니까, 경찰관 한 사람이 문을 열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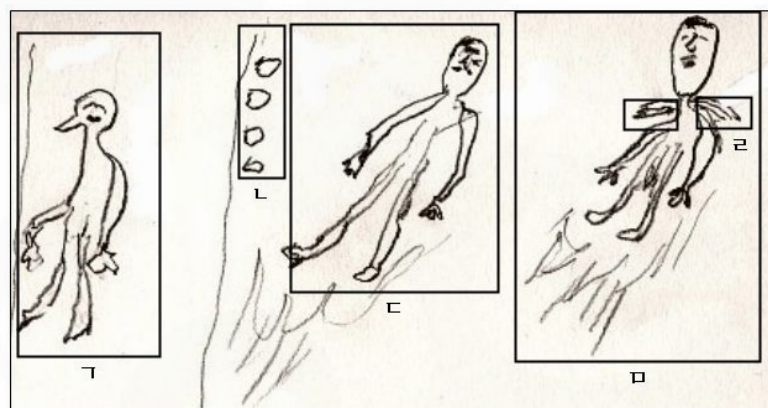
79) 제주4·3 당시 애월면 어음리 희생자 수는 59명이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거야. 나가니까 재판해서 확정하겠으니 “가라.” 이거야. 그래서 뒷날 관덕정에 있는 제주경찰서에 갔어. 경찰서 감옥에서 21일 살았는데 마지막 날 불러서 나가니까, 재판 서기가 여자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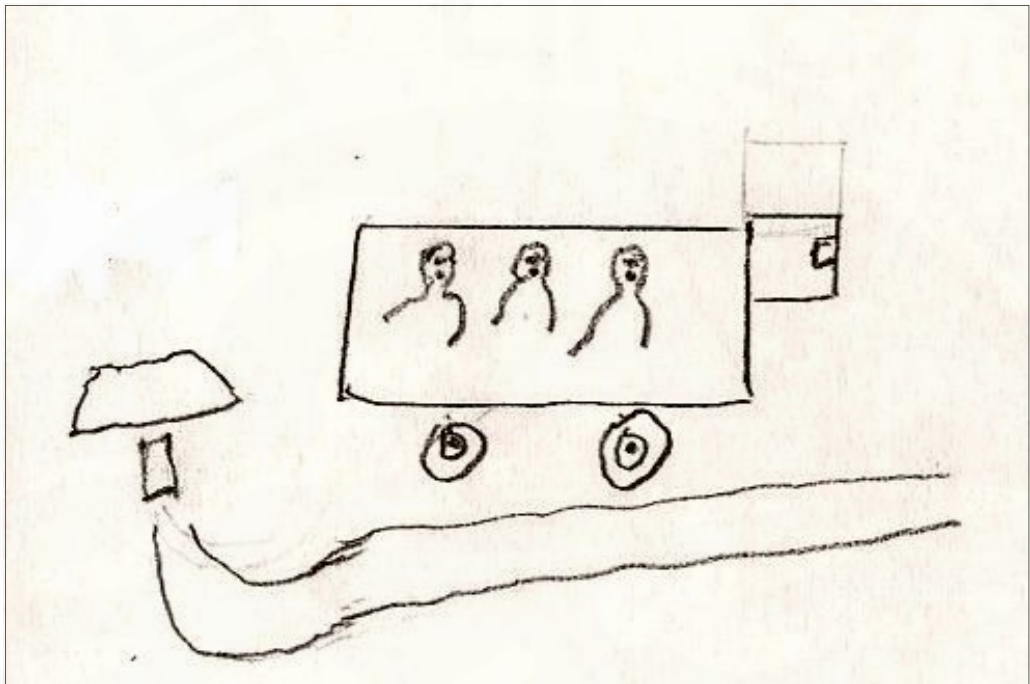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이 죄가 있거든 무슨 죄가 어떻게 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녀 손으로 써두고 가시오.” 그렇게 말해. 그러니 뭐라고 써! ‘죄가 없다.’고만 써서 나왔지. 그러니 “나가라.”고 해. 나가서 보니까 경찰서 바깥 입구에 빨간색으로 ‘이명관 무죄 석방’이라고 내 것만 딱 써 있는 거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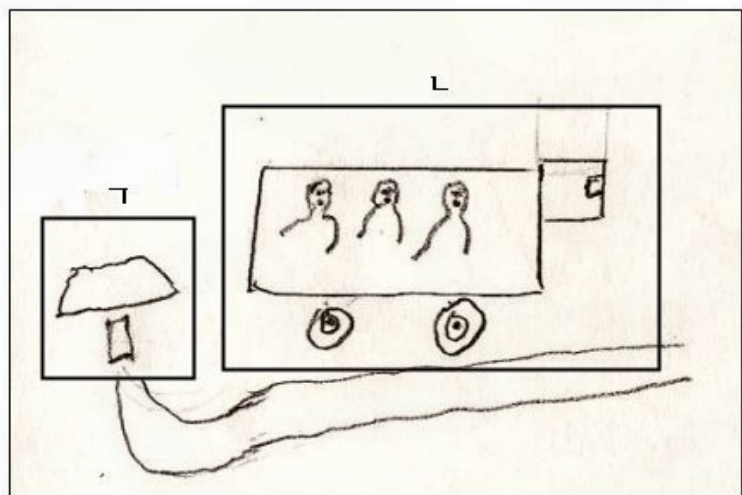
[그림 22] 길을 가던 중, 응원대와 마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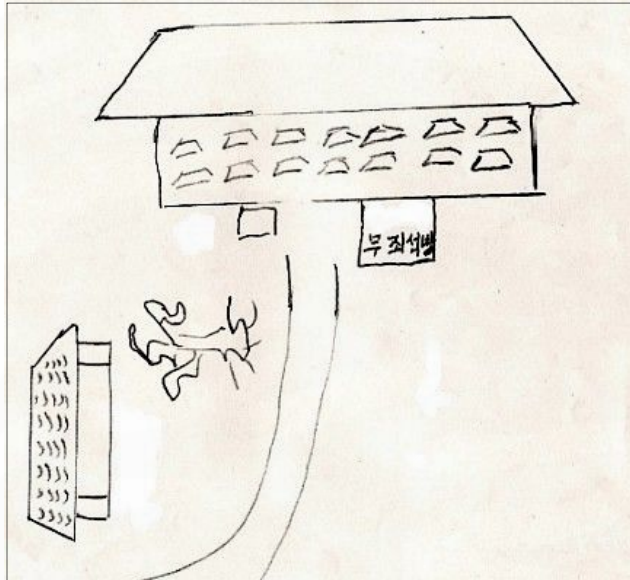
- ㄱ. 응원대
- ㄴ. 길가 옆 돌맹이
- ㄷ. 자신
- ㄹ. 우장
- ㅁ. 우장 입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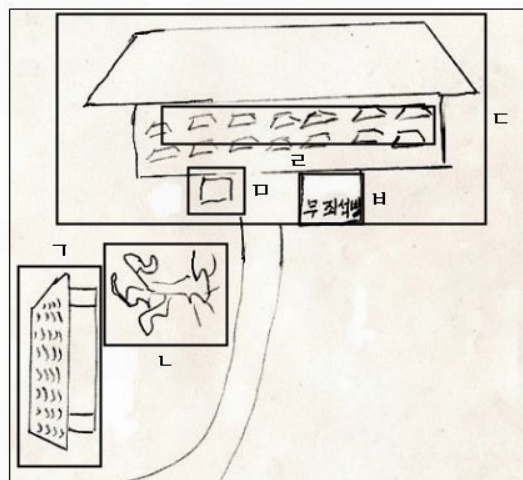
[그림 23] 애월지서에서 제주경찰서로 이송



- ㄱ. 애월지서
- ㄴ. 애월지서에서 제주경찰서로 이동 중인 트럭



[그림 24] 무죄 석방



- ㄱ. 관덕정
- ㄴ. 나무
- ㄷ. 제주경찰서
- ㄹ. 막사와 비슷한 조그마한 집들이 즐비하게 있는 제주경찰서 내부
- ㄹ. 입구
- ㄹ. '이명관 무죄 석방'

군 입대, 부산 5호 훈련소에서의 생활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9월 1일 군대 입대해서 부산 5호 훈련소에서 1개월 훈련 받았어. 훈련 중에 배가 고파.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거데? 잠을 못 자. ‘취사반에 가면 배 안 고프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땐데 마침 훈련소 취사반 반장이 제주도 애월 사람이야. 그래서 취사반에서 일하게 되었어. 거기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든지 먹거든. 나 먹는 것은 걱정이 없어. 그런데 훈련 받는 아래 병사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몰래 밥을 떠 주고 했어.

취사반은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어느 소대 인원이 몇 명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알아서 밥을 주는데, 그릇에 밥을 안 주고 손에 주걱으로 떠 주고 했어. 반찬은 김치, 금방 절인 것이나 다름없는 거, 젓가락 한 번 집을 정도로 주고. 그러니 그걸 먹고 훈련 괴롭게 받으면 살 수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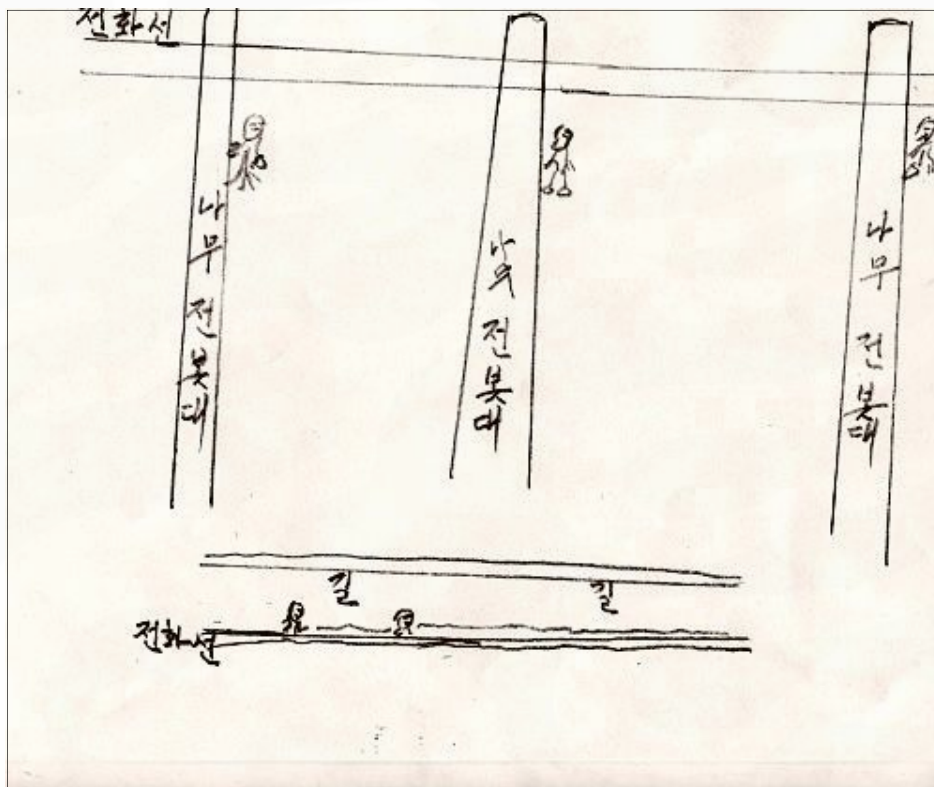
군대에서는 담배는 켜는데 라이터는 안 켜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담배에 불붙이려고 가마솥 나무 불 때는 쪽으로 오거든. 어떤 병사는 담배에 불붙이는 척하면서 옷 속에 숨겨온 통에 밥 뜨다가 들키기도 하고. 들키면 솔뚜껑을 팍 던져두고 도망을 가. 그러면 취사반 병사들은 “이 새끼” 하면서 뒤쫓아서 달리다가 내버리지 뭐. 어떻게 해(웃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던 거야.

군대는 명령이니까 자기가 슬프면 슬프다는 말을 절대 못해. 죽으라면 죽어야지. 부산 5호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통신학교에 갔는데 통신학교 그때 집이 2층인데 잠자는 중에 “5분 내로 집합하라.”는 방송을 해. 그러니 잠자던 사람이 5분 내로 옷 입고 운동장에 집합할 시간이 없어. 늦으면 기압을 줘. “엎드려 뺨쳐.” “굽어.” “기어.” 그렇게 하면서 방망이로 막 때려. 시간이고 뭐고 딱 들어야 돼. 군대 훈련이 다 그런 거.(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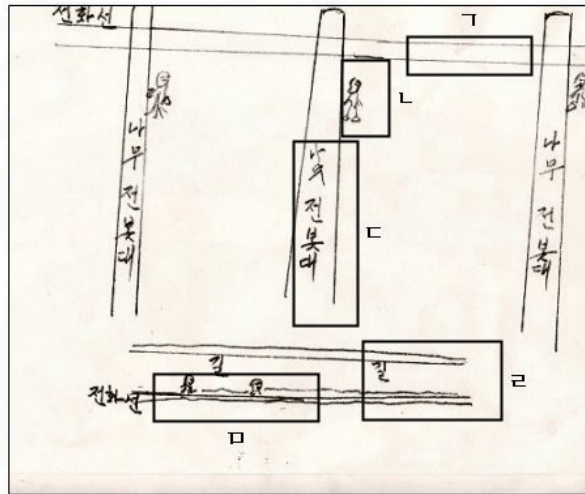
통신학교에서 일주일 교육 받고 일선 지구로

입대해서 부산 5호 훈련소에서 1개월 훈련 받으니까 장교들이 와서 “일렬횡대로 집합하라.” 이거야. 집합하니까 장교들이 중간 중간 다니면서 툭툭 건드리면서 “이리로 나와.” 해. 나가니까 통신학교 보낸 거야.

통신학교에서 일주일 교육 받았어. 일주일 동안 배운 것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전화선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통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가설 통신’ 할 적에 나무 전봇대에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 밑창에 날 돋친 신발 신고 나무 전봇대에 탁탁 디디면서 올라가. 나는 전봇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전화선만 연결했어.(10)



[그림 25] 한국전쟁 중, 가설 통신 작업



- ㄱ. 전화선
- ㄴ. 날 뚫은 신발을 신고 나무 전봇대에서 작업하는 병사
- ㄷ. 나무 전봇대
- ㄹ. 길
- ㅁ. 땅에서 전화선을 풀면서 작업하는 자신과 병사

일선 지구에서의 통신병 생활

무전 통신병으로 있을 때 힘들었지. 지금 걸머지고 약 뿌리는 거 있잖아. 꼭 그 닳은 무전기를 걸머지고 다니거든. 매번 높은 곳에서 그걸 사용하는데, 능선 같이 높은 장소에 가서 그걸 부려놓고 앉으면 “어느 연대, 어느 대대, 어느 중대다.” 하는 전화가 와. 그것이 안부야. 그런데 일주일 교육으로 전화 가설하고 무전 통신을 받아놓으니까 캄캄하거든.

통신교육 받고 단기 4283년 12월에 강원도 홍천에 갔을 때 주먹밥이 팡팡하게 얼어서 총부리로 깨면서 먹었어. 그거 먹고 가설 통신 일하고 했는데 길 옆 고랑창에는 사람 죽은 것이 천지. 길 가운데로는 차 다니고 길 옆 고랑창에는 사람 죽은 것이 그렇게 많아. 발 디딜 곳이 없어. 거기서 죽은 사람 옆으로 다니면서 전화선을 연결했어. 그 죽은 사람들 위로는 전화선 풀면서.

시체들을 치워서 묻을 시간이 없어. 막 전투가 심해놓으니까. 틈이 있어야 죽은 사람을 치우나 묻으나 하지마는 그럴 시간이 없어.

무전 통신병으로 8사단 21연대 있을 때 이북하고 전투가 일어나서 총알이 비

오듯 날아왔어. 고개 들어서 앞을 보면 총알에 대번 맞아. 그러니 산 능선에 누워두고 개머리판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잡아서 그대로 굴렀어. 나 앞에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 우리가 보충병으로 갔어. 죽은 사람 대신으로.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일선 지구에 나갔던 거지.

일선 지구 싸우는 데도 후방이 있어. 만약에 전투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후방에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지. 죽은 사람을 후퇴시키기도 하고 그대로 내버리기도 하고. 부상당한 사람을 봉대, 아까쟁끼, 바르는 약으로 임시 치료도 하고. 그다음 일선 지구에 또 후방이 있어. 병원. 병원에 후송시키면 병원에서 응급조치해서 다시 후방 병원으로 보내거든. 그 당시 내가 갔던 대구 육군병원이 컸어. 제일 후방이 그거야.

치료가 완전히 되어서 일선 지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내고. 일선 지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제대시켜서 보내 버리고. 내가 무전 통신병으로 활동하다가 이마에 총 맞고 대구 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제대를 했어.

그래도 내가 하여튼 수명이 긴 참이지. 이마에 총을 맞고도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군대 가니까 ‘문전’ 이라고. 명절, 제사 때 ‘문전제⁸⁰⁾’ 하거든. 문전에 향 피워놓고 항상 비념⁸¹⁾을 했어. ‘ 좋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 죽지 말고 어디 상처 나지 말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11)

통신병 생활 중 일화

한번은 전화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미군 주둔하는 데를 갔어. 우리 한국답지 않아서 미군들은 모든 게 풍부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

밤에 우리 통신병들이 손전등 가져서 다니다가 길가 가장자리에 물품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었어. 내 손전등을 보초 서는 미군 얼굴에 탁 비추니까 미군이 손을 흔들면서 물품을 우리 쪽으로 던지는 거야. 그놈 데리고 500m 정도 가니까 다리가 있었어. 그 다리 밑에 담요들이 쌓여 있어. 그래서 우리 소대에

80) 문전(門前) : 마루방의 문(門)을 관장하는 신(神).

문전제(門前祭) :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제주어사전, 2009).

81) 기원(祈願)(제주어사전, 2009).

그 담요 가지고 와서 나눠서 쓰고 했어.

또 한번은 통신학교에 갈 적에 사지복을 켜어. 미군들 다 그걸 입더구먼. 그 사지복을 입어서 가는데, 헌병이 우리 보고 “후방에서 너무 고급스럽게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뀌 달라.”고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뀌 입었지 뭐. 신병으로 가놓으니까.(12)

군 제대

산에서 폭도들이 내려오면 잡으려고 마을에 성담을 쌓았어. 성담을 지키는 곳도 여자 보초막이 있고 남자 보초막이 있어. 제대해서 와서 보니까 할머니들은 보초 안 하고 젊은 처녀들하고 남자들이 밤에 고생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야.⁸²⁾

그래서 봉성에 제대한 군인들 몇 사람 모여서 경찰이 주둔하는 곳에 가서 “우리 군대 갔다 왔는데 밤에 순찰을 돌겠다.” 하니, 경찰이 “고맙다.”고 하는 거야.

하루는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밤에 순찰을 도는데 여자 보초막 가운데 경찰이 총을 머리 뒤에 탁 세우고 누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총을 가지고 와 버렸어. 누워 있던 그 경찰이 뒤쫓아 오면서 “총을 주고 가라.”고 해. 가져가지 말라고. 주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 총 갖고 경찰이 주둔하는 파견소로 가서 “우리 재향 군인이 순찰을 돌다가 몇 시에 여자 보초막에서 총 하나 가져왔다.”고 말해 두고, 그 총을 반납했어. 경찰관은 “아, 그러냐.”고 하고.

그 당시 금월동이라고 하는 데 1개 소대가 주둔했었는데, 뒷날에는 그곳에 “재향군인들 다 집합하라.”고 해. 그때 마을에 응원대가 있을 땐데, 응원대가 공포탄을 팡팡 쏘면서 자기네한테 “덤벼라.” 이거야. 군대 다녀온 사람을 그 정도로 무시 안 하거든. 그래서 겨울에 불 때려고 부락에서 모은 화목(火木), 그거 하나씩 들고 서로 막 싸움을 했어. 응원대하고. 그때 한림에 연대 본부가 있었는데, 뒷날 거기에서 짐 싣는 차가 와서 마을에 있는 응원대 몽땅 싣고 가 버렸어.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았거든. 응원대가 와서 주둔해서 살 때는 마을

82) (군입대 기간 중 휴가를 받고) 고향에 와보니 아직도 폭도 잔당들이 남아 있어 여자들도 보초를 서고 있었다. 군인 가족만은 제외되고 있었다(김병두, 1999).

사람들이 쌀 모여서 밥해서 다 먹었는데 “밥도 잘 못했다.”, “반찬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 사람을 괴롭게 했거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편할 거야.(13)

봉성에서 다시 어음리로

군 제대 후에도 4·3이 계속되니까 봉성에서 몇 개월 살고 있었는데, 어음리가 재건된다고 해서 어음리로 올라와서 집을 지었는데 제대로 못 지었어. 돈도 없고. 그때는 일당을 곡식으로 줬어. 돈은 별로 이용 안 했어.(14)

과거의 4·3과 현재의 4·3

이제는 4·3을 말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 옛날에는 당최. 4·3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말을 못해. ‘편안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생각만. 그저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없는 사람들 왜 죽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지 …(침묵 12초)… 사니까 참 살았지. 당최. 그러한 세상을 또 당한다고 하면 자살해서 죽어버려야지. 살 필요가 없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고.(15)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연구자 : 아버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명관 : 4·3 때도 힘들고, 6·25 때도 힘들고.

4·3 때는 마음을 되서 살 수가 없어. 산(무장대)에서 와도 고통. 아래(군, 경 토벌대)에서 와도 고통.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숨어서 지낼 때 마음이 괴로웠어. 무조건 잡아가서 취조하고. 6·25때는 총알이 비 오듯 날아오는데, 목숨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뿐.

(5차 추후 인터뷰)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겨서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 밑에서 전쟁을 하는 거. 현재 우리도 이북하고 서로 단합이 안 되어서 자기네 말만 고집하고 있고. 그런 때문에 이북, 이남이 갈라진 거 아닌가. 다 그런 욕심 때문에. 4·3은 이남, 이북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 ‘이제는 이남에서나 이북에서나 새롭게 잘 살아 봅시다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타협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려고 하지 않지. 이겨서 자기네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데.(16)

현재 건강

오래 전부터 다리가 아려서 다리 약 먹고 있어. 한 15년 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절뚝절뚝하다가 점점 더해서 현재는 걷지 못하고.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돼. 2년 전부터는 전동 스쿠터로 운전하면서 다니고 있어.

전동 스쿠터 쪽으로 이동할 때도 지팡이를 짚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몸이 옆으로 쓰러져. 한 달 전에는 올레에서 짹 쓰러졌어. 마침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흙바닥이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지.(17)

현재 주로 가는 곳

노인당 지은 지가 한 3년. 처음은 당번을 한 조에 3명씩 했어. 3명이 노인당 지키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당번이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한 사람씩 하다가 요즘은 중단 되었어.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농촌이라서 일하다가 자기 당번이 돌아오면 노인당으로 가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은 당번이 중단된 상태야. 노인당 가면 나같이 아픈 사람 치료하는 기계가 있어. 어깨 같은 데, 등·다리 주물러 주는 기계. 허리 대서 운동하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18)

현재 농사

사라호 태풍⁸³⁾ 그때, 우리 집에서 한참 올라가면 오름 닮은 능선이 있는데 거기 능선 위에 있던 큰 소나무가 부러져서 여기까지 밀려왔어. 어느 집은 손님 대접하려고 돼지고기 썰어서 놔둔 고기마저 날아가 버리고. 바람이 워낙 컸었지. 초가들 날아가고, 농작물 피해가 막 심했어. 상당히 바람이 큰 태풍이었지. 하루 조금 더 불었던가?

금년 2009년은 태풍이 없었는데 보통 음력 7월 달에 태풍이 제일 많아. 일 년에 태풍이 한 번 불 적도 있고, 두 번 불 적도 있고. 그러니 곡식이 크다가도 다 망치고. 열매 열어도 익기 전에 태풍이 때려 버리면 그것도 망치는 거고.

농사가 힘들 때는 농작물 거둬들일 때야. 일기를 잘 만나면 좋고 우천이 되면 안 되고. 금년에 콩하고 메밀을 심었는데 밭 가는 샅도 들지, 비료도 줘야지, 메밀을 집으로 싣고 오면 말리면서 바람에 불려야지. 깨끗이 해야만 팔 수 있어. 그러니 하나하나 일당을 따지면 이익이 별로 없어. 금년에는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심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이나 판 사람이 없어. 앞으로 시세 금액이 얼마 같지 몰라. 팔아 봐야 알지. 워낙 많이 심었어.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거.(19)

다시 태어난다면

연구자 :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명관 :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무료봉사. 무료봉사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난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럽지 않아. 첫째 건강이 최고. 마음이 편해야 그것이 최고지. 돈 많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마음이 편안해야.

(3차 추후 인터뷰)

83) 추석절인 1959년 9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사라호 태풍이 제주 전역을 강타했다. 제주신보는 당시 인명피해가 사망·실종 11명을 비롯, 사상자가 140여 명에 이르렀고 65,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제주일보, 2010. 12. 1).

2. 생애사 재구성⁸⁴⁾

1) 일제강점기 : 학교생활

이명관은 ‘온신서당’을 다닌 후 ‘어도 간이학교’를 다녔다. 간이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 “공부는 별로 안 하고 풀 베고 퇴비 만들고 했어.(1)”라고 회상했다. 다른 지역에서 간이학교 수업을 받았던 고남경도 이와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

학교는 2년제 ‘서호 간이학교’ 나왔지. 2년제라고 했자 배우는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어치가 안 돼. 거기 가면 일본 놈이 퇴비 증산하라고 해서, 그저 부근에서 밭일이나 시키고.

(고남경 증언)

당시 간이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일부 서당을 간이학교로 만들어 식민지 교육기관화하였다.

2) 일제강점기 : 공출

왜정 말엽에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적에 식량이 모자랐던 모양이야. 개인으로 얼마 바치라고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곡식을 다 바치라 이거야. 안 낼 수가 없어. 온신서당 가서 다 바쳤어.(4)

일본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3년 후반기부터 조선인 강제 동원·수탈에 의해 군수식량 확보에 주력하였다(이송순, 2003). 이 기간 어음리에서도 공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는 공출로 다 바쳐야 했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김병두, 1999).

84) 이명관의 생애사 재구성시 아랫마을에 사는 김병두의 저서 『나의 삶 나의 인생』(1999), 『내고향 어음리』(2003)를 참고하였다.

3) 4·3 도래 : 마을 소개와 주민들의 희생

산에서 내려와서 불붙이는 바람에 이 부락이 소개를 당하니까 봉성도 가고, 한림도 가고, 애월도 가고, 시내도 가고. 이 부락 사람들이 각 처로 흩어졌어.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헛간에서 살고 ...(중략)... 그때 해변가 사람들이 어음리에 와서 집 운반하는 거 도와주고 ...(중략)... 마을 아래에 내려온 후에, 나는 봉성 처가택에 가서 살고. 어머니 아버지는 큰누님네 집에 가서 살고.(6)

48년 추수가 끝날 무렵 산촌 마을에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 애월읍 서부에서는 우리 어음리와 어도2리 2개 마을이 해당되었고, 2일 간의 기간이 주어졌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분산해서 흩어지게 되었다. 형님은 봉성리 처남댁으로, 나는 봉성리 처가댁으로, 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돈댁에 같이 갈 수 없다며 남읍 성립이네 집으로 갔고 누님네는 곽지리로 갔다 ...(중략)... 짐짝들은 해촌 부락 사람들이 와서 운반해 주었다(김병두, 1999). 이명관과 김병두의 경험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하루는 9연대 군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온신서당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야. 온신서당 마당에 쭉 앉으니까 “이름 부른 사람 나오라.”고 해. 그때 내 이름은 안 불렀어. 이름 부른 사람은 “산에 가담되었다.”, “빨갱이다.” 해서 잡아다가 그날 다 총살시켜 버렸어.(7)

온신서당에서 행해진 일명 ‘산에 가담한 자’를 가려냈던 사건에 대해 김병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어음2리에서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향사(온신서당)에 모이라고 했다. 남자 50여 명이 모였는데 군인들이 호명하는 사람들을 따로 앉혔다. 37명이나 되었다. 그 당시 마을마다 산군에 협조하는 연락책이 몇 명씩 있었는데, 군인들은 어음2리의 연락책을 붙잡아 그 명단을 입수한 것이었다. 이 37명은 한림 중대 본부로 끌려가서 두 명만 살아오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김병두, 1999)

4) 애월지서에서 제주경찰서로 : 무죄 석방

(제주)경찰서 감옥에서 21일 살았는데 마지막 날 불러서 나가니까, 재판서기가 여자였어.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이 죄가 있거든 무슨 죄가 어떻게 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녁 손으로 써두고 가시오.” 그렇게 말해. 그러니 뭐라고 써! ‘죄가 없다.’고만 써서 나왔지. 그러니 “나가라.”고 해. 나가서 보니까 경찰서 바깥 입구에 빨간색으로 ‘이명관 무죄 석방’이라고 내 것만 딱 써 있는 거야.(8)

관덕정 집……. 거기서 재판을 받았주게. 그 나무 있는 곳……. 거기서 한번에 100명씩. 방청객도 없고 100명이 딱 앉아서. 이름만 호명한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함디다. 그래서 그냥 돌려 보내수다. 그게 재판입주. 고등군법회의장이라고 써 붙이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공판이 끝난걸 마썸. 이름 한 번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강상문 증언)

강상문은 이명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관덕정 옆에 나무가 있다는 증언도 [그림 24]와 일치한다. 같은 날, 수십 명 이상을 불러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형벌을 선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주(2002)는 4.3 당시 재판은 형식상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5) 한국전쟁 참전 : 추위와 배고픔, 삶과 죽음

어떤 병사는 담배에 불붙이는 척하면서 옷 속에 숨겨온 통에 밥 뜨다가 들켜기도 하고. 들키면 솔뚜껑을 딱 던져두고 도망을 가. 그러면 취사반 병사들은 “이 새끼” 하면서 뒤쫓아서 달리다가 내버리지 뭐. 어떻게 해(웃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던 거야.(9)

무전 통신병으로 8사단 21연대 있을 때는 이북하고 전투가 일어나서 총알이 비 오듯 날아왔어. 고개 들어서 앞을 보면 총알에 대번 맞아.(11)

추위와 배고픔, 흩어진 시체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메울 뿐이었다.

3. 미술표현(본 인터뷰, 추후 인터뷰)

1) 본 인터뷰 : 후기 미술표현

이 장의 미술표현은 이명관 스스로 구상하고 직접 표현한 것이다. 이명관은 “옛날 말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청나비로 환생하소서⁸⁵⁾라는 말이 있다.”며, 4·3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청나비로 환생했으면 하는 염원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6] 4·3 영혼들이여, 청나비로 환생하소서

85) 제주도 무속의 저승관에 의하면 천당으로 가서 청나비, 청새로 환생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으로 보고 있다(현용준, 이부영, 김수남, 1985).

2) 3차 추후 인터뷰 : 작품에 투영된 현재 심리

이명관은 『마크 로스코』,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고려불화』 중에서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를 선택하였다.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에 수록된 다양한 그림들 중 ‘나비’에 관심을 보였으나, 이 책에는 이명관이 희망하는 ‘청나비’를 싣고 있지 않았다. 연구자는 나비 도감집의 일종인 『나비일기』를 구입하여 다음날 재방문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 27]은 이명관이 직접 선택한 것이다.

이명관은 [그림 26]과 상응하는 청나비를 선택하여 4·3영혼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다음은 이명관이 선택한 청나비와 연구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다.



[그림 27] 남방부전나비

이명관 :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새.

연구자 : 새가 좋으세요. 새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연구자가 책장을 한 장씩 넘김) 부엉이, 물총새, 방울새 많이 있네요. 여기 까지가 새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관 : (마음에 드는 새 종류가 없는 듯 다음 장을 살펴봄. 나비가 있는 부분에서). 나비로 하지.

연구자 : 나비도 종류가 많아요.

이명관 : (나비 종류를 살펴보며) 푸른 나비가 없네.

연구자 : 푸른 나비를 원하시는군요.

이명관 : 청나비. 43 당시 돌아가신 분들 ‘청나비로 환생하라.’는 의미로. 세상을 그런 때를 만나서……. 할 수 없이 돌아간 것이 서글프다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무조건 잡아다가 취조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청나비로 환생하라고……. 선전에 속아서 안 죽을 사람도 많이 죽고.

(3차 추후 인터뷰)

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제주4·3생존자의 생애경험을 조명함으로써 양적인 지표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현장에서의 4·3 체험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치료적 접근,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4·3생존자의 생애사와 미술표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4·3이 일어난 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은 현재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 환자 모양으로 했던 것 같아.(김인근, 30)

‘내가 다니면 전염병 환자 모양으로 그 집에 지장을 줄 건데 내가 무엇 하러 가나.’ 하는 그런 생각만.(김인근, 28)

“4·3평화공원에 집 짓고 있다. 위패들 얹히고 있다.” 하는 소식은 들었지. 그래도 안 갔어. 그날 책자 나오면 그 책만 빌려다가 보고. 4·3평화공원에 동네사람들 세 번째까지 간다고 해도 나는 안 갔어. 그때까지도 여기에서 쭉그려 앉은 거. 다들 간다고 해도 안 갔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

(김인근, 그림 14)

이념의 대립은 김인근으로 하여금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김인근은 ‘(2007년) 4·3평화공원 방문’과 ‘(2008년) 4·3체험담’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념의 대립이 낳은 소위 ‘빨갱이’, ‘도피자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위에서 4·3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나 들으라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걸음 물러섰다고 한다. 허먼(Herman, 1997)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 구성에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트라우마 사건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Flannery, 1990).

그……, 밖으로 나와도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그……. 참, 뭐랄까(깊은 한숨). 저, 정말 눈빛, 행동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상대방은 그렇지 안 했지만 나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34)

좌우의 폭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들에게 그 후유증은 트라우마로 침전된다. 황상익(1999)은 ‘빨갱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문둥이’라는 말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고 하며,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그동안 ‘죽어야 할 자’, ‘더 나아가 죽어야 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빨갱이’라는 단어가 20세기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病理)의 본질은 아니지만, 제주4·3과 그 이후의 과정이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카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냉전시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계의 대치관계는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의 여러 가지 증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흔히 합법화된 집단폭력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악의 원형(原型), 그림자 원형의 엄청난 에너지가 도사리고 있다. 그림자 원형이 적의 집단에 투사되면 적은 인간이 아닌 일종의 괴물들로 인식되어 죽여도 좋거나 죽여야 할 악한 존재로 각인된다(이부영, 2009).

한편 두 연구 참여자는 동일한 역사적 현장에 있었으나, 트라우마 경험과 그 트라우마를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연령’, ‘가족 희생의 유·무’,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김인근의 경우 제주4·3 발발 시점이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넘어가는 단계였다는 점, 가족 중 희생자 수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명환의 경우는 가족 중 희생자가 없었으며, 청년기에서 성인기 사이에 제주4·3이 발발했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연령적 측면에서 볼 때, 김인근의 경우처럼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자는 물질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Sturken, 2000).

또한 생애사의 경우 여성인 김인근은 정서적 측면과 가족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남성인 이명관은 공적 기억에 관심을 보였다. 라울란트(Rauland, 2001)는 뇌의 오른쪽 부분은 감정, 그림 언어, 연결 등을 맡고 왼쪽 뇌는 대체로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는데, 남자의 경우 오른쪽 뇌보다 왼쪽 뇌가 더 잘 발달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거의 동시에 사용하고 주변의 특정한 시각적 특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서표현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정서를 더 깊이 있고 더 강력하다고 특징짓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Diener et al., 1985; Fuchs & Thelen, 1988).

구술사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과거를 여성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기억에서 남성들은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전쟁의 주변부나 일상 생활에서의 과거를 더 많이 회고하고 있다(Fentress & Wickham, 1992). 제주4·3에 대한 여성들의 기억도 가족이나 사건 이후의 고통에 대해 남성보다 더 집중적이었으며(권귀숙, 2001),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충남 한 마을의 할머니들도 사회 전반적인 관심보다 ‘가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 경험을 더 많이 회고하였다(윤택림, 2001).

둘째, 생애사와 미술표현 접근은 제주4·3생존자가 삶을 회고하고 심리적 평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었다. 김인근은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들었다. ① 4·3평화공원 방문, ② 4·3체험담 발표 경험, ③ 연구자와의 만남 순서로 제시하였다.

4·3평화공원에 동네사람들 세 번째까지 간다고 해도 나는 안 갔어...(중략)... (2007년) 네 번째 되는 해에 동네에서 차들 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가서...... 혹시...... 아버지, 어머니 위패들이라도 거기 있을까, 가서 확인만이라도 해서 오자.’ 해서 국화꽃 한 송이 들고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올케, 언니 위패들이 얹혀 있었어...(중략)... 위패를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을 폭도라고 나무라다가 우리를 살어나게 해 줬구나.’, ‘이젠 우리 오빠 죄가 없구나.’ 하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어.

(김인근, 그림 14)

김인근이 ‘4·3평화공원’을 뒤늦게 방문한 것은 가족의 위패가 없을 때 오는 실

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회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혹시……. 아버지, 어머니 위패들이라도 거기 있을까.”라는 언급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위패’를 확인한 순간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정당함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계기는 ‘과거의 4·3’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허먼(Herman, 1997)은 전쟁 기념공원은 죽은 자들의 명단을 남기고 있을 뿐이었지만, 인정의 수단이 되었고 애도의 터가 되었다며 그 상실감의 슬픔을 공동체가 인정할 때 비로소 군인들의 ‘가득 찬 비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던 켄 스미스는 기념공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공동묘지와 같을 테지만, 나에게는 교회당과 같은 곳이다. 이것은 종교적 체험에 더 가깝다. 이것은 어떤 카타르시스와 비슷하다.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것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켄 스미스(Ken Smith, 1991 인터뷰)

위패들이 셀 수 없이 짝 차게 앉은 걸 보고 있으니깐 ‘나만이 아니로구나. 저 어른들도 나 같은 어른이고 나보다 더한, 시체 못 찾은 어른들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부모님 시체라도 찾으니까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

(김인근, 4·3평화공원 방문, 그림 14)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재회하는 것은 지속되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Palmer, 1999). 이는 그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트라우마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세계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생존자는 가장 가까운 이들과 보다 넓은 공동체에게서 도움을 찾는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일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다(Herman, 1997).

‘(2008년) 4·3체험담’ 발표하러 갈 때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떨렸는데, ‘4·3 체험담’ 발표 끝나고 올 때는 ‘나, 이제

화북에서는 당당하다.’ 그런 기분으로 왔어.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100에 1정도’ 기분이 나아지는.

(김인근, 3차 추후 인터뷰)

위의 두 경험(4·3평화공원 방문, 4·3체험담 발표)을 통해 김인근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후 연구자와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오랜 세월 못다 한 이야기를 생애사와 그림, 편지를 통해 토로하였다. 김인근은 ‘3차 추후 인터뷰’에서 ‘마르스코’의 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 내용은 그동안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결정체이며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숨기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림 그리고 편지 쓰고 하니까 어디 나가면 움츠러들지 않는 거야. 움츠러들고 병 걸린 사람처럼 했는데, 이젠 당당해진 거야. 죄인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분. ‘죄인이 아니다!’하는 그런 기분. 마음 한 구석에 시커멓게 탄 그 병이 조금 ‘하얗게’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라. 표현을 하자면 그런 기분 …(중략)… 나, 조금 젊어 보이지 않은가?

(김인근, 3차 추후 인터뷰)

김인근의 긍정적인 변화는 “하얗게”, “나, 조금 젊어 보이지 않은가?”, “내가 숨기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노인당에 누가 오라고하면 달려가고”(3차 추후 인터뷰), “마음이 서너 단계 올라간 거 같아”[그림 17, 18], “배우자와 4·3 경험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5차 추후 인터뷰)는 여러 반응에서 그동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억제의 방식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먼(Herman, 1997)은 트라우마의 완결에는 종착지가 없음에도, 일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회복되고, 대인 관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완결의 좋은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김인근의 긍정적 변화는 생애사와 미술표현 그리고 미술치료라는 외부적 요인과 김인근 자신의 자기이해 즉, 뛰어난 자기성찰 능력에 의한 내부적 요인이 융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인근은 4·3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전에는 ‘명예회복만 해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했는데, 명예회복해도 지

금 이제 회-미하게(되는). 그래서 4·3 공휴일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들 데리고 할아버지 위패 있는 곳에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이날 하루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김인근, 3차 추후 인터뷰)

김인근은 현재 “ 명예회복 ”은 되었지만 “ 회미하게 ”되는 듯하다며, 4·3의 정신을 기리고 후세대가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 공휴일 ”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 우선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제주4·3평화재단, 2011)고 말한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과 함께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사와 미술표현은 김인근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미술표현은 김인근의 심층적인 기억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모두 말로 하긴 하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말로 연결을 못할 때, 이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말 하는 것이 좋아. 어디로 입이 찢어진 거, 버선 한 쪽이 어디로 어떻게 한 거, 이불 속 핏덩어리 했던 것을 그려놓고 말하니까 진짜 좋은데. 또 편지들 안 썼으면 이런 말이고 저런 말이고 싹 묻어져 갈 건데, 편지 써 가니까 오래된 말도 나와 가고. 편지에 있는 그 말들이 당최 나올 수가 없는 말인데.

(김인근, 본 인터뷰)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이러한 이미지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이영돈, 2008). 정치적 폭력 등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은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은 많은 경우 생애사 텍스트에서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험의 공통점은 생애사 속에서의 맥락이 생략된 채 파편적으로만 언급되거나,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관계가 아닌 추상화된 개념 혹은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희영, 2005). 로흐(Loch, 2002)는 어린시기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의 생애사에서 언어적인 자기표현과 더불어 언어화되지 못하는

표현들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술표현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미술표현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의미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림 9]에서 김인근은 자신이 그린 쪽지를 보면서 “살아났어.”라고 말한다. 과거 4·3과 관련한 모든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결혼 3, 4일 전에 태워버렸던 고마운 분들의 쪽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자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또한 [그림 14]에서 김인근은 ‘과거 4·3의 고통은 무엇이며’,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림 17]과 [그림 18]에서는 동일한 주제인 ‘대나무’ 그림을 통해 그동안의 심리 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 혹은 학살 생존자에 대한 미술치료적 작업과정은 감정과 사고 간의 분열, 해리, 기억의 억압을 막는다(Brown & Latimer, 2001).

셋째, 과거의 4·3을 바라보는 두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견해’와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는 크니까 ‘그 경찰들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알고 보면 그 당시 경찰들 군인들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김인근, 본 인터뷰)

그때 그 군인이나 경찰들을 보면 발발발발 떨면서 무섭기만 했지. 지금 와서는 그 당시 군인, 경찰도 이렇다면 심부름꾼인데, 미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그 당시 때(시대)를 이상하게 만나버리니까 그런 거지.

(김인근, 3차 추후 인터뷰)

개인감정으로 서로 총질을 해서 싸웠다면 (책임) 추궁을 하지마는 시국을 생각해야지. 군인은 ‘군인’, 경찰은 ‘경찰’이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들(군인, 경찰)한테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

(김인근, 5차 추후 인터뷰)

세상을 그런 때를 만나서……. 할 수 없이 돌아간 것이 서글프다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무조건 잡아다가 취조하고 …(중략)… 선전에 속아서 안 죽을 사람도 많이 죽고.

(이명관, 3차 추후 인터뷰)

두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견해’로, 당시 억울한 희생에 대해 ‘시대 탓’에 의거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였다. 4·3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김인근이 “산도 무섭고(무장대), 여기도 무섭고(군, 경 토벌대)”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명관 또한 “산에서 와도 고통(무장대), 아래에서 와도 고통(군, 경 토벌대)”이라고 하여 서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당시 제주도민들이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식의 변화’에서 김인근의 경우 당시의 군인과 경찰을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김인근은 생애사와 미술표현, 편지쓰기를 통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느낌”(6차 추후 인터뷰)을 받았으며, 4·3의 경험을 가슴에 담아둘 때는 군인의 ‘군’자, 경찰의 ‘경’자만 생각해도 몸서리칠 정도였으나 참혹한 경험을 하나둘 표현하다 보니, 자신의 구타를 중지시켜준 ‘좋은 군인’(생애사 16)이 떠올랐고 당시 군인, 경찰들도 ‘심부름꾼’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여 과거 군, 경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역사는 현재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으로 이루어진다.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짚고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와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제주4·3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개입, 시대적·정치적·사회적 상황, 제주의 전통과 역사, 제주 사회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함석헌(2010)은 역사에서 필요한 것은 그 역사적 인물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어찌하여 그런 인물이 그때 있어야만 했느냐 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붙잡아 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승만의 잘못일 뿐 아니라, 이승만식의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파악해내야만 참으로 ‘역사적 반성’을 한 것이며, 올바른 역

사 이해에 이르렀다 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제주4·3이 제주도민의 공동체에 왜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가, 군인과 경찰들은 왜 제주도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는가, 서북청년단과 응원경찰은 왜 파견되어서 제주도민들에게 그토록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했는가 등의 복합적인 원인을 시대적·사회적 배경, 당시 국가 공권력의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파헤쳐야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졌을 때,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정명(正名)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역사적 반성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역사의 현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희생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4·3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행한 공통점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학살’이라는 점이다. 대량학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특정 정권’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행위의 발생은 조직화된 폭력기구와 살상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나 정권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다(Gamson, 1995).

주전자나 냄비 데우는 건 잊어버려서 태워서 냄새가 나야 하는데, 4·3 저쪽엔 일은 생생하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안 해.

(김인근, 34)

대학살은 우리를 매일같이 괴롭힙니다. 마치 머릿속에 벼룩이 있는 것 같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피난민 아동의 노년기 회고 내용, Palmer, 1999)

대부분의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고 6년에 걸쳐 지속되는 굶주림, 질병, 고문, 인간 이하의 삶으로 영구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팔머(Palmer, 1999)는 2차 세계대전 피난민 아동들을 인터뷰한 결과, 피난민들은 아동기 경험에 의해 계속해서 깊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들은 가족, 경력, 또는 다른 관심사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량학살의 희생자들과 전세계의 다른 비슷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족적, 정치적 폭력이 평생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제주4·3이 일어난 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마다 고통을 인식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이미 경험한 기억은 완전히 망각되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당시의 경험을 깡그리 잊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무의식 속에 억압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의식적으로 억제하며 스스로 검열 과정을 거치며 이야기할 수도 있다.

트라우마는 억압된 그리고 억제된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억압된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며, 억제된 사람들은 말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결국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적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는 내·외적 단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페니베이커(Pennebaker, 1997)는 삶의 특정 사건에 대해 클라이언트 자신이 억제된 방식의 근원을 추적해 낼 수 없다면, 클라이언트 그 자신은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억제 성향을 띠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와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얻은 결론은 생애사와 미술표현 접근이 제주4·3생존자의 뇌리 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는 점이며, 나아가 기존의 제주4·3 관련 구술 증언들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개인의 심층심리를 살펴본 기초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미시적 역사의 맥락에서 개인의 삶을 분석한 것이므로 생애사 내용과 미술치료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김인근에게는 미술치료가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이명환의 경우는 심리적 측면보다는 공적 기억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위의 ‘결과 및 논의’ 중 ‘첫째’ 부분에서 밝혔으나, 미술치료의 효과는 연구 참여자의 성향과 흥미, 관심, 연구자의 공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다른 제주4·3생존자에게 미술치료 접근을 실시할 경우 본 논문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4·3생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접근이다. 개인치료 외에도 집단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위안감을 줄 수 있다.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던 켄 스미스는 집단치료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오해는 많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참전 군인들뿐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뭐든 이야기해도 완벽하게 이해한다. 나는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깊고 어두운 비밀을 이해받은 것 같았다.

켄 스미스(Ken Smith, 1991 인터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적인 끈을 회복할 수 있는데(Herman, 1997), 알롬(Yalom, 1985)은 이러한 경험을 일컬어 ‘보편성’이라고 하였다. 그는 보편성이 담보하는 치료 효과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인하여 고립되었던 사람들에게 특히 깊이 있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제주4·3생존자를 위한 개인치료와 집단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4·3생존자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심리치료 전문가, 재활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양성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4·3 당시의 ‘좋은 이웃’에 대한 미담(美談)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인근의 경우를 보자. 당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호박’과 ‘소고기’를 가져다 준 ‘이름 모를 이웃(들)’의 선행은 어머니의 목숨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고통 받았던 김인근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국이 위험한 때에 도움을 준 이 고마운 분들 알아졌으면 너무나……. 그런 땐 ‘흥’ 해서 ‘나도 살아야지, 도피자 집에 무엇 하러 가리.’ 하지마는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왔다갔다한 그분들한테 공을 갚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잘못 다니다가 그 사람들 죽을 수도 있고, 잡혀 들어가서 징역이라도 살 수 있을 때였는데.

(김인근, 그림 9)

제주4·3 당시의 ‘좋은 이웃’, ‘좋은 군인’, ‘좋은 경찰’ 등에 대한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후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제주4·3이 ‘평화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맥락과 부합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주4·3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바라본 관점과는 한층 더 확장된 시각이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인본주의적 본성’을 발휘한 제삼자(좋은 이웃, 좋은 군인, 좋은 경찰 등)에게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당시의 미담 사례는 현재 4·3생존자와 공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발굴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게 된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담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한 인격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애(人間愛)를 지향함으로써 평화의 정신을 기리게 한다.

셋째, 제주4·3은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가의 공식적 사과와 진상조사보고서, 4·3평화공원 조성 등 지난 10여 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제주사람들의 노력이었다. 제주4·3은 제주사람들의 고통과 저항의 비극적인 역사였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시킨다면, 제주4·3의 트라우마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영문(2011)은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의 개인치료는 사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으로 상실된 개인화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사회의 관심, 적절한 심리적 보상, 버림에 대한 반성, 잊음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치유는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지닌다고 말한다. 이제는 제주4·3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때이다. 제주4·3희생자들의 숭고한 뜻과 제주4·3 문헌 자료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2010). 자발적 비혼 여성에 대한 자전적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성만(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5, 346-372.
- 고성화(2005). **통일의 한 길에서**. 서울: 창미디어.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집(1965). 국제연합한국위원단 보고서(1949-1950). **입법참고자료 제35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권귀숙(2001). 제주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199-231.
- _____ (2003). 제주4·3의 기억들과 변화. **4·3과 역사**, 3, 175-206.
- _____ (2006).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병두(1999). **나의 삶 나의 인생**. 미간행 단행본.
- _____ (2003). **내고향 어음1리**. 미간행 단행본.
- 김봉현, 김민주(1963).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대판: 문우사.
- 김영범(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그 역사화를 위하여. **제주 4·3연구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제주시.
- 김영재(2004).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서울: 운주사.
- 김은정(2008). 여성 노인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본 노년기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1), 27-68.
- 김익렬(1994). **4·3의 진실**. 제민일보4·3취재반 2권(1994). 4·3은 말한다. 서울: 전예원.
- 김점곤(1973).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서울: 박영사.
- 김창후(2008). **자유를 찾아서: 김동일의 억새와 해바라기의 세월**. 서울: 선인.
- 남테레사, 최외선(2001). 심리적 외상과 미술활동의 치유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8(1), 29-61.
- 류상영(1989). **해방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 민승기(2005). **라캉과 레비나스: 타자의 윤리학**.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

- 탄생. 서울: 창비.
- 박명립(1988).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6). 제주4·3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특별법개정 관련 자료집**. 제주: 반석원색인쇄사.
- 박찬식(2003). 4·3보고서 확정의 의미와 과제. **희망세상**, 12월호, 26-27.
- _____(2008). **4·3과 제주역사**. 제주: 각.
- 안진(2006). **생애사 연구를 통한 빈곤 여성 노인의 삶의 이해**. 김귀옥, 김순영, 배은경 편. 젠더 연구의 방법과 사회 분석. 서울: 다해.
- 안재홍(1965). **안재홍 유고집**. 평양시 조국통일사.
- 양정심(1999).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4·3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2008). **제주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
- 양종철(2004). **재난의 심리적 의미와 역동정신치료**. 재난과 정신 건강. 대한불안장애학회 재난정신의학회위원회. 서울: 지식공작소.
- 양한권(1988).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찬(1988). **한라의 통곡소리**. 서울: 소나무.
- 유철인(1998).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_____(2004).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3-39.
- 윤택림(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사회와 역사**, 59, 207-251.
- 이경주(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제주4·3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제2호, 179-199.
- 이부영(2009). **그림자: 분석심리학의 탐구 I**. 경기: 한길사.
- 이송순(2003).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권(2005). **제주사**. 서울: 휴머니스트.

- 이영돈(2008).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 서울: 예담.
- 이영문(2011). 고통의 기억은 치유될 수 있는가: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의 연
관성. 4·3 트라우마, 그 치유의 모색(토론문). **4·3 63주년 기념 전국학술대
회**. 제주4·3연구소.
- 이이화(2004). **한국사 이야기 22: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서울: 한길사.
- 이재인(2005). 서사유형과 내면세계: 기혼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접
근. **한국사회학**, **39(3)**, 77-120.
- 이효선(2006). 질적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봄)**,
73-99.
- _____(2007). 생애사 연구를 통한 중도장애인의 삶의 재구성: 쉼제(F.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겨울)**, 299-330.
- _____(2009). 한국 여성들의 삶의 이해를 위한 가족 패러다임 재구성: 여성세대
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6(1)**, 135-181.
-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
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전순영(2009).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나타난 아동기 트
라우마의 상징적 이미지 재현. **미술치료연구**, **16(5)**, 861-881.
- 전영희(2007). 성학대 피해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연구, **14(4)**, 691-709.
- 전진성(2007). 트라우마, 내러티브, 정체성: 20세기 전쟁 기념의 문화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역사학보**, **193**, 217-243.
- 제민일보4·3취재반(1994). **4·3은 말한다 1권**. 서울: 전예원.
- _____(1994). **4·3은 말한다 2권**. 서울: 전예원.
- _____(1995). **4·3은 말한다 3권**. 서울: 전예원.
- _____(1997). **4·3은 말한다 4권**. 서울: 전예원.
- _____(1998). **4·3은 말한다 5권**. 서울: 전예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
서**. 서울: 선인.
- 제주4·3연구소(1989). **이제사 말함수다 1권**. 서울: 한울.

- _____ (1989). **이제사 말함수다 2권**. 서울: 한울.
- _____ (2002). **이제사 말함수다 3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9). **그들 속의 4·3**. 서울: 선인.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2008). **4·3 당시 서울서대문·마포 형무소 수형인 진상규명의 현주소**. 제주: 반석원색인쇄사.
- 제주4·3평화재단(2011). **4·3과 평화**, 3, 6.
- 제주교육박물관(2009). **사진으로 엮은 제주교육 100년(1905-2009)**. 제주: 각.
- 제주도교육위원회(1987). **제주교육연혁지Ⅱ**. 제주: 일신옵셋인쇄사.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08).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제주: 이지콤.
-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사전: 개정증보**. 제주: 일신옵셋인쇄사.
- 조정자(2006).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극복을 위한 인지 행동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3(2)**, 227-253.
- 최외선(2006).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치매 전문도우미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미술치료연구**, **13(4)**, 893-913.
- 최호근(2005).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서울: 선인.
- 함석현(2010). **뜻으로 본 한국역사**. 경기: 한길사.
- 허호준(2007). 제주4·3 전개과정에서의 5·10선거의 의미: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267-305.
- _____ (2010).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 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기영(2009). **순이삼촌**. 경기: 창비.
-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5). **한국의 굿 7: 제주도 무혼굿**. 서울: 열화당.
- 황상익(1999).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4·3 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황정향, 박인전(2005). 미술치료가 유아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등원거부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2(4)**, 711-73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kersmit, F. R.(2000). The sublime dissociation of the past: Or how to be(come) what one is no longer. *History and Theory*, Oct, 300.
- Arciero, G., & Guidano, V.(2000). Experience, explanation, and the quest for coherence. In R. neimeyer and J. D. Raskin(eds). *Constructions of Disord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oation*. 91-117.
- Baal-Teshuva, J.(2006). Mark Rothko. 윤채영(2006) 역. **마크 로스코**. 서울: 마로니에북스, TASCHEN.
- Bartmann, S.(2005). 이야기식 인터뷰에 의한 독일 유대인 이민 과정 분석. 이효선 외(2005). *질적연구: 해석과 이해*. 경기: 학현사.
- Berry, J., & Berry, C.(1999). *Genocide in Rwanda: A Collective Memory*(eds). Washinton. D.C: Howard University Press.
- Brown, A., & Latimer, M.(2001). *Between images and thoughts: an art psychotherapy group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in Murphy*(ed.). Art therapy with young survivors of sexual abuse. London: Routledge.
- Buck, J.(1948). *The House-Tree-Person technique*.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urt, C.(1921). *Mental and scholastic tests*. London: P.S. King & Son.
- Caruth, C.(1996).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Aleida Assmann, “Stabilisatoren der Erinnerung”, Baltimore.
- Chomsky, N.(2003). 특별기고: 대통령 사과의 의의·노암 촘스키. **4·3과 역사, 제3호**, 8-9.
- Cohler, B.(1988). The human studies and life history. *Social Service Review*. 62(4), 552-575.
- Cooke, E.(1885). *Art teaching and child nature*. London: London Journal of Education.
- Crapanzano, V.(1980). *Tuhami: Portrait of a Morocc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kel, I.(2007). Art and experiencing the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Self realization through photography. *New Perspective on the Arts and Sociology. Working Draft 1*, 1-21.

- Diener, E., Sandvik, E., & Larson, R. J.(1985). Age and sex effects for emotional inten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42-546.
- Fentress, J., & Wickham, C.(1992). *Social Mem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Fischer, W., & Kohli, M.(1987). *Biographieforschung*. in Voges, Wolfgang(ed.). Methoden der Biographie und Lebenslaufsforschung. Opladen: Leske⁺ Budrich.
- Fischer-Rosenthal, W., & Alheit, P.(1995). *Biographien in Deutschland*. Opladen(eds.). Westdetscher Verlag.
- Flannery, R. B.(1990).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Trauma-A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Trauma Stress*, 3, 593-611.
- Fuchs, D., & Thelen, M. H.(1988). Children's expecte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communicating their affective state and reported likelihood of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9, 1314-1322.
- Gamson, W.(1995). Hiroshima, The Holocaust,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20.
- Garz, D., & Lee, H. S.(2000).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Sciences and Social Work I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Policy* 14, 269-297.
- Goodenough, F.(1926). *Measurement of intelligence by drawing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Green, A.(1983). The dimensions of psychological trauma in abused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2, 231-237.
- Hagemann, O.(1992). Victims of violent crime and their coping processes. In E. Viano(eds.), *Critical issues in victimology: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Harvey, J. H., Orbuch, T. L., Chwalisz, K., & Garwood, G.(1991). Coping with sexual assault: The roles of account-making and confid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4, 515-531.
- Herman, J. L.(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최현정 역(2007).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플래닛.

- Hermanns, H.(1987). Narrative Interview, In: Flick, U. u.a.(hg.), Handbuch Qualitative Sozialforschung, Grundlagen, Konzepte, Methoden und Anwendungen, Weinheim, 182-185.
- Hinton, A.(1998). Why Did You Kill?: The Cambodian Genocide and the Dark Side of Face and Honor.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7, 93-122.
- Hirsh, H.(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orowitz, M. J.(1986). Stress-response syndromes: a review of posttraumatic and adjustment disorder. *Hosp Community Psychiatry*, 37, 241-248.
- Husserl, E.(1913). *Ideas*. reprinted in 1976 by Humanities Press. New Jersey.
- Joas, H.(1996). Die Kreativität des Handelns. Frankfurt, M: Suhrkamp. 신진욱 역(2002). **행위의 창조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 Jonson, H. W., & Jonson, A. F.(1992). *History of Art for Young People*(4th ed.). 최기득 역(2001).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 Jung, C. G.(1956). *The collected works. Vol. 5. Symbols of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zuo, U.(1998). *Days of Moths & Butterflies*. 김창원, 이연승 역(2005). **나비일기**. 서울: 진선출판사.
- Kelman, H., & Hamilton, L.(1989). *Crimes of Obed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Kramer, E.(2000). *Art as Therapy*. 김현희, 이동영 역(2007). **치료로서의 미술**. 서울: 시그마프레스.
- Krystal, H.(1968). *Massive Psychic Trauma*(e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Capra, D.(1994).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Ithaca.
- Langer, S. K.(1957). *Problems of art*. New York: Scribner.
- _____(1958). *Philosophy in a new key*. New York: Mentor.
- Langness, L. L., & Frank, G.(1981). *Liv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Biography*. Novato, CA: Chandler & Sharp Publishers.
- Loch, U.(2002). Grenzen und Chancen der narrativen Gesprächsführung bei

- Menschen mit traumatischen Erlebnissen in der Kindheit. in Schaeffer et al(ed.). *Qualitative Gesundheits und Pflegeforschung*. Bern, Göttingen, Toronto & Seattle: Verlag Hans Huber.
- Machover, K.(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Malchiodi, C.(1998a). *Understanding Children's Drawings*. 김동연, 이재연, 홍은주 역(2006). **아동미술심리이해**. 서울: 학지사.
- _____ (1998b). *The Art Therapy Sourcebook*. 최재영, 김진연 역(2006).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_____ (2006). *The Art Therapy Sourcebook(2ed.)*. 최재영, 김진연 역(2008). **미술치료**. 서울: 서울하우스.
- Mead, G. H.(1968). *Geist, Identität und Gesellschaft*. Frankfurt, M.: Suhrkamp.
- Meichenbaum, D., & Fitzpatrick, D.(1993). A constructivist narrative Perspective on Stress and Coping: Stress Inoculation Applications. In L. Goldberge and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Free Press.
- Meier, E.(2002). Effects of Trauma and War on children. *Pediatric Nursing*, 28(6), 626-629.
- Merleau-Ponty, M.(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ilgram, S.(1974). *Obedience to Authority*. Harper Perennial.
- Miller, A.(1986). *Pictures of a childhood*.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 Minou, T.(2006). The possible models of creative therapies for the child victims of war and armed conflic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7(2), 229-235.
- Müller, M.(1998). Das Mädchen Anne Frank. Die Biographie. 박정미 역(2005). **소녀 안네 프랑크 평전**. 서울: 바움.
- Paez, D., Basabe, N., & Gonzalez, J.(1997). Social Processes and Collective Memory: A Cross-Cultural Approach to Remembering Political Events. In J. W. Pennebaker, D. Paez, & B. Rime.(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147-174. Mahwah, NJ:

- Erlbaum.
- Palmer, G.(1999). *Reluctant refugee*. Sydney: Kangaroo Press.
- Pennebaker, J. W.(1997). *Opening Up*. 김종한, 박광배 역(2008). **털어놓기와 건강**. 서울: 학지사.
- _____ (2004). *Writing to Heal-A Guided Journal for Recovering from Trauma & Emotional Upheaval*. 이봉희 역(2009). **글쓰기 치료**. 서울: 학지사.
- Personal Narrative Group.(1989). *Interpreting Women's Lives: Feminist Theory and Personal Narratives*. Indiana University Press.
- Rauland, M.(2001). *Chemie Der Gefühle*. 전옥례 역(2008).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감정의 비밀**. 서울: 동아일보사.
- Ricci, C.(1887). *The art of children*. Bologna, Italy.
- Rothko, K., & Rothko, C.(1998). *Mark Rothko: portfolio*. 포트폴리오 마크 로스코(2006). 서울: 마로니에북스, TASCHEN.
- Rubin, J.(1984). *The Art of Art therapy*. 김진숙 역(2008). **예술로서의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_____ (1987). *Approaches to Art Therapy*. 주리애 역(2006). **이구동성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Schütze, F.(1981). *Prozeßstrukturen des Lebensablaufs*. In: Matthes, J. Arno P. Manfred S.(Hg.). *Biographie in handlung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Nürnberg, 67-156.
- _____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In, Kohli, Martin, Günther Robert(Hg.).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Stuttgart, 78-117.
- _____ (1987). *Das narrative Interview in Interaktionsfeldstudien I*. Studienbrief der Fern-Universität Hagen.
- _____ (1989). *Kollektive Verlaufskurve oder kollektiver Wandlungsprozeß*. Dimensionen des Vergleichs Von Kriegserfahrungen amerikanischer und deutscher Soldaten im Zweiten Weltkrieg. In, BIOS, Heft 1. 31-109.
- Sewell, K.(1996). *construction risk factors for a post-traumatic stress response*

- following a mass murder.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9, 97-108.
- Smith, D.(1998). The Psychocultural Roots of Genocide. *American Psychologist* 53, 743-753.
- Staub, E.(1989). *The Roots of Ev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urken, M.(2000). Absent Images of Memory: Remembering and Reenacting the Japanese Internment. Takashi Fujitani, Geoffrey While, Lisa Yoneyama(eds.).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Tausch, R., Bastine, R., Friese, H., & Sander, K.(1970). Variablen und Ergebnisse bei Psychotherapie mit alternierenden Psychotherapeuten. *Verlag für Psychologie, XX I, I*, Göttingen.
- Terr, L.(1990). *Too scared to cry*. New York: Basic Books.
- Thomae, H.(1969). *Die biographische Methode in den antropologischen Wissenschaften*. in: Ders., Vita Humans. Beiträge zu einer genetischen Anthropologie. Frankfurt a.M.und Bonn.
- Thompson, M.(2000). Life after rape: A Chance to speak?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5(4), 325-345. University Press(3rd ed).
- Thompson, P.(1992). I don't feel old: subjective age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in later life. *Ageing and society*, 12, 23-47.
- _____(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Oxford.
- Toll, N.(1993). *Behind the secret window: A memoir of a hidden childhood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Dial.
- Truax, C. B., & Carkhuff, R. R.(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Chicago: Aldine-Atherton.
- van der Kolk, B. A., & Fisler, R.(1995). Dissociation and the Fragmentary Nature of Traumatic memories: Review and Experimental Confirm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 505-525.
- Wadeson, H.(1987).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장연집 역(2009). **미술 심리치료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Watson, L. C., & Watson-Franke, M.(1985). *Interpreting Life Histories: An Anthropological*

- Inquiry*.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Yalom, I. D.(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3rd ed). New York: Basic Book.
- Yates, C., Kuwada, K., Penelope Potter., Cameron, D., & Hoshino, J.(2007). Image Making and Personal Narratives With Japanese-American Survivors of World War II Internment Camps.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4(3), 111-118.
- Yehuda, R., & Kahana, B. Schmeidler, J., Southwick, S. M., Wilson, S., & Giller, F. L.(1995). Impact of cumulative lifetime trauma and recent stress on curr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holocaust Survivo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2), 1815-1818.

【증언, 인터뷰】

- 고남경 증언. **매 맞는 걸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 조성윤, 지영임, 허호준 (2007).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서울: 선인.
- 고윤섭 증언. **4·3후유장애자 생애사 아카이브 전: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김동만, 고성만(2004). 제주: 각.
- 김시훈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서울: 선인.
- 오병옥 증언. **4·3은 말한다.** 제민일보4·3취재반 5권(1998). 서울: 전예원.
- 강상문 증언.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 제주4·3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이경주(2002). 4·3과 역사, 제2호, 179-199.
- Kantor, A.(1971). *The Book of Alfred Kantor: An Artist's Journal of the Holocaust*. London: Judy Piatkus Publishers.
- Smith, K.(1991, interview). Herman, J.(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군 보고서】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2집, 1948년 12월 29일.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1월 20일.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역사일지』 제3집, 1949년 3월 2일.

총사령부 특명, 제88호, 1948년 7월 6일.

【미군 보고서】

Hq. 6th Inf Div, G-2 P·R, No. 500, March 2, 1947.

Hq. USAFIK, G-2 P·R, No. 708, December 13, 1947.

Hq. USAFIK, G-2 P·R, No. 1005, December 6, 1948.

Hq. USAFIK, G-2 P·R, No. 1097, April 1, 1949.

Hq. USAFIK, G-2 P·R, No. 693, November 25, 194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947.

Memorandum to Colonel Brown, June 21,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4, NARA, Washington, D. C.

Weeka, No. 27, July 2, 1948, RG-9: Radiograms (Messages), 24th Corps, Jan-Aug 1948, reel 274.

【신문】

국도신문, 1949년 5월 14일.

국도신문, 1949년 5월 15일.

동아일보, 1949년 6월 10일.

서울신문, 1947년 4월 2일.

자유신문, 1949년 3월 16일.

자유신문, 1949년 5월 19일.

제주신보, 1947년 1월 10일.

제주신보, 1947년 2월 10일.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조선일보, 1948년 8월 15일.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한성일보, 1947년 3월 4일.
한성일보, 1947년 3월 13일.

【최근 신문】

강원일보, 2008년 3월 31일.
미디어제주, 2007년 10월 29일.
제민일보, 2011년 1월 26일.
제주의 소리, 2008년 4월 22일.
제주일보, 2010년 12월 1일.

【영상물】

제주KBS(2000).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전시】

2010 부산비엔날레(2010). 진화속의 삶(Living in Evolution).

【부록 I】 생애사(제주어)

1. 김인근의 생애사
2. 이명관의 생애사

【부록 II】 동의서

【부록 III】 4권의 책에 수록된 작품 예(3차 추후 인터뷰)

1. Rothko, K., & Rothko, C.(1998). 『마크 로스코』
2. 김영재(2004). 『고려불화』
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08).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4. Kazuo, U.(1998). 『나비일기』

【부록 I】

1. 김인근의 생애사

게난 이걸 싸왕 무신 거 허고 북한 남한이 무신 거 허는지, 그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을 심어당 사람 죽이는 거이, 이제 살충제 허영 버러지 죽이는 거만도 아니헛주. 43때 죽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그 내막을 알앙 허카. 다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덜 몰죽음 현 거라. 죄 어신 사람덜, 똑똑헌 사람덜.

-김인근의 생애사-

부모님

어머니는 말씀허는 걸 좋아허곡 아버지는 차분허연. 아버지는 자식덜이 무신거 허민 칭찬해주는 성격. 그냥 내볼지 아니허여. 다른 집 아이덜이나 언니가 무신 거 허민 “OO는 언제나 …허는 거 보민 참 잘허여.” 허멍, 물결 모양으로 부드럽게 말 허여. “느 잘 험저.” 단 한마디로 단순허게 곤지 아녀고.

어머니는 조그마한 키에 여름엔 모시치마. 꼭 풀허여근에 다림질허영 뻘작허게 시리허영 입곡. 애기들 굶는 한이 있어도 첫째 아버지를 위허곡. 음식 하나만 봐져도 일단 아버지. 음식이 족암직해도 우선 아버지 모녀. 모든 걸 아버지. 아버지가 음식 잡수당은에 “저 어린 것덜 더 주라.” 허민, 어머니는 “아이들 다들 먹어수다.” 허여. 게른 난 “우린 먹지도 아녀디 먹엇젠 험수가?” 허곡.

부모님이 일헐 때는 갈옷을 주로 입엇어. 두어 벌씩 헤여근에 감철 나민 감물 들영 바닷물에 등갓단 햇빛 아래 널영 말령 입곡.

그 당시 우리 집에 밭이 하영. 보리, 조, 콩, 고추 농사, 무, 다마네기허연에 시내로 팔러 가고. 한 해에 그거 저거 다 허여서 돈이 나민 큰밭 사곡, 족으민 죽은밭 사곡. 부모님은 비 오는 날 흐뎡 쉬주. 그자, 일이라 일.(1)

[그림 2 내용]

농사 다 허민 여름 때엔 소파리 때문에 저기, 산중에 소덜허고 말덜 오르거든. 그때는 출도 좋고 나무 아래서 소들이 무럭무럭 잘 커. 게문 열흘 만이 아버지가 소 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소 돌봐주는 책임자가 따로 이시난. 아버지가 소 보러 갈 땐 개역허곡, 고기 마른 거 허곡, 소 돌봐주는 사름 벤또, 아버지 벤또 짊어저근에 갔어. 고마운 말도 굴을 겸 해서. 그때는 일한 샅을 쌀로 멧 말 허영 맥여 낫거든. 아버지가 소 보고 집에 올 때는 산딸기, 유름 그튼 것을 도시락 안에 잎사귀 깎아근에 산열매 툇툇 넣 보자기에 싸근에 가정 왔어. 아버지가 처음 도시락에 산열매를 담고 온 날 “인근아, 벤또 씻으라.”허여. “언니한테 시킵서.” 허난 “인근이가 꼭 씻으라.” 그렇게 말해. 마지못행 도시락 뚜껑을 올양 보난 산열매가 잇는 거라. 그땐 막 종양 기뻡 허곡.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소 보러만 가민 올레에 나가근에 아버지 오길 기다렸어. 아버지 모습이 보이른 달려강 “그 벤또 나가 씻으쿠다. 벤또 줍서.” 허곡. 가끔 도시락 안에 산열매가 없는 날은 ‘벤또 나가 무사 마타져신고. 씻기 실폰디.’ 속으로 생각허고(웃음). 아버지가 장난으로 “인근이가 산열매 안 좋아허는 거 다탈다. 다신 안 타 오켜.” 허민 “맛잇수다. 하영 타 읍서.” 허고. 게문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고.

오빠

오빠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엇일 정도. 똑똑허고 공부도 괜찮게 허고. 오라방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닭싸움. 동네 닭싸움 허는 디 강 이경 온 날은 어머니 안티 깨도 갖다 주곡. 경 허단 일본에 공부허레 가신디 오빠가 단아들이난 손주라도 보젠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연. “좋은 새각시 잇저. 빨리 내려와근에 결혼허라.”고. 켜디 오빠가 안 내려왔어. 다시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연, “어머니 하영 아팠저. 내려오라.”고. 그때 내려왕 결혼식을 허연.(2)

친언니

올케언니가 애기보고 임신됐고 허난 주로 언니가 밥을 지었어. 청소하는 것도 언니. 아버지 오랑은에 허민 손, 발 씻는 물 뜨는 것도 언니. 이제 ㄴ트민 나가 해서민 좋을 건디, 꼬부리멍 그걸 허지도 안 허연.

옛날에는 ‘모듬’이엔 현 것이 잇었어. 친구덜끼리 쌀 모영 떡 해먹는 거. 언니가 모듬허레 갈 적에 내가 “어머니신디 쌀 몰래 가져 간덴 말해 부러야지.” 허민 “갓당 왕 사탕 사주켜.” 허곡. 어디 갈 때는 언니가 ‘나 업어줘시민’ 하는 마음에 뽕뽕뽕 걸어감시민 “등에 확 들이지라.” 허멍 업어 주곡. 언니가 경 착히고 바느질도 잘 허연. 저고리, 치마 싹싹싹싹 만들고. 현 옷은 재단허근에 나 옷도 만들어 주고.(3)

[그림 3 내용]

“마루라도 다끄라. 현관이라도 쓸라.” 허여도 나가 뽕뽕거런 안 허연. 경 허민 언니가 “나 죽영 가민 공 갇아주커메 그거 좀 허라.” 향시 그 말을 헛어. 그때는 그 말이 무신 말인지 몰라신디 “나 죽어지믄 느 잘 되게 해주마, 무사 경 말 안 들업디.” 허는 말이라. 지금 언니만 살아잇드래도 나가 벗을 삼을 건디.

나

대여섯 살에 흙세를 부려사 헐 건디, 여남은 살 넘도록 흙세를 부런. 흙세가 심허연에 뭐 헐 줄을 알카, 뭐 하나 멘들 줄 알카. 친언니는 “흙세도 징그럽덴.” 골아날 정도. 심부름 시키민 핑계 대영 아니 가곡.

어머니가 일허레 가멍 “집 직하라.”, “물 길어오라.” 허믄 막 싫어 허연 친구덜이영 놀지 못허니까.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리젠 허믄 뽕 뽕앙허곡. 친구들이영 오자메, 고무줄 허곡, 공기 좇어당 따먹는 거, 놉이 땅 따먹는 거 주로 허고. 달 뜨민 베끗디 나가근에 등뽕이에 옷덜 담양은에 꼬부리멍 골갱이춤 추멍 놀고. 숙제는 대충 행 들러테껴 뽕 어머니신디는 “오늘 숙제 하영 해수다.” 허영 놀곡.(4)

[그림 4 내용]

열두 설까지지는 쾌활행은에 놉 베뻐랴 혼 번 허믈 난 두 번을 들리퀴어야 속 시원허곡. 오자미 네끼는 것도 놉보다 혼 번 더 네껴야 속 시원허고. 머리에선 친언니가 사준 반짝이 닳은 나비 리봉 꼬곡. 운동화는 오빠가 일본에서 사다 줘서. 누웠을 때는 책보 옆의 툇 낫단 뒷날 신영 가고. 경 운동화를 아까웠어. ‘세상에 날 닳은 신발이 어디이신고.’ 허멍. 그때는 고무 다이야 신발 그것만 신을 때라. 여자는 리봉 돌아진 다이야 고무신. 남자는 리봉 엇인 것이 남자 거.

초등학교(수업)

일본 공부 할 때는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여 주멍. 만일에 일본말로 ‘네꼬’민 우리나라 말로 ‘고양이’엔 해 주곡. ‘부다’민 ‘돼지’렌 해 주곡. 그런 걸로 숙제도 내 주곡. 시험 볼 때는 동물 그림 밑에 일본글로 적으렷 허곡.

경 허단 1학년 2학기부터는 ‘ㄱ, 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어머니’민 ‘어머니’, ‘아버지’민 ‘아버지’ 막 외우고. 일본말 ‘가, 기, 구, 게, 고’ 배우단 우리나라 말 ‘아, 이, 우, 에, 오’ 허단 뒤죽박죽. 경 해도 ‘ㄱ’에 ‘ㅏ’ 허민 ‘가’ 뻬곡, ‘ㅇ’에 ‘ㅏ’ 허민 ‘야’ 뻬는 것이 그거 재미나는 거라. 책 읽으멍 말이 뻬민 그거 신나는 거라. 산수보다도 국어가 제일 재미나서. 학교 가믄 극락이라.(5)

초등학교(소풍)

소풍 갈 때는 어머니가 뵈또에 흰밥 허고 계란 하나 해준 것이 전부. 껌은 지금처럼 좋은 껌이 아니고 부슬부슬헷 딱딱헷 퍼런 거 그것이 전부. 어머니가 막 생각헷 날은 계란 몇 개 더 삶아근에 그 동글동글헷 거 몇 개 툇 뵈주곡. 계란 들어간 것이 그게(웃음). 친구덜이영 동그랑헷게 앓앙 뵈또 먹엌 시믈 어떤 아이는 뵈또 안 가정 왕 낭 아래 앓은 아이도 있어. “일로 왕 ㄱ치 먹게.” 허여도 안 오곡. 어떤 아이는 집의서 먹던 밥허고 김치만 뵈 오는 아이도 잇곡. 경 허는 상태에 계란 두어 개 삶앙 뵈또에 뵈주곡 허민 이거 놀아질 거주.

어머니는 뵈또에 그거 하나 툇 뵈졌어. 강낭콩. 강낭콩 삶아근에 뵈또 밥에 툇

폭폭 뇌주민 소풍 강 점심 먹을 때는 밥만 먹곡, 강낭콩은 폭폭폭폭 골렘 손에
췌엿당 말제에 먹엇어. 경 허난 아이덜이 그거 과자냐고(웃음). 강낭콩을 밥이영
옴짝옴짝 먹으른 웰 건디, 밥 먹으멍 그 강낭콩을 손에 보곤 췌엿 말제에 먹어
서. 지금 생각허민 어이 엿영(웃음).

그때 보물찾기도 허곡 노래도 부르곡. 친구덜이 앞에 나강 노래 불러감시민
‘저 아이도 불르는디 난 무사?’ 허멍 목들아지는 소리라도 ㄱ치 노래 허고팡 허
고. ‘아이고, 어떻허리.’ 허는 부끄러운 생각이 엿언.(6)

초등학교(운동회)

화북국민학교에 최고로 잘 뛰는 아이가 하나 서났어. 흥뽀물명허고 늬의 아이
가방만 들렘 텅기는 아이. 켜디 듣는 거엔 가이 이겨 볼 아이가 엿어. 운동회 때
‘준비 땅’ 허연에 아이덜이 막 뛰는디 가의가 천리를 가단 나 뒤에 뛰어췌. 말제
엔 “너 무사 경 헛나?” 물어보난 “나가 일등 해 불른 너가 막 땀달해 불카부텐.”
허는 거라(웃음).(7)

[그림 5 내용]

운동회 날 ‘사름쫓기’ 경기 헛 때, 뛰어강 보난 ‘안경 쓴 사람이영 손 심엿 뛰
렌.’ 췌 있는 거라. 이제 ㄱ트면 본부석 강은에 안경 쓴 어른 아무나 확 심엿 뛰
어시민 나가 1등 허단도 남을 건디, 그때는 “안경 쓴 사름 나와 줍서.” 소리쳐도
죽어도 안 나와. 경 해도 막 소리질러가난 어떤 할아버지가 안경만 벗어 주멍
“난 들을 필요 엿다.” 허는 거라. 안경은 벗어췌도 아니 듣겠다고 다시 나가 “안
경 쓴 사름을 들앙오렌 험수다.” 허난 “아이, 춤말로” 허여. 겨우 그 할아버지
손 심엿 들앙 삼등을 먹엇어. 상품으로 빨래비누 반곡. 경기 끝낭 할아버지안티
비누를 주젠 쫓아보난 쫓아져사 말이주. 운동장 멧 바퀴를 돌앙 겨우 쫓아신디
넛가에서 밥 먹엄서. “할아버지, 우리 삼등 허난 비누 줍디다. 비누 드리쿠다.”
허난, “말다. 느 아정가라. 느 아정가라.” 허여. 그래도 난 일등을 못헛 아쉬움에
“할아버지, 그 안경만 주젠 말앙 일쩍 할아버지영 ㄱ치 뛰어시민 일등 허영 비누
하영 탈 건디” 한마디 곤곡(웃음).

4.3의 전조

4.3은 나 열두 살 때 일어나도 그 전이 열두 살 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부산스러웠어. “산에 쫄 지영덜 올라감저.”, “반찬 해서 올라감저.”, “옷덜 가져감저.”, “밤의 빠라 뿌럼저.”, “산사람덜이 한질에 차 다니지 못허게 질 가운데 돌 다와 부럼저.” 허는 그런 말들 들어나고.(8)

마을과 학교가 소개되고

열세 살 때 마을이 불바다가 됐어. 산사람덜이 완에 이집 저집 불부찌고 학교도 불부찌고. 형편이 아니. 저기 곤을 마을은 아예 엇어져 불고. 불타기 전이 화북국민학교는 기와집이라났어. 교실 바닥은 마루로 돼어 잇곡. 혼 사람에 한 명씩 앉는 조그만 낭 의자에 책상은 둘씩 앉게 허곡. 경 허단 4.3때 산사람덜이 오란 불 테와 부난 초가집 짓영 가교사를 만들었어. 교실 흙바닥에 가마니테기 찌전에 깔곡, 그 우이 열짓영 앉앙 어퍼정덜 무신거 쓰멍 공부덜 허곡.(9)

작은아버지의 죽음

죽은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총살당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갔어. (1948년) 11월 13일 날(음력), 소 물 맥이레 가단. 겨울 소는 베끗디레 내노민 지꺼정 바다닥 바다닥 튀멍 도망가고 허거든. 게난 죽은아버지가 소 도망가지 못허게 소 심젠 뛰니까 9연대가 도망가는 줄 알앙 그냥 총으로 쏘아분 거라. 그때 아버지 울멍 “불쌍한 동생, 나 손으로 물어똥 가야주. 나는 어떻허영 갈지 모르주만.” 허멍 막 슬퍼허연.(10)

대한청년단에 가입한 오빠

오빠가 일본에서 제주도 내려오란 결혼도 허고 아이들토 낳고 허멍 토목과 직장을 다니고 잇어신디 출근허는 아침만 돼민 직장 난간에 ‘직장 땡기민 총으로 쏘아버리겄다. OO에 동참허라.’ 는 종이쪽이 잇는 거라. 매일 7치 출근하는 아침

만 돼든 그 종이쪽이 오난 오빠가 아버지영 상의허영 한청단(대한청년단)에 들어가게 됐었어.

거기에서 한청단 책임자로 잇어신디 산사람덜이 내려오란에 화북국민학교영 마을에 불부찌러 오랏다가 오빠안티 “너는 뭔디 한청단에서 그추록 주동을 산 허냐?”고 허명 오빠를 죄인ㄴ치 꺾엉 산에 올라가 부러터.

게난 알고 보민 우리도 피해자. 여기서는 오히려 오빠가 산에 잡혀가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주어야 할 차례에, 거꾸로 돼싸정 우리 가족을 총살시켜 부러서게. 게난 이런 억울함을 어디 강 하소연해야 할 건고게. 복통이 끊어질 노릇이 주.(11)

아버지의 고문

음력 12월 10일(양력 1949년 1월 8일) 날씨가 쌀쌀허연. 구름은 껴도 햇빛이 가끔 비추는 흐린 날씨. 눈도 안 오고 흐련에 하근 거 가려지는 듯해도 가끔 햇빛 나왔당 썩 가려져 불고. 그 전날 전날은 사람이 빠질 정도로 눈이 형편엇이 오란. 엄청나게 눈이 쌓인디 그 눈이 차츰차츰 녹기 시작허고 바람은 하늬보름ㄴ치 썩썩 불고.

아버지는 이날 아침도 보통 때처럼 화북국민학교에 성담 지레 나갈 채비를 허연. 그날 난 뜨뜻한 방에 잇어신디 어머니가 아버지안티 “옷 뜨시게 입영 갑서.” 허난 “모자 쓰고 두꺼운 거 입으난 팬찮다.” 경 골명 나간.

경 헌디 아버지가 다시 집에 와근에 어머니영 무슨 이야기를 허는가 싶더니 군인덜이영 평복 입은 사람들이 왕 아버지를 심영 가부러터. 호꿈시난 어머니, 올케, 친언니, 나를 심영 가곡. 학교에 끌려강 보난 4학년 교실에 아버지가 옆으로 반쯤 누웠은에 쓰러져 잇었어. “아버지, 나 여기 이수다. 나 여기 이수다.” 소리치명 보난 아버지 눈알이 밖으로 튀어 나왕 볼까지 쭈욱허게 내려왕 잇는 거라. 피투성이에.(12)

어머니는 저고리 고름을 찢어 내 코피를 막아주고

아버지 고문당헌 모습 보명 막 소리치난 경찰이 사무실 앞은 디로 들아가는

거라. 첫 질문이 “오빠 친구덜 일름 말해봐.” 허멍 소리를 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뺨을 착 때려. 겁날 주변을 보니까 책상 위이 빠따허곡 죽은 총이 있어.

두 번째 질문은 “오빠 친구들 집 ㄴ리쳐봐.” 허는 거라. “우리 오빠 친구가 어느 어른이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헛어. 경 허난에 “이젠 몰르켤.”만 험젠 막 두들기난 코피가 나는 거라. 코피 나가난 어머니가 이신, 여자덜만 신 교실에 보내연. 어머니는 나 코피나는 거 보멍 “울면 피가 더 날 거난 울지 말라.” 허멍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찢어서 코를 막아주곡. 나는 어머니도 만나고 코피까지 나가난 더 크게 울멍 “죽어지켤.” 허고.(13)

교실 유리창에서 마을 어른들의 총살장면을 목격하고

저고리 고름으로 코피 막고 마도가라스에 돌아정 바깥드레 보난 검은 천으로 눈 가린 어른덜이 세워져 잇곡, 군인덜이 총 꺾갱이에 칼 닳은 거 꺾은 총으로덜 쏘우난 문막 쓰러전. 그 장면 보고서 발발발 떨어졌었는데 그다음은 군인덜이 학교 교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허연 나강 보난 아까 마을 사람덜 총살당한 그 자리에 썬는 거라. 군인덜은 우리를 쏘켤 허곡. 그 찰나에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난게만은 우리안티 총 쏘우는 거 중지시기곡 군인덜은 바사바사 모이레덜 갓어. 우리안티는 “앞사람 뒤꽂무니 심영 성담 돌아아정 정문 향행 가라.”고 지시허곡.

난 성담을 나가명도 ‘어덜로 도망칠 구멍이 시카’ 허는 생각만. 경 험디 도망칠 디가 었어. 중간 중간 군인덜이 딱 들어사 놓고. 도망갈 수가 었어. 구불구불헌 성담을 돌아아정 정문까지 나오난 학교정문 에염에 트럭 3대가 이서. 군인들이 우리 보고 “이 차에 가.”, “저 차에 가.” 탁탁탁탁 지시허멍 문 타라고 허고.(14)

트럭에서의 탈출

첫 번째 차에는 여자만 탔어. 어머니, 올케, 조카 두 명, 친언니, 나허곡 동네 여자 어른덜. 세 번째 차에는 아버지허곡 남자 어른덜 타고. 차에 앉으난 다북하게 앉지도 못 허연. 사람이 짹 차게 하노난.

난 첫 번째 차에 탔단 차 안에서 도망치젠 올케언니 옆의 강 “언니야, 언니야, 내가 차 알트레 털어질 수 있게 밀어줘. 빨리 밀어줘.” 허난 올케언니가 “인근 아, 가면 어디 가니? 도망가민 죽나. 여기 잇이민 살 건디.” 경 골으멍 울기만 하여. 경 허난 난 더 이상 올케언니안티 부탁하지 앓았어.

그다음은 친언니신디 강 “언니야, 언니야, 내가 차 알트레 털어질 수 있게 밀어줘. 밀어줘.” 허난 친언니도 막 울멍 “만일에 도망쳐 가지건 작은고모님네 집에…….” 하여웁 말을 잇지 못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만일에 도망쳐지건 작은고모님네 집에 강 살암시라.” 허는 말이라. “작은고모네 집”꺼정 곤고 언니가 막 울어부난에 “아유, 울지말아근에 나 차 알트레 밀어줘. 밀어줘.” 해도 안 밀어줘.

마지막으로 어머니신디 가근에 “어머니, 내가 차 알트레 털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밀어 줘서.” 허난 어머니는 “느 도망가민 우리 식구 다 죽을 건디 어딜 도망가젠 험시니게. 가만히 앓으라게.” 허멍 차 알트레 안 밀어줘.

이젠 ‘안 되겠다.’ 싶영 나랴으로 트럭 바우에 앓았단 몰랑 털어지는 것추룩 탁 털어져서. 게난 군인덜이 갑자기 막 담아드는 거라. “이 빨갱이 새끼, 어딜 도망가.” 허멍 총부리로 찌르멍 두들기곡. 그때부턴 머리가 핑 돌고.(15)

트럭 밑으로 몸을 숨기고

이젠 도망갈 데가 어시난 차바쿠 트멍에 강 숨엇어. 경 허니까 또 경찰, 군인덜이 총 부리로 일로 절로 찌르멍 “차 밑에서 빨리 나와.” 소리치멍 난리라. 내가 차 밑에서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무리 헤 봐도……. 말젠 “나가겠습니다.” 곁아 놓고는 ‘워커 신발이 하영 안 보이는 딜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허연. 무산고 허민 워커 신발이 족게 이신 쪽은 군인 수가 족고, 워커 신발이 하영 신 딴 군인 수가 많으니까. 경 행 워커 수가 족은 딜로 쭈욱 허게 나오난 군인이 나 우와개 심영 사람들이 탄 트럭 안에 갇어당 올리젠 하여. 경 험 때마다 나는 미끄러지는 추룩 허멍 뚜웅허게 내려오멍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허곡. 또 차 우트레 올리젠 허민 내려와 불곡. 자꾸 경 허단 말제엔 “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말해 놓고는 나가 막 뛰어 부러서.

뛰영 화북국민학교 근처 우리 친구네 집 머귀냥 있는 디까지 가신디 군인이영

경찰 멧 사름이 좇아왕 “도망쳤다.”고 막 두드려 부난 갑자기 온 세상이 빨강게 보이는 거라(이러한 증상은 이틀간 지속됨). 그 전에는 빨간 거, 노란 거 다 구분헌디 빨간색 한 가지로만 봐전. 나 막 매 맞아 가난 군인 한 명이 허는 말이 “아이를 차에 넣으른 왜난 때리지는 맘서.” 허연. 경 허는 찰나에 호루라기 소리가 나명 군인, 경찰덜이 학교정문에 숨뵈 모여드는 거라. 차에 탄 사람덜 시견 출발허젠 허난.

그때 나는 나 때리지 말라고 헛던 그 군인이영 차 있는 쪽으로 가고 잇어나신디 그 군인이 “울지 마랑은에 어머니가 탄 차에 가자.”고 해. 나는 “예, 예.” 대답만 하고. 그러는 중에 나가 막 뛰어 부러터.(16)

[그림 6 내용]

산사람덜이 습격허영 들어가지 못허게 이 운동장 안네 성담을 오글다글 오글다글허게 쌓앗어. 성담 중간마다 동네 사름덜이영 경찰덜이 숨영 산사람덜 봐지민 총으로 뺨 쏘젠 구멍덜 뚫으곡. 이 성담을 지레 아버지가 갓단에 이 교실에서 고문을 당헌 거라.

이 운동장 빈 되가 있어. 빈 되. 요 장소에서 바지저고리 입고 검은 천으로 눈덜 가린 마을 어른덜이 일렬로 서 잇고. 난 저고리 고름으로 코피 막은 채, 마도가라스에 쪼작허게 산 보난 군인덜이 산 잇단에 총으로 버버버버 쏘으난 마을 어른덜이 문밖 쓰러전. 나중에 들으난 그 사람덜이 마을유지덜이라고 허연. 동부락에 장OO 죽고, 백OO 죽고. 죄 없는 사람덜만.

[그림 7 내용]

올케는 임신……. 그 달이 산달. 배가 이마니허영 걷지도 못허고 뒤통뒤통 막 아팠. 경 허는디도 잡허간. 다른 사름덜은 아니 아프난 트럭에 팔딱팔딱 튀어올른디, 우리 올케언니는 차 우트레 올라가지 못허연. 배도 버치고 몸이 아파노난. 그 트럭 바우만 심영 막(울먹임).

경찰, 군인덜은 꺾부런 아니 올라감젠 올케언니를 막 때리고. 올케언니는 아멩허나 올라가젠 해도 배가 트럭 바우에 걸어정 올라가진 못허곡. 그때 영치 아팠

다리를 옮기지 못하면. 산달이니까.

차에 사람덜 다 올라가고 나도 올라강 앉은디, 올케언니는 막 올멍 차에 올라 오지 못하면. 이제 ㄴ트면 “나가 뒤로 받거들랑 올라가렌.” 허주만은 매 맞으카 부덴 차에만 앉앙 “언니야, 빨리 와부러.” 허멍 차에 탄 옮기만 허고. 어머니도 올케언니 매 맞아 가른 “아이고, 어떻 허영 빨리 올라와져시든 매를 안 맞을건디 어떻 허영 좋고.” 허멍 올고. 경 행 허단 올케언니가 어떻 허연 차에 겨우 올라 오난 반 죽은 언니가 돼엇어.

트릭 밑에서 나온 후 한청단으로 갔으나

그렇게 뛰엿은에 오빠 셔난 한청단으로 가신디 한청단에서는 철창덜 들렁 나 왕 나안티 쏘우켄 허는 거라. 나는 막 올멍 “죽여 줘. 죽여 줘. 너넨 우리 오빠 신 땀 껍소리 못해난디 지금 나가 누구한테 죽어지는 건 알앙 죽으쿠다.” 올멍 바둥바둥헤 가난 사람들이 슬슬슬슬 한청단 본부 집드레 다 들어가는 거라.

그추룩 행 집에 오논디 질레션 뛰질 못헤. 뛰면 군인덜이 미친 사람ㄴ치 총으로 쏘우켄 허난. 길 가던 군인이 나안티 “어디 갓다 오는 거냐?” 허난 “숙제 낸 책 빌리레 갓다 완수다.” 헛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소리를 쳐. 집에 오난 눈물이 막 나고 지치곡 허난 이불 우에서 고꾸라전 잠이 들엇어.(17)

올면서 잠든 시간에 어머니는 총상을 입고도 친언니를 업고 오고

교육대학 위 별도봉 쪽으로 가는 논두렁(누러이)에서 어머니, 올케, 친언니가 총을 맞앗어. 어머니는 눈이 피에 절영 앞이 보이지 아네부난 눈 속에 가만히 누워 잇엇어. 옷독지가 들석들씩거리난에 누젠지 베려 보젠 눈에 붙은 피를 겨우 닦앙 보난 언니가 돌 두둑에 쪼그려 앉앙잇어렌. 언니가 총알 박힌 배 움켜잡으멍 “나, 이 총알만 빼지든 살아지쿠다.” 곪으난 어머니는 손가락이 지랑지랑허여도 언니를 확 훔쳐 업엿은에 그 교육대학 아래 내창, 그 화북다리, 그 동산. 그 스물 난 딸을 업엿 이 화북ㄴ지 업고 온 거라.

그때 화북 들어오는 입구에 작은고모가 살아신디 등에 업혀잇던 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과격하게 밀려 불멍 “나, 작은고모님네 집에 강 숨엿 살쿠다.” 허난

어머니는 “아이구, 그럼 작은고모님 식구까지 다 죽나. 죽어도 우리 집에 강 죽 게. 집에 가자, 가자.” 해도 “안 가쿠편. 숨영 살아야쿠편다.” 허멍 언니는 작은고 모님 집에 들어가 불곡 어머니만 집으로 오게 뵈 거라.

경 현디 어머니가 집에 오건디 몇 분 안 뵈영 작은고모 집에서 사람이 왔어. “OO 숨이 토근토근 질려고 험수다.” 소식 전해주젠. 그때 언니가 돌아가섯어. 그르후제 언니 시신을 토롱을 멘들안에 잠시 놔뵈신디 서너 달 후에 봉분을 만 들려고 흙을 옴 판 보난 그 속에서 총알이 두 개가 나왔어. 그 총알 보면서 나가 막 울어서. ‘이 총알이 우리 언니를 죽였구나.’ 허멍.(18)

올다 잠든 후 깨어 보니 어머니 몸은 피로 물들고

올다 고꾸라정 잠을 자단 ‘응응’ 허는 소리에 깨어 보난 아주 큰 귀신이 잇는 거라. 머리가 얼굴에 탁 더꺼지곡 머리카락이 피로 뭉크런에 뵈뵈허곡. 얼굴색 하나토 없고 피로만.

집낭 ‘으악’ 뒤로 넘어진디 정신 바짝 차령 보난 어머니라. 어머니를 내가 누 워난 이불 우이 눅혀난 다음 어머니 베려보멍 “어머니, 내일 죽어도 오늘 하루만 이라도 살앙 어머니영 실킨 말허게 헤 줍서.” 허멍 막 울어가가난 어머니는 손만 흔들어. 손 흔들 때마다 총 맞은 손가락들은 스뭇 흔들거리고. 어머니는 말 못 곤고 못 견디면 눈물만 뽇뽇뽇뽇…….

누워 이신 어머니 모습을 자세히 보난 총알이 오른쪽 목으로 들어강 왼쪽 턱 으로 나오멍 턱뼈는 벌러지곡 살은 문딱 헤싸지고. 혀도 일부분 없곡 손도 총 맞 고. 저고리도 피범벅, 손가락에 흐르는 피, 옷독지로 내리는 피, 옴구리에서 나오 는 피, 등에서 나오는 피, 팔꿈치로 나오는 피, 온몸이 피. 그 피가 그치지 아녀 는 거라. 그놈의 피가. 몸이 풀어지고 뜨뜻헤 가난 그 놈의 피가 더 나는 거라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임). 뵈날사 피 묻은 옷을 차츰차츰 벗기멍 피덜 나오는 구멍 세영 보난 총을 ‘일곱 발’ 맞은 거라.(19)

[그림 8,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근 : (우리) 어머니가 그때 총 맞고 피투성이가 뵈영 들어올 때 건 그리

기가 곤란해 잘 못 그림직 헐디……. 그걸 잘 그리지 못함직 허다……. 게도 못난이 거추룩 앵그러 보카?

연구자 : 그림에는 정답이 어수다.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펼쳐보면서) 이 그림들 아무도 못 그려마썸.

김인근 : (맞장구치며) 응, 무산고허민 나 소꿉에 이신 거난. 나 오장 속밖에 어신겨주게. 놈의 사름은 그릴 수가 없는 거. 나 머릿속에 이시난 나 밖에 모르는 그림.

연구자 : 맞수다. 어머님만 그릴 수 잇는 그림이우다.

[그림 8 내용]

잠자단 일어남 보난 하늘에 부틀 정도로 큰 구신이 방 안 가득허게. 이제 만화책도 그만이 겁난 만화책 어실 거라. 별정헌 핏덩어리 그 형상이 하도 크게 보이난 어머니는 막 크게 그리고 나는 족게 그린 거. 이 그림이 그때 나 생각이라.

그때 어머니 눈은 자주 껌막거리지는 아녀고 회미헌 눈으로 천천히 껌막껌막. 턱 박살나고 입바우는 흥썸만 남고. 각치메 입고 머리에 은비너 헤나신디 그 은비너도 엇어져 불곡, 머리카락은 옷에 풀 바른 거추룩 피로 버쩍. 털어져 나가는 손가락은 보곤 심고. 얼굴은 막 형편이 아니. 말로 표현 못 허여. 보선 한 쪽은 벗어정 엇어져 불곡, 한 쪽은 앞부리만 껌전 잇곡. 버문 흙 색깔.

웃둑지로 나오는 피, 손에서 흘쳐 나오는 피, 율갈리 트멍으로 나오는 피, 어덜로 나오는 피인지 구분 못헐 정도. 머리로부터 시작허연 온몸에서 발긔긔지. 보선도 보선이엔 허난 보선이주. 보선이 아니 님아부런. 빨강색에 흙. 핏죽 속에 들어가난 보선긔치.

아버지는 저수지에서 총살당하고

아버지는 OO주택 바로 위 그으니믄루 논밭 저수지에서 돌아가섯어. 옛날 차엇인 땐 “그으니믄루 동산 올라가젠 허민 힘들엇젠.” 허는 말도 잇곡. 과거 보러갈 때는 “그으니믄루에서 점심밥 먹엇젠.” 허는 그런 말도 잇곡.

어머니가 총 맞앙 들어온 그날 밤, 동네 어른 한 분이 우리 집에 좇아왔어.

“아버지가 그으니마루 저수지에서 총살 당했젠.” 날이 어둑으난 동네 사람안티 후라쉬 빌리곡 아버지 입어난 검은색 두루마기 가지고 저수지로 가서. 그 그이니마루 저수지 물이 근본은 퍼렁허고 풀색이라란디 아버지 좇젠 후라쉬 비청 보난다 붉은 물이 돼 부런(울떡임). 마을 어른덜 시신도 거기 둥둥 떠 있고. 그 물에 떠 잇는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 빨리 이 물에서 건져 놔야 할 건디. 건져 놔야 할 건디.’ 막 즈들곡.

같이 갓던 동네 어른이 “즈들지 말라.” 허멍 아버지 시신을 두둑에 옮겨 놓아 주었어. 경 험 다음에는 피 묻고 젖은 옷 입고 누워 잇는 아버지 시신 우에 검은 두루마기 더프곡. 동네 어른이 “밤중에 고양이냐 짐승이 시신을 훼손시킬 수 이 시난 두루마기를 덮어야 현다.”고 허연 그 두루마기 더프고 흙으로 잠시 툇툇 덮은 다음, 뒷날 아침에 토룡을 만들었어. 몇 개월 후제는 봉분 만들곡.

계난 음력 12월 10날(양력 1949년 1월 8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9일 날 제 사고. 그때 우리 15반(당시 주소지)에서 두 집만 빼고 한 집안에 한 분이나 두세 분이 그날에 돌아가션. 우리 동네는 그날 제사가 많아.(20)

조카들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네 살, 두 살 조카들 차에 탈 때는 봤는디……. 그 물에 흘러 어디로 내려가 부러는지, 총으로 쏘앙 어디에 버려 부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갈 때는 한 차에 타니까 아는디. 임신한 올케는 그 달이 산달. 배 속에 이신 애기도 총을 맞았어. 계난 그 애기도 산모 배 안에서 죽어간 거라. 죄인도, 배 속에 이신 애기도 죄가 뉘언. 세상에……. 세상에……. 남편이 죄가 시민 가족이 무신 죄가 시명.(21)

호박, 소고기, 소변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하고

소고기, 호박 안 부짱 상처 싸맨 천 떼어낼 때는 어머니가 “아이고, 나 죽고 싶다.”고 바짝바짝 튀언. 경 험 때마다 난 ‘어떻허민 좋고, 어떻게민 좋고.’ 안절 부절 못허곡.

그런데 어머니 총상 입고 15일쯤 뉘난 소고기허고 호박이 오기 시작 했어. 소

고기, 호박을 교대로 부찌멍 허난 떼어내기 좋고.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소고기, 호박이 다 떨어지는 3, 4일 쯤 되는 날엔 난간에 또 호박이영 소고기가 잇곡. 혼 3개월 넘이 그 도움을 받았어. 음식이영 쪽지도 함께 오곡. 고기 우려낸 국물에 온 쪽지에는 ‘국물은 어머니 드시게 하고 고기는 인근이 먹으라.’ 씨 잇곡. 녹두에 온 쪽지에는 ‘녹두 삶은 물이니까 어머니 먹이라.’ 씨 잇곡. 죽에 온 쪽지에는 ‘울지 말앙 살암시민 살아진다. 죽 하영 끓여시킨 어머니도 먹곡 인근이도 ㄱ치 먹으라.’ 씨 잇곡.

가끔 동네 어른 한두 분이 집에 와서 어머니 상태 보명 “어머니는 음식 잘 드십시오?” 물어보기도 허곡. 어머니는 잘 먹질 못헤. 좁쌀, 미음 닮은 거를 입에 놓으면 구루룩 툅 구멍으로 문뜩 나와 불고. 경 허문 그릇 반양 흘려내린 건 버리고. 혼 사발 허여도 어머니 입 속에 들어가는 것은 두 손갈썸, 호박허고 소고기를 교대로 3개월썸 넘이 헤 가난 상처가 쪽쪽쪽 오르라들기 시작허연. 소독약이 엇영 어머니 소변, 내 소변을 가나다리에 낳 소독허곡. 숨도 엇영 이불숨 뜯어낸 문 다끄곡.(22)

[그림 9 내용]

아침에 일어났 난간에 보민 돌멩이 지들좌진 쪽지영 소고기, 호박이 있어. 소고기에 온 쪽지 폐왕 보민 ‘인근아, 이 소고기 얇게 종이쪽ㄱ치 오려근에 어머니 아픈 부위 체 메라.’ 씨 잇곡. 호박에 온 쪽지에는 ‘호박 속을 수제로 복복복복 급영 문작허게 멘드랑 상처에 체 메라.’ 씨 잇곡. 계난 쪽지 보명 호박 굵는 줄 알았주, 경 아네시민 먹으렐 아저온 줄 알 건디.

시국이 위험헌 때에 도움을 준 이 고마운 분덜 알아져시몬 너무나……. 그런 땐 ‘흥’ 허여근에 ‘나도 살아사주, 도피자 집에 무신 것 허레 가리.’ 허주만은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소굽에 왔다갔다헌 그 분덜안티는 공을 가플 수가 엇어. 우리 집의 잘못 땡기당 그 사람덜 죽을 수도 잇고, 잡혀 들어강 징역이라도 살 수 있을 땡디. 소고기, 호박 갖다 나뉘 도망치고, 도망치고. 오빠 친구인지 어머니 아는 분인지, 할머니 아는 분인지. 냄비를 전허젠 해도 전허질 못허연. 씻영 난간에 놔두민 아침에는 엇어지곡. 계난 우리 집이 나 몰래, 사람 아니 볼 때 밤중에 땡긴 거라. 냄비가 엇어정 가분 거 보난 경 웬 거주.

옛날 나 일기장 트멍에 접전 이서난 이 쪽지덜은 시집을 때 일기장이영 다 테
왔주만은 이 그림 보난 그 시절 쪽지가 ‘요되 오란 살아잇구나.’ 허는 그런 생각
이 들엄서. 게도 살아난. 요 쪽지덜이.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는 일주일도 안 되어 떨어지고

(어머니 총 맞고 온 후제) 일주일도 안 돼언에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털어졌
어. 썩어가난. 팡이 이신 건 그대로 붙어 잇는디 팡이 잘라지멍 살만 붙은 건 지
냥으로 털어진. 어머니신디 “털어진 손가락덜 어떻허코마썸?” 물으난 “아무 데라
도 버려 불라.” 허연. 그 말 듣고 ‘어떻허민 좋고, 어떻 허민 좋고.’ 막 즈들안.
맛스웁도 허고 털어진 손가락에 손톱봐 가민 더 맛스웁. 경 해도 그거 천에 쌍
나대로 우영팻되 묻엇어.(23)

다시 어머니를 죽이러 온 사람들

어머니 총 맞앙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경찰덜이 어머니가 살앗젠 또 집에 왔
어. 그날도 어머니 간호 중이어신디 어머니가 나 툭툭 치멍 “저기 누게 온 거 닐
다. 뒷담 뛰영 빨리 도망치라.” 허연. 어머니 말대로 뒷담 뛰영 곱은디 그때 생
각에 ‘총소리가 나민 어머니는 돌아가시겟구나.’ 허멍 발발 떨멍 곱앗어.

밤이 으스스헤지난 집으로 들어와신디 어머니가 살아 잇엇어. “어머니, 어떻 허
난 안 쏘웁데가?” 물으난 어머니님이 경찰덜안티레 “이 동네에 나 혼자만 잇는 것
도 아니고 여기서 나 죽이면 냄새 날 거난 저 우이 우리 밧 에염에 강 죽이면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정 죽으쿠다, 그레만 돌아다 줍서.” 허난 경찰덜이 “에이,
며칠 안 가커라.” 허멍 그냥 가부러렌.(24)

오빠는 산에서 내려와 자수했으나 이곳저곳 불려 다니면서 조사 받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잡혀가고

어머니 총 맞고 온 후제에 5, 6개월 지나서 어머니가 경찰서로 잡혀갓어. 난
매일매일 어머니 먹을 벤또 준비헤서 경찰서로 가곡. 어머니안티 벤또 드리면서

“나도 어머니 따랑 경찰서에 들어오쿠다.” 허난 “흔저 집에 가라. 흔저 집에 가라.”만.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난 경찰서에 이신 땀 어머니 스스로 고무신에 소변 받아서 치마 찢어서 상처 소독허곡, 밥은 겨우 먹고. 가끔 옴의 사람들이 어머니 머리 빗겨주곡, 소변볼 때 옷 입고 내리는 거 도와주곡. 그렇게 2, 3개월 쯤 경찰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빠가 어머니 모습을 보게 됐었어. 그 순간 오빠가 “나만 죄인이지, 우리 어머니는 아픈 몸인데 저 상태로 경찰서에 있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모친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왔냐고.”, “내가 죄인인데, 어머님만 내보내 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몸질치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와작작, 와작작 매 맞고 또 매 맞고. 어머니는 칸막이 하나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 매 맞는 소리에 마음 아파하고. 그 일이 잇은 후제 일주일쯤 똥난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왔어.(25)

오빠는 귀순 후, 경찰서에서 동척회사로 그리고 서울마포형무소로

오빠는 경찰서에서 술 공장(주정공장) 했던 동척회사로 잡혀갓어. 거기에 수감자들 났었거든. 동척회사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오빠가 반장을 했어. 켜 며칠마다 수감자 5, 6명을 인솔허연에 산것물 질레 나왔거든. 그날만 똥난 난 동척회사 뒤에 숨엇당 덜거덜덜거덜 구루마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그 소리가 들리든 그냥 일어난 똥또 짹어정 입구 쪽을 베려보는 거라. 그때 오빠영 눈이 마주치든 땅에 발 안 부쳐 공덕동산 오름 탕 내려가는 곧은길로 뛰어근에 산것물 옴, 늙의 집에 갓어. 그 집 주인안티 “삼춘, 요디서 오빠 밥만 맥여 낵 가쿠다.” 허민 “아유, 기어게.” 허멍 허락허여.

그 집에서 똥또 클러 농곡 숟가락 농곡 허영 앓양 이시든 오빠가 와. 그 집에서 그렇게 땀 번 밥을 먹었거든. 오빠는 밥 한 적 거려먹고 “어머니 어떻 험시냐?” 묻곡, 밥 한 적 먹고 “어머니 아멩이나 꼭 살려야 한다.” 허곡. 밥 한 적 먹고 “어머니만 잘 간호험 시민 공책 사 주고, 운동화도 사 주고, 옷학교도 보내주켜.” 곤곡. 경 허멍 세 번 정도 만나단 네 번째 되는 날에는 오빠가 “나 어드레 물 념영 가점직허다.” 허는 거라. “그거 무슨 말이파?” 허난 오빠가 “아니, 기여, 응.” 허멍 말을 막 어지려부런. 메칠 싯단 똥또 짹어정 강 보난 동척회사

옌의 사는 할머니가 언치낙 밤이덜 배에 문 실러 부러젠.

그르후제엔 오빠가 어디 가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었어신디 ‘서울마포형무소’ 글이 써진 편지가 오빠안티서 왔어. ‘치약, 칫솔, 편지 쓸 종이 보내 달라.’ 써 잇곡. 어머니 건강 걱정허는 글, 어머니 안심시키는 글 써 잇곡. 그 편지받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도 포장해서 보냈는디 “물건 받았다.” 는 소식은 못 들엇어. 그러니까 오빠는 서울마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이 돼 분 거.(26)

어머니는 오빠가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서울마포형무소에서 사람들이 하영 죽엇젠 허난, 어머니가 아들 기다리다 답답허연에 “어디 강 들으켄.” 허멍 무당을 좇앙 갓어. 무당이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우다. 살앗젠 말 못허쿠다.” 허난 어머니가 힘엇이 집에 오란 그냥 막 울고불고. 내가 “어머니, 경 허지 맙서. 나 하나라도 이수게.” 해도 막 울고.(27)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친구덜이영 신나게 들러키멍 놀단 4:3이 일어나난 벳도 었어지고 비비비비 울기 시작허연. 물 질레 갈 때도 친구덜이 학교에 들어가사 물 질영 집에 확 들어와 불곡. 길에서 친구덜 만나지믄 “다음에 가키여.” 허영 안 가곡. 지냥으로 나를 좇아왓젠 허는 친구안티는 주눅들고.

오빠가 한청단에 잇단 산에 잡형 올라가난 ‘혹시나 그 집에 내가 갓당 피해라도 주민 어뎡허리.’ 허는 마음에 나냥으로 날 등경은에 가지를 못헐어. 계난 친구 집에 못 가는 순간 집드레 들어올 때는 배설은 곳어지고 막 우는 거라. ‘나가 텅기믄 전염병 환자 모양으로 그 집에 지장을 줄 건디 나가 뿔 허레 가나.’ 허는 그런 생각만.(28)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열네 살 고비에 ‘나도 아버지신디 가고 싶다.’ 고 생각허연. 말로 표현 못헐 정도라. ‘어떤 마음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왕 가고 싶다.’ 허는 걸. 이제 젊은 사람

누게 자살 했덴 허민, 나가 그 사람 심정을 탁 알아져. 얼마든지 경 험 수 있다고. 건디 그추룩 이해 허명도 ‘저 사람도 바늘톱만이만 한 번 더 생각해서민 어땜 살아날 수 있어실 거 아닌가.’ 허는 그런 생각이 들어.(29)

고통스러운 날들 방 안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지금 생각해 보민 정신병 환자 모양으로 헤져난 거 다향. 그냥 사람만 봐지민 방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라. 방 안에만. 방 안에 앉으면 아무거나도 들쭉들쭉 만지작거리단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곡. 가사도 나냥으로 만들멍. ‘못 건디게 외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노래 부르다가 울먹임)……. 아니 부르켜. 난 이 노래 그 옛날에 불르멍 하도 진저리가 난디 오늘은 친언니 그림을 보난 이 노래 불러점저.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도의 ‘가는 님’은 ‘부모님’이렌 바꾸곡, ‘열풍아, 불어라.’ 허는 딴 ‘인근아, 울어라. 이 밤이 새도록 울어라.’ 허영 나냥으로 가사 멘들멍 불르곡. 원래 노래 가사랑은에 저레 내겨뵤 음만 놔근에. 경 행 허단 심상허게 방 안에 앉았당 따시 ‘못 건디게 외로워도…….’ 이젠 그때 생각허지 말아야지(노래 부르다가 눈물 흘림)…….

나, 그때 방 안에만 잇지 마랑 그 아이덜 오랜헤근에 같이 허고 말 허민 좋앗을 것올. 어릴 때에 문을 툇 닫아분 거라, 나냥으로 나가. 아버지, 오빠, 언니, 작은아버지고, 올케고, 아무도 산 사람이 엇이 나 혼자만 덩그랑히 헤노난 올젠만 헤낫어게. 집에 와도 아무도 없지, 누구안티 말 할 사람도 없지. 말이렌 현 건 ‘못 건디게 외로워도’ 그 노래만 부르는 거라.(30)

고통스러운 날들 일기를 벗 삼아

“살려고만 몸질쳐난 내가, 가고 싶텐 현 심정은 아니고라도 알아질 테주?(연구자에게 물음)” 어머니, 아버지 트럭에 몬 시꺼도 살고 프텐만 몸질치고 발버둥청 그 차 알트레 숨으멍 도망친 내가 살앙 오란에 두서넉 덜 사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가고 싶다. 아버지신디 나도 가고 싶다.’ 열네 살 때, 그땐 도저히. “우리 부모

님 죄가 시민, 농사 많이 지은 죄밖에는 없는데, 부모님이 농사 많이 지은 것도 죄가 됩니까?”, 농사짓는 것도 죄가 됩니까?” 막 소리 치명 울고불곡.

경 허명도 (이름 모를 고마운 분들이 보내 준) 호박에 온 쪽지, 소고기에 온 쪽지, 죽에 온 쪽지 그걸 폐왕 읽어낸 다음에는 (일기장에) ‘누젠지는 몰라도 이 고마운 공을 가프쿠다. 삼춘, 어느 삼춘인지는 몰라도 정말 감사허우다.’ 쓰곡. 그 보내온 쪽지덜은 일기장 트멍에 툭 쥼지고(울먹임)…….

그때 거멍헌 공책 잇엇거든. 거기에 일기 쓰고 쪽지들 허곡, 그날 일어난 일 들, 음식 헌 거. 나 학교 못 강 한이 쥼 거, 괴로운 가운데서도 어머니 웃기멍 어머니 웃는 모습 보난 막 기뻐헤난 거, 어머니 고통스러와 가문 ‘어머니 꼭 살 려야 한다.’ 마음먹은 거, 그처럼 하나하나 앵그리단 보난 일기가 하 부러서게. 게난 고통스러운 때 벳을 삼양 살아온 것이 일기. 일기 쓰는 것이 나 벳 삼은 거.(31)

호루라기 소리 후유증

열다섯 살ㄱ지도 넘이 헌 거 닳다. 그것이. 차가 웁웁웁 웁다갓다헐 때, 사람덜 실엿 출발 헐 때, 어머니네 차에 실엿 총살 시키레 갈 때, 사람덜 두드릴 때, 경 헐 때마다 그 호루라기를 불언게. 집합허렌 헐 때도 호루라기 일로 절로 썩썩 불엿 그냥 막. 매미덜 모양으로 서로 연결 연결 허멍 신호들 허는 것ㄱ치.

어디서 호루라기 소리만 나민 갑자기 오바이트가 나완에 화장실에 앓아 잇는 거라. 경 허단 배가 쭈욱 가라앓아 가민 오바이트도 가라앓고. 그르후제도 학생 덜이 호루라기 썩썩 불어가민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탕탕탕탕허멍 오바이트 나오젠 허곡. 열다섯까지 심허게 허단 차츰차츰 엇어전. 이젠 호루라기 소리 나 도 어멍 안 허고 차 소리 나도 어멍 안 허고. 겐디 차 타면 멀미는 허고. 멀미는 보통이 아니.(32)

마을 사람들의 희생

산사람덜 마을에 내려완에 집덜 학교덜 불테와 불곡, 차 못 다니게 한질에 돌 다와불곡, 뼈라 뿌리곡 헤 가난 동네 사람덜 동원시경 산사람덜 못 들어오게 학

교 운동장이영 동네에 높은 성담을 쌓게 했어. 큰돌 옮길 때는 남자 어른덜이 지렛대로 밀리멍 허곡. 성담을 멘들 때는 성담은 높고 통로는 좁게 만들곡, 성담 우이로는 걸어 땡길 수 있게 허곡. 중간 중간마다 보초설 수 있게 조그만 공간을 멘들안에 산사람들이 발견돼민 쏘울 수 있게 허곡.

그 성담 보초를 동네 사람덜이 직허고 허는디 폭도들이 들어오란 불부썸부난 군인, 경찰들이 성담을 지키던 사람들안티 “너네가 잘 못 직허니까 폭도들이 왕 마을에 불부썸다.” 허멍 그 사람들 심어당 총살 시켜 부럿어. 또 우리 시할마님은 아덜 일로 해서 대 코쟁이 뽀쪽한 걸로 막 찍어 부난 그냥 돌아가섯어. 산 채로. 뒷날 친정어머니 오란 시할머니 피 묻은 옷 보멍 막 울고. 경 허고 우리 올레 저 우이 사는 언니는 몸뚱아리에 돌 묶영 바다트레 밀려 부난 그냥 가라앉았어. 그 언니 어머니 막 울멍 딸 건정 보난 발 허고 몸에 돌 무경 잇어렌. 게난 어떻게 살아져, 죽주. 그때 그 언니는 시집도 안 갖는디 남편 숨겨뒀 남편 안 내놔젠. 원, 그런 억울험도 시카. 그 언니 어머님 곤는 말이 “딸 건지레 강 보난, 배에 사람덜 숨뺌 시경 몸에 돌 무견에 바닷물드레 들이쳐 부럿젠.” 산 채로.

게난 이걸 싸왕 무신 거 허고 북한 남한이 무신 거 허는지, 그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을 심어당 사람 죽이는 거이, 이제 살충제 허영 버러지 죽이는 거만도 아니헛주. 4·3때 죽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그 내막을 알앙 허카. 다 억울허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덜 몰죽음 현 거라. 죄 어신 사람덜, 똑똑헌 사람덜.(33)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4·3

주전자나 냄비 땡히는 건 잊어부렁 태워 냄새가 나사 아는디 4·3 저쪽에 일은 생생허게 하나토 잊어불지 안 허여. 총 멘 군인덜, 경찰덜이 눈 뽀뽀뽀뽀뽀 허멍 바딱바딱 돌아댁기는 모습, 호루라기 소리덜. 어릴 때는 살젠 도망쳐주만은 다시는 산지옥을 살고 싶지 안 허여.

만일에 4·3 님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텐 허민 부모님 형제간보다도 나가 모녀 떠나고 싶어. 다시는 나 혼자 살젠 발버둥치지도 안 헐 거. 절대 살아근에 취조 받느니, 그 피해 받느니 그……, 밖으로 나오라도 도피자 가족이렌 허영, 그……. 흠, 뭐랄까(깊은 한숨) 저, 정말 눈빛, 행동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상대 방은 경 안 험주만은 나 스스로 죄인이 뉘젠.(34)

4·3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4·3은 이북, 이남이 갈라져 “빨갱이 죽이라.”, “군인 죽이라.” 하는 사이에 그 중간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 4·3. 죄 없는 사람들만 막 억울하게 돼어부런. 죄인들처럼 멘들아 가명.

우리 대한민국이 북이고 남이고 하나가 돼어시든 4·3은 안 일어날 거. 나 생각으로는 북한, 남한 이것을 구분하여 가는 가운데 4·3을 멘들아 놔 ‘우리 억울한 사람들 죽여 부러지 안 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뚜렷하게 4·3이 어느 줄거리로 나왕 어떻 어떻 한 건 난 잘 모르주만은 무턱대고 남한하고 북한 통 갈라져 “네가 크다.”, “나가 크다.” 막 싸움바라 허는 사이에 4·3이 일어난 거라.(35)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말씀이 “인근아, 어머니 보고프건 절에 오라. 절에 오면 법당 어느 한 구석에 나가 이시 커메. 제라한 고운 델로 앉는 디사 허느냐만은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나가 꼭 앉아 이시 커메 절에 오라.”고 허연. “느가 오면 나도 느 보고 느도 나보고. 제사 때나 보고 싶을 때랑 절에 오라.”고.(36)

[그림 10 내용]

이때부터 친구덜 조금씩 만들기 시작허연. 어머니가 일어났 앓을 고비. 어머니가 감져 구웁 나뒀단 “친구덜 앓다 주라.”고 허민 친구들이영 꺾치 먹곡. 베졌던 안 가도 우리 마당이 커나난 거기서 고무줄허명 놀곡. 어머니가 맷돌로 개역 굴아주민 신나게 봉투에 담양 친구덜안티 테와주곡. 경 허민 개역은 질레에 뿌려지고(웃음).

운동회 때 안경 쓴 할아버지영 꺾치 땀 때 뭍음이 ‘10’이든 이때는 ‘10에 7’ 정도 기분이 좋을 때. 어머니 자신은 아광 험주만은 난 ‘세상사름 다 돌아가도 우리 어머니 절대 안 죽을 거다. 절대 안 죽영 나영 꺾치 살 거다.’ 그런 생각으로 신난. 어린 뭍음에.

어머니는 85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경 아팠 허명도 올케언니 말만. “불쌍허게 늙의 집 애기, 우리 집의 왕 가게 해져젠.” (어머니는) 음식도 바삭바삭헌 거 시원허게 먹어보도 못 허고. 고기라도 제라허게 조근조근 씹엉은에 드시지도 못허곡. 물 닭은 거, 죽 닭은 거, 단지 물죽으로만. 말제 가가난 빠짝 말랑 뼈 위에 가죽만 남아가고. 경 허단 85세 가까워 가난 자리에 눕기 시작허단 돌아가섯어.

지금 같으면 약도 먹고, 진통제 주사도 맞으멍 치료 헐 건디 그 당시 약이라고는 단지 ‘호박’ 허고 ‘소고기’로만. 내가 간호를 더 잘 헤시몬 어머니가 더 살 수도 이실 건디 나가 잘 못헤 부난 돌아간 것만 같고. 고운 옷 입어근에 나영 어디 손잡앙이라도 구경 가보도 못허곡.

난 멀미 허영 차를 못 타는디 언제 한번 동네 노인덜이영 ‘키미테’ 부짱 관광을 갖어. 거기서 코끼리 쇼영 말 쇼영 오도바허영 뽕뽕 돌리는 거 봐 가난 ‘어머니 살아 계시민 여기 왕 이런 거라도 보여 드릴 건디.’ 허는 생각이 막 나고.(37)

호상옷⁸⁶⁾

부모님 돌아가실 때 깨끗헌 호상을 입혀 드렸주만은 그건 생각이 안 나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피범벅헌 호상을 입헌 세상을 떠날 잣구나. 곤 옷 한 벌 못 입고 그 피범벅헌 옷만 입영 잣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간은 다 피범벅 헌 호상을 입영 간 걸로만 생각이 들어. 지금도 (울먹임). 스락헌 호상을 입영 세상을 떠난 생각이 안 들어. 어머니, 아버지, 언니네 다 그 피로 범벅헌 그 호상만 입영 떠나 가 분 거(울먹임). 세상에, 세상에 그런 시절이 다시 나온덴 허민 모녀 떠나야주. 그 꼴을 보느니 춤, 볼 수가 없주. 무서와.(38)

86) 수의(壽衣)(제주어사전, 2009).

자식들을 키울 적에

아이들 학교 땡길 때는 도시락을 보통 대여섯 개는 싸야 되어.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노민 가마솥에서 퍼 논 밥이 찬밥 돼카부덴 담요 속에 줄줄이 나뒀단 나갈 때 뵈또 하나씩 주곡. 계도 아버지(배우자)는 조금 다른 뵈또 허연. 쓸 서끄는 것이 보리쌀에 흰쌀을 서경 밥을 허는디, 아버지(배우자)는 보리쌀 조금 들어가고 흰쌀은 많이 들어가게 허영 모녀 땡 거리곡. 그다음 아이덜 밥은 보리쌀 흰쌀을 서경 거리곡. 뵈또 주곡 다 나가 불문 빈집이라. 자식들 소풍 갈 때는 암만 바빠도 하던 일 다 저레 밀려뵈 꼭 따라 갓어. 운동회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달리기를 거꾸로 1등만 해 가난 한번은 ‘어머니 달리기 경기’가 잇다고 해서 본부석에 시아버님 앉아도 뛰언. 다 뛰어 오란 아이덜안티 “어머니도 1등을 먹는디 학교를 5년 간 땡겨도 상을 못 타시몬 기록 아니냐?” 허난, 큰딸이 “거꾸로 2등은 해수덴.” 곁으난 한바탕 웃고(웃음).(39)

[그림 11,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근 : 50대쯤에는 비 오고 저녁혈 거 다 허고, 시간 남고 혼자 잇일 땡 월력에 앵그리고. 월력 뒤에 그림 그릴 땡 복잡헌 거 싹 잊어부러지고. 그림에만 집중허여 부난.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주머니에 돈 숨뺏 담아진 거. 집에 토끼 질루어나난 생각. 생이 집 지은 거. 이 생각, 저 생각허멍 그려서. 앵 그리멍. 켄디 토끼가 도새기 닮지 아념샤?

연구자 : 토끼 닮수다.

김인근 : 이런 토끼도 시카?

연구자 : 이수다. 토끼 종(種)이 많아마썸(웃음).

김인근 : 몽클락헌 종(種)(웃음).

현재 건강

협심증이 사람 미치고 환장허게 만들어. 갑자기 자당이라도 더버더버해 가몬

큰돌을 가슴에 앓당 눌러 분 거 닳아. 혈관 맥혀 가는 병. 오랜 시간 안 허여. 30분 남짓허게 허여. 30분이 300시간 지나는 것ㄴ치 막 못견뎌. “어머니” 부를 때도 잘 불르질 못해. 겨우 “어·머·니” 허멍 고꾸라져. 그 병은 눅도 못허고 앓앙 잇이른 조금 숨이 나와.

어지럼증도 어지럼증이주만은 협심증. 협심증이 제일 고통스러와. 어뎡헌 때는 소망으로 한 달에 한 번토 아녀고, 어뎡헌 땐 한 달에 두 번이나 그 이상혈 때도 잇곡. 협심증으로 아파나민 누구안티 매 맞아난 것ㄴ치 복삭 아팠 어딜 가고 싶지 않아. 밥맛도 툇 떨어지고. 약을 아니 먹을 때는 낮에도 쭈그러 앓앙 박박 털고. 땀은 발딱허게 나곡.

처음은 협심증이 아니고 어지럼증. 머리가 땡허게 돌민 집이 거꾸로 돌멍 오바이트 나젠 허곡. 큰어머니 살아 잇일 때는 “인근이 4·3때 머리 맞아난 고통 받아난 그 어지럼증이 생기지 안 헤시냐, 그거 닳다.”고 허연. 이젠 그 어지럼증 다음으로 협심증이 일어나 부런. 병원에 가난 “합병증으로 쥔 거.”라고. “혈압에 당ㄴ지 잇이난 음식 주의하라.”고 허연. 한 달에 두 번 그거에 대한 약(협심증 약)허고, 혈압 약 타 오고.(40)

현재 주로 가는 곳

텃밭은 남이 내 분 거. 밭 주인이 “채소라도 갈아근에 사용허렌.” 허연. 텃밭은 5, 6년 넘이 헛주. 조금씩 즉석에서 나 먹을 정도. 운동 삼앙 올라강 검질이 라도 이시른 뽑아 두곡. 콩 싱그고, 고구마 몇 줄 싱그고, 고추·파는 싱글 장소 이신디 아직 못 싱그고. 치커리, 배추도 이제 갈아야 헐 건디. 또 호박·부추.

며느리나 아들이 “어머니, 호박하나 타다 줍서.”, “부추 흥쑼 줍서.” 헐 때는 그거 주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 지네냥으로 문 상 먹엄주만은 “어머니가 키운 채소는 막 맛 좋수다.” 허멍 언강으로덜 곤곡.

검질을 매거나 할 일이 이시민 아침에 강 서너 시 넘도록 일허곡, 경 아녀민 열두 시 되기 전이 오곡. 밭디 가문 나 허고픈양. 누가 듣지도 안 허고 부끄럽지 앓으난 시원허게 노래도 불려보곡. 고음 처리 못헤 부난 밭디선 ‘끼익’해도 누게 웃일 사람도 없곡. 나 허고픈 양(노래 부름).

못 전디게 외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눈물로서 보내는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부모님,
울어라 인근이 밤이 새도록.

‘열풍아, 불어라.’ 그건 ‘인근이 밤이 새도록 울자.’ 경 허고. ‘기막힌 내 사랑아.’ 헐 건 ‘기막힌 내 부모님’으로 바뀌치기 허곡. 노래 부르단 나만 씩씩 울어도 지곡.

노래 부르고 싶을 때는 부모님이 막 보고 싶을 때나 살아가는 것이 답답할 때. 어머니 아버지신디 강 흠세도 부리고 옛날ㄴ치 언니신디 가근에 하근 말이라도 해시든 속이 시원험직 헐 그런 때. 찬바람이 쌀쌀 헐 때 울어 가민 얼굴이 막 케어.(41)

다시 태어난다면

김인근 : 난 다시 태어나민 결혼도 안 허고 혼자 보멍 탕기멍 실컷 공부만 하고 싶어. 외국사람 통역도 해 주멍. 영어, 독일어 그런 거.

다 나가 공부 허영은에 통역허는 거. 여자라도 당당허게 늬 앞이 서는 그런 걸 허고픈디. 이거 꿈이주게. 이 말 허멍도 내가 나 생각에 부풀언.(웃음)

연구자 : 어머니는 충분히 하실 수 이수다. 간호하신 정성이면 무슨 일이든 다 잘하실 거우다.

김인근 : 굴아난도 우습주만은 그렇게 큰 꿈을 가진.

연구자 : 어머니, 그거 큰 꿈 아니우다.

김인근 : 누구나가 허고파이?

연구자 : 저도 허고프주마썸. 근데, 간호하신 일 이수게? 그 일은 아무나 못할 거 같수다.

김인근 : 우리 동네 친헌 친구 언니들토 다 경 굴아. 그 언니덜이 “인근아, 간호할 때 오바이트 안 해져냐?” 그 질문을 해낫어. 난 다른 어머니나 다른 사람, 남의 그런 일 허렌 허민 막 오바이트 나올 건디 어머

니건 냄새도 안 나 뵈고, 썩은 고름 나오라도 그것이 낫어 뵈지 안
허연.(42)

[그림 12 내용]

이 그림 나 므음에 폭 들다게. 나 마음에 딱 들엄저. 이 캄캄헌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완. 아버지 물에 빠진 저수지가 이추룩 벌경헤 불고, 어머니 총살시킨
그 냇물 흐르는 디도 핏물로 흘러내리고, 어머니 몸에도 다 피. 게난 이거라, 이
거. 나도 취조 받당 두드려 맞으난 세상이 빨강색 한 가지로 보이고. 온 식구가
이런 불구덩이 모양으로 피 속에서 헤메연. 사름만 봐지믄 문 더경 캄캄헌 디서
살다시피 허멍 일기영 밋 삼양 살 때가 이때.

[그림 13 내용]

난 이런 거 좋아헤진다게. 깨끗헌 거. 촛불이 활활활활 헤가는 거. 환헌 세상
을 막 비추는 거라. 부모형제 흠이 뉘부럿주만은 나가 하나하나 말 곁아가난 ‘어
머니, 아버지영 언니덜이 저 불빛ㄴ치 바깥딜로 솟아나오고 잇구나.’ 허는 그런
기분이라. 환헌 세상으로 영혼이 나오는 기분.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잇구나.’
허는. 게난 부모형제가 ‘우리는 그 억울허고 말 한마디도 못허연 세상을 떠냥 오
라분디 인근이가 우리 속마음을 곁아쥬 우리도 저추룩 촛불 모양으로 환헌 세상
을 봐점구나.’ 곁는 것 같기도 허고.

나로 생각허믄 촛불이 환헌 세계에서 이젠 살아지는 기분. ‘내가 어둡컴컴헌
지옥 속에서 환헌 세상으로 나오카부덴 꿈에도 생각을 못헤신디 환헌 세상으로
뛰쳐나오람구나.’ 허는 그런 생각. 그림은 한 가지라도 이녁 므음속에서는 여러
갈래로 들어점저. 저걸 보난.

[그림 14, 연구자와 구술자의 대화]

김인근 : (그림을 그리면서 웃음) 에이 참, 여든 낭…….

연구자 : 어머니, 재미이수가?

김인근 : 응, 막 앵그려 가난 신난. 이렇게 신나는 디 늬이 이거 보민 “츄, 허 한헌 이런 그림도 있나.” 허영 웃일 거라도. 웃거나 말거나 이젠.

연구자 : 이 그림은 어머님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우다.

김인근 : 에이, 츄(웃음), (빨간색을 집으며) 새빨강헌 거 이건가?

연구자 : 예, 맞수다.

김인근 : 겐디 구렁치는 어느 색을 허민 좋고(혼잣말로 중얼거림).
(검은색을 찾으며) 거무룽헌 거?

연구자 : (검은색 크레파스를 건네며) 요거우다.

김인근 : 지금(낙서하듯 색칠하면서) 그리는 건, 나 좋아하는 앵그리는 거 나 왔저. 막 이레 삭삭, 저레 삭삭.

연구자 : (웃음)

김인근 : (이전까지는) 색을 칠하고 싶지 안 허연. 그림으로만(연필로 그리는 구체적 표현) 앵그리주. 이런 건 헤 보질 안 허연. 허면 어떻 나가 어색해저.

연구자 : 색칠허는 거마썸?

김인근 : 응.

연구자 : 지금은 어떻허우파?

김인근 : 아이, 이젠 막 앵그리난(웃음). 첫날 이거 헤시민(색을 사용한 그림) 발발 털어볼 건디(웃음). 이젠 앵그리난(자유로운 색칠) 신나는 거라. (자신이 그리던 그림을 가리키며) 영 헌 구렁치에서 어머니허고 나가 그냥 영도 정도 못 행 허는 거라. 오늘 앵그리는 건 제일 좋다. 처음 에 그림 그릴 때는 ‘그르치민 어떻 허코.’ 그 걱정헤신디, 이젠 그거 생각이랑마랑.

[그림 14 내용]

이디 검은색에 빨간색 칠해분 디가 나. (사람 형태로) 나 그릴 필요엇이. 이컨 념새 나명 썩어가는 어머니. 나는 빨간 색깔 잇고 머리밖에 없는……. 이 구렁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름도 아니고 구신도 아니고. 빨간색이 흐꿈이라도 시니까 사름이엔 햐주.

어머니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그냥 시체가 된 몸이라. 피고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어머니. 경 허난 나안티만 빨간색 칠한 건 나가 어머니보단 조금 건강 현 모습이란 빨간색 칠한 거. 난 이 구렁치에서 햇빛 속으로 나가지 못할 바에는 형제간 신 났로 가고 싶텐 막 몸질칠 때가 이때. 여기서 밖으로 나오카부텐 꿈에도 생각을 못헌 때. 놈이 우릴 사름으로 인정 아녀주는 것 같고. ‘산폭도’렌 허는 것 같고(목이 땀).

지금 도둑놈, 사름 죽인 사람보다도 그뻔 막……. 죄인 아닌 죄인 몸이 뒀엔. 복통은 끊어지고 억울허곡……. 게난 밖에 나오지도 아녀고. 문 닫양 허당은에 답답허고 미쳐질 거 닳으난 종이 봉강 종이쪽에 일기 쓰고. 어머니가 흐뎡 정신 난 걸어지곡 어머니냥으로 흐뎡 옷 갈아입을 정도 허여도, 경 해도 이 속에 살 때라.

“4·3평화공원에 집 짓엄저. 우표덜 앞점저.” 허는 소식은 들엇주게. 그래도 안 잣어. 그날 책자 나오민 그 책만 빌려당 보곡. 4·3평화공원에 동네사람들 세 번 째까지 감젠 해도 난 안 간. 그때까지도 이디서 쭈그러 앓은 거. 다덜 감젠 해도 안 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헐어.

네 번째 뒀는 해에 동네에서 차덜 대고 감젠 허난 ‘게몬 나도 가근에……. 흑시……. 아버지, 어머니 우표덜이라도 거기 이신가, 가서 확인만이라도 허영 오주.’ 허연에 국화꽃 한 송이 들고 가신디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올케, 언니 우표들 앓아잇엔. 오빠는 행방불명 뒀부난 다른 디 따로 우표가 잇곡. 우표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을 폭도라고 나무리단 우리를 살어나게 해줬구나.’, ‘이젠 우리 오빠 죄가 없구나.’ 허는 그 힘을 가지게 뒀엔.

우표덜이 셀 수 어시 짝 차게 앓은 걸 보고 이시난 ‘나만이 아니로구나. 저 어른덜토 나 닳은 어른이고 나보다 더헌 시체 못 좇은 어른덜토 신디, 게도 나는 부모님 시체라도 좇으난 다행이구나.’ 허는 그런 먹음을 먹게 뒀엔. 못 좇은 어른덜은 ‘시체라도 좇아져시몬’ 헐 사람이 천지난. ‘아……. 그걸로 생각허민 나가 좀 낫구나.’ 허연 그때 용기 얻엉 왔어. 경 허고 ‘부모형제가 여러 고인들이영 7치 이시난 외롭지 아널로구나.’ 허는 생각이 드난 마음이 펜안허여 지는 거라. 그때 죽순이 조금 기어 나완.

그다음은 4·3평화공원 잣다 온 후제 얼마 엇이난 4·3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 “시민회관에 강 4·3때 겪은 그대로만 말씀해 줘센.” 경 허난에 시민회관 강 ‘4·3

체험담' 발표 현 후제는 죽순이 요만이 나와.

그다음은 선생님(연구자)을 만난 거라. 선생님을 만나난에 이 모든 걸 답답한 그림이고, 나 편지덜 보내고 헤 가난 죽순이 요만이 올라와 부러서. 겐 이 죽순이 나 마음속에서 막 크는 거라. 이 죽순이 커근에 대나무가 똤영 이파리가 나오난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 계난 앞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당당하다.' 허는 믱음을 가정 대나무가 나올 정도로 사는 거라.

2. 이명관의 생애사

이제는 4:3을 말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 옛날에는 당채. 4:3에 대해서 함부로 뵈이엔 굴을 수가 없어. 말을 못해. ‘편안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고.’ 허는 생각만. 그자,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험구나.’ 허는 믿음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없는 사람덜 왜 죽였는고.’ 허는 그런 생각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지게……. 사난 춤 살았주.

-이명관의 생애사-

서당과 간이학교를 다니고

왜정 때 내가 13살 적에 온신서당에 다녔어. 2년을 못 허연 혼 1년 정도. 그다음은 저기 봉성이엔 현 부락에 간이학교가 있어나신디 거기서 혼 2년 다니고. 간이학교에 텅기는 학생들이 혼 30명쯤은 뒀었어. 교실에는 책상 잇고 앉는 걸상 잇곡. 글은 ‘ㄱ, ㄴ, 가, 갸, 거, 겨’ 한글도 허고, 일본글도 허곡. 공부는 말로만 재미있게 ㄱ르쳐서. 그때 시험도 보고 다 헛거든. 시험 볼 때는 선생이 문제를 내서 의미를 다 알아야 푸는 문제었어. 그거 다 해석하면 합격뒀고 경 안 허문 제로.

경 현디 공부는 별로 아녀고 풀 베고 퇴비 만들고 헛어. 나가 그때 반장을 해신디 “너네들 풀 베어.” 그런 지시도 허고.

그때 재산 잇인 사람들은 애월국민학교에 다니고, 없는 사람들은 온신서당에 다니다가 설러불곡. 한 달에 얼마 돈 낸 학교 다녔주. 그때 돈이 얼마나 귀헛다고.(1)

어린 시절 놀이

어릴 때 동네 아이들영 연극할 때 내가 영감을 헛어. 지팡이 지프곡, 노래 부르곡. 내가 그때 연극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잊어불지 안 허여. 그 노래.

그때는 음악을 뒀으로 헛느냐 하면 북허고 장구, 다영. 다영허고 북을 ㄱ치 치면서 포장을 윗드레 싹 걷어. 경 허문 우리 연극허는 사람덜이 그 안에 딱 들어

갓어. 들어 강 보민 부락 사람덜이 모도록이 모영 있어.

또 ‘구녕치기’엔 흰 거. 돈, 노랑흰 췌로 만든 일전. 그걸로다 어떻게 ‘구녕치기’ 헛냐 하면, 땅을 팡은에 구녕을 만들영 선을 긋어. 그런 다음에는 선 밟지 안 허게 서서 그레 들이치믄 먹는 거고 들이치지 못 허믄 낙이라.(2)

생활사

부모님이 농사허는 거 보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농사지었어. 옛날 제주도 통시는 도야지 길루는 되서 양쪽으로 돌 놔서 사람이 대소변 보게끔 헛거든. 통시 안에 도야지 집도 있어. 그 안에서 새끼도 낳고. 그러면 도야지들이 인분을 먹고 통시 안에서 크는 거라. 사람이 준 음식물도 먹으멍. 경 행 그 도야지를 잡아서 먹는데 “그렇게 맛이 있어.” 지금 도야지보다 훨씬 맛이 좋앗거든. 내가 먹어 보니까 이 말을 허주(웃음).

봄에는 출을 먹은 소들이 똥, 오줌을 싸면 그걸 통시에 낫거든. 그러면 도야지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섞어지면서 골고루 썩게 돼거든. 나중에 그걸 꼬집어내서 사람 발로도 뽏고 소로도 뽏고 해서 망탱이에 골고루 담양 소에 싣고 밧디 가는 거라. 경 행 보리 종자씨에다 그걸 섞어서 보리를 갈았어. 한 밧에 몇 평이면 얼마 든다는 걸 놔 가지고.

여름농사는 거름 안 주고 그냥 씨만 뿌리고. 비료가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안 헛어. 왜정 막꿇데는 헛주. 그때 콩도 많이 갈곡, 조도 많이 갈곡, 팿, 모멸 그런 농사. 밧되서 모멸을 손으로 다 비고 으깨고 해서 시꺼다 먹었어. 모멸을 많이 허기 때문에 해변가 사름덜이영 바퀴 먹기도 허고.

또 그때는 물이 귀해서 우마(牛馬)나 사름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고인 물을 먹었는디 사름이 먹는 물에는 우마가 들어가지 못허게끔 해놓았어. 경허믄 물구덕에 허벅을 낳 걸머지고 그 물을 질어다 먹었거든. ‘항’이엔 흰 것이 ‘허벅’ 인디, 저기 모슬포에 그릇 만드는데가 있었어. 신평이렌 흰 디 거기서 만들아서. 그거 쳐가지고 이까지 풀러 와났어.(3)

일제강점기 말의 상황

왜정 말엽에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적에 식량이 모지랴던 모냥이라. 개인으로 얼마 바치라고도 아녀고, 집에 있는 곡식을 다 바치라 이거여. 안 낼 수가 없어. 온신서당 강 다 바쳤어.

그 기간이 오래시른 굶을 사람덜이 많이 잇어실 거라. 허지만 당분간. 몇 개월 정도. 1년은 아니고. 왜정 말엽이었으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적에 혼 9월 달인가. 폭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낫어. 일본 잠수함이 비양도 근처, 글로 완에 세울 적이 미국 비행기가 놀아다 일본 잠수함을 폭발시켜 부난 일본군들 거기서 많이 죽었어.

그때는 우리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들이영 똑같이 군대 갓어. 그 당시 징용 가는 사람은 애월면에서 상부 지시를 받았 몇 명 보내라 허민 그대로 보냈거든. 지금은 돌아갓주만은 우리 큰형님도 북해도 탄광 거길 갓다왔어.(4)

4.3의 전조

해방됐니까 아주 춤 마음이 좋았어. 이제 살아질려구나. 경 현디 그것도 잠시. 친족 종손침에 아버지하고 제사 뵙 오는 새벽 2시 경에, 질레에 한글로 써진 뼈라가 흩어져 잇었어. 아버지 허는 말이 “명(목숨)이 바빠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라. 그렇게 허단에 점점 사태가 커정 경찰이 와서 무조건 심어갓어. 무조건이라. 질레 탕기는 사람, 집에 이신 사람. 겨니 죄가 잇건 없건 심어갓어.(5)

마을 소개

산에서 내려왕 불부찌는 바람에 이 부락이 소개를 당허니까 봉성도 가곡, 한림도 가곡, 애월도 가곡, 시내도 가곡. 이 부락 사람덜이 각 처로 흩어졌어. 아는 사람 잇이든 좃앙 가곡, 경 안 허든 남의 집 헛간에서 살곡.

마을이 소개되어 내려갈 적에는 식량 허고, 소 잇으면 소 끌고 가고. 그때 해변가 사람들이 어음리에 와서 짐 운반 허는 거 도와주고. 차도 없고 구루마도 없어서 어깨에 걸머지고 운반헸어. 마을 아래에 내려온 후제, 나는 봉성 처가택에

가서 살고. 어머니 아버지는 큰누님네 집에 가서 살고.

식량을 산사람덜이 돈 떨어가부난 먹지 못 허연 몸이 부은 사람도 잇어났어.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으난 어디서 곡식을 쫓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마을 정미소에서 가마술에 죽을 주영 굶는 사름들 맥여나고 헛어.

박OO라고 경찰관 허다가 파면 당한 사름이 잇어나신디 그 사름이 나 사는 집에 놀래 왔다가 콩죽을 먹으멍 허는 말이 “먹을 것이 없어놓으니까 소나무 속껍질을 달여서 먹었다.”는 거라. 마을이 소개 당허니까 먹을 게 그렇게 엇엇어. 그러니 삶을 삶으로 안 살았거든. 목숨만 붙은 거지.(6)

마을 사람들의 희생

그 당시에는 사람 마음이 안심허지 못허연. 사람덜이 죽고 살고 막 혈 때니까. 젊은 청년들을 무조건 심어갓어. 죄가 잇고 없는 것은 우리도 당체 모르는데, 막 취조허멍 “바른말 허라.” 이거여. 나 생각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헛다고. 나도 경찰서까지 가오긴 헛주만은 그때 심정이 괴롭게만 살았주게.

지금 저 동네에 잇는 한 사람은 전기 취조까지 당헛어. 취조가 여러 가지야. 비행기 취조가 잇어. 비행기 취조. 천장에 돌아멧 막 때려. 거기서 죽영 나온 사름도 잇곡. 죽을 정도면 그보다 더한 취조가 어디 잇어. 사태가 경 커노니까.

하루는 9연대 군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온신서당에 다 모이라.”고 허는 거라. 온신서당 마당에 쭉 앉으니까 “이름 부른 사람 나오라.”고 헤. 그때 나 이름은 안 불럿어. 이름 부른 사람은 “산에 가담되었다.”, “빨갱이다.” 해서 심어다가 한림 오일장, 옛날에 오일장. 거기서 그날 다 총살시켜 부럿어.(7)

무죄 석방으로 풀려나고

비가 촉촉 오는 아침에 우장 쓴 사람이영 ㄱ치 집에 오는데 어디에 잇었는지 응원대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어디 가오느냐?” 허난 “소 보레 갔다 옵니다.” 헛어. 내가 살려고 그 말을 헛어.

건디 옆에 잇는 사람은 내 불고 나를 심어갓어. 개머리판으로 내 독지 몇 번 때리면서 (애월지서) 따라오라고. 곧는 대로 애월지서에 따라갓어. 가서 보니까

여자는 없고 남자 동네 분들 여러 사람이 모두 포승을 찾아. 나도 매 맞고 포승 차고. 거기 경비하는 경찰관이 이신디 사람들이 뭇 말을 허는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감시했어.

취조가 끝나난, 경찰관 한 사람이 문을 열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라. 나가니까 재판해서 확정하겠으니 “가라.” 이거야. 그래서 뒷날 관덕정에 있는 제주경찰서에 갔어. 경찰서 감옥에서 21일 살았는데 마지막 날 불령 나가난, 재판 서기가 여자였어.

그 사람 허는 말이 “당신이 죄가 잇거들랑 뭇 죄가 어떻게 잇다, 시민 싯다, 없으면 없다. 이녁 손으로 써두고 가시오.” 그렇게 말해. 그러니 뭇엔 써!. ‘죄가 없다.’고만 썩 나왔주. 그러니 “나가라.”고 해. 나강 보니까 경찰서 베갯디 입구에 빨간색으로 ‘이명관 무죄 석방’이라고 내 것만 딱 써 잇는 거라.(8)

군 입대, 부산 5호 훈련소에서의 생활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9월 1일 군대 입대해서 부산 5호 훈련소에서 1개월 훈련 받았어. 훈련 중에 배가 고파.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거데? 잠을 못 자. ‘취사반에 가면 배 안 고프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잇을 땐디 마침 훈련소 취사반 반장이 제주도 애월 사람이라. 그래서 취사반에서 일하게 됐었어. 거기서는 소고기, 도야지고기 얼마든지 먹거든. 나 먹는 것은 걱정이 없어. 그런데 훈련 받는 아래 병사들을 생각허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몰래 밥을 떠 주고 헐어.

취사반은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어느 소대 인원이 몇 명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알아서 밥을 주는디, 그릇에 밥을 안 주고 손에 주걱으로 거려 주고 헐어. 반찬은 김치, 금방 절인 거나 다름없는 거, 젓가락 한 줍음 정도로 주고. 거니 그걸 먹고 훈련 피롭게 받으면 살 수가 없어.

군대에서는 담배는 켜는디 라이타는 안 켜어. 계단 병사들이 담배에 불부쩔라고 가마솥 나무 불 때는 쪽으로 오거든. 어떤 병사는 담배에 불부찌는 척허멍 옷 속에 숨겨온 통에 밥 거리다가 들키기도 허고. 들키든 솔뚜껑을 짝 데껴땡 도망을 가. 경 허든 취사반 병사들은 “이 새끼” 허멍 뒤쫓앙 들리다가 내불지 뭇. 어떻게 허여(웃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던 거라.

군대는 명령이니까 자기가 슬프면 슬프다는 말을 절대 못해. 죽으라면 죽어야지. 부산 5호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통신학교에 갓는디 통신학교 그때 집이 2층인디 잠자는 중에 “5분 내로 집합허라.” 는 방송을 허여. 그러니 잠자던 사람이 5분 내로 옷 입고 운동장에 집합할 시간이 었어. 늦으면 기압을 줘. “엎드려 뻘쳐.”, “굽어.”, “기어.” 경 허둡서 방망이로 막 때려. 시간이고 뭐고 딱 들어야 돼. 군대 훈련이 다 그런 거.(9)

통신학교에서 일주일 교육 받고 일선 지구로

입대해서 부산 5호 훈련소에서 1개월 훈련 받으니까 장교들이 와서 “일렬횡대로 집합허라.” 이거라. 집합허니까 장교들이 중간 중간 다니면서 툭툭 건드리멍 “일로 나와.” 허여. 나가니까 통신학교 보낸 거라.

통신학교에서 일주일 교육 받았어. 일주일 동안 배운 것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전화선을 어떻게 연결허는가.’, ‘통신을 어떻게 허는가.’ 허는 거. ‘가설 통신’ 할 적에 나무 전봇대에 어떻게 올라갔냐 허민 밑창에 날 든은 신발 신고 나무 전봇대에 탁탁 디디면서 올라가. 나는 전봇대에 올라가보도 못하고 밑에서 전화선만 연결헐어.(10)

일선 지구에서의 통신병 생활

무전 통신병으로 잇을 때 힘들었지. 지금 걸머지고 약 뿌리는 거 잇자녀. 꼭 그 닳은 무전기를 걸머지고 다니거든. 매양 높은 곳에서 그걸 사용하는디, 능선 7치 높은 장소에 가서 그걸 부리고서 앉으면 “어느 연대, 어느 대대, 어느 중대다.” 허는 전화가 와. 그것이 안부라. 건디 일주일 교육으로 전화 가설허고 무전 통신을 받아노니까 캄캄허거든게.

통신교육 받고 단기 4283년 2월에 강원도 홍천에 갓을 때 주먹밥이 팡팡허게 열어서 총부리로 깨멍 먹엇어. 그거 먹고 가설 통신 일허고 헐는디 길 옆 고랑창에 사람 죽은 것이 천지. 길 가운데로는 차 탕기곡. 길 옆 고랑창에는 사람 죽은 것이 그렇게 많아. 발 디딜 곳이 없어. 거기서 죽은 사람 옆으로 다니멍 전화선을 연결헐어. 그 죽은 사람들 우로는 전화선 흘리면서.

시체들을 치워서 묻을 시간이 었어. 막 전투가 심해노니까. 틈이 잇어야 죽은 사람을 치우나 묻으나 허주만은 그럴 시간이 었어.

무전 통신병으로 8사단 21연대 잇을 때 이북하고 전투가 일어남 총알이 비 오듯 날아왔어. 고개 들엉 앞을 보민 총알을 대번 맞아. 그러니 산 능선에 누워둬서 개머리판 총을 다리 사이에 쥔져서 심엉 그대로 둥그럿어. 나 앞에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 우리가 보충병으로 갓어. 죽은 사람 대신으로.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일선 지구에 나갓던 거지.

일선 지구 싸우는 디도 후방이 잇어. 만약에 전투허면서 부상을 당허거나 죽으면 후방에 잇는 사람이 인도자가 돼주. 죽은 사람을 후퇴시키기도 허곡 그대로 내보기도 허곡. 부상당헌 사람을 붕대, 아까쟁끼, 불르는 약으로 임시 치료도 허곡.

그다음 일선 지구에 또 후방이 잇어. 병원. 병원드레 후송시키면 병원에서 응급조치해서 따시 후방 병원드레 보내거든. 그 당시 내가 갓던 대구 육군병원이 컷어. 제일 후방이 그거라.

치료가 완전 돼어서 일선 지구에 갈 수 잇는 사람들은 따시 보내고. 일선 지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제대시경 보내 불곡. 나가 무전 통신병으로 활동하다가 이마에 총 맞고 대구 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제대를 헛어.

경 해도 나가 하여튼 수명이 긴 참이지. 이마에 총을 맞고도 살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군대 가니까 ‘문전’ 이라고. 명절, 제사 때 ‘문전제’ 허거든. 문전에 향 피워놓고 항상 비념을 헛어. ‘종게 해 주십서.’, ‘가이 죽지 마랑 어디 상처 나지 말고 잘 살게 해 주십서.’ 허는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11)

통신병 생활 중 일화

한번은 전화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미군 주둔허는 될 갓어. 우리 한국답지 아니서 미군들은 모든 게 풍부허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잇주게.

밤에 우리 통신병들이 후라쉬 가정 텡기당 길가 어염에 물품이 여러 개 쌓여 잇는 걸 보게 돼엇어. 내 후라쉬를 보초 서는 미군 얼굴에 탁 비추니까 미군이 손을 흔들면서 물품을 우리 쪽으로 던지는 거라. 그놈 데리고 500m 정도 가니까 다리가 이서. 그 다리 밑에 담요들이 쌓여 잇어. 게서 우리 소대에 그 담요

가지고 와서 눕혀서 쓰고 했어.

또 한번은 통신학교에 갈 적에 사지복을 져어. 미군들 다 그걸 입더구만. 그 사지복을 입었 가는디, 헌병이 우리 보고 “후방에서 너무 고급스럽게 산다.”는 거라. 그러면서 “바뀌 달라.”고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뀌 입었지 뭐. 신병으로 가노니까.(12)

군 제대

산에서 폭도들이 내려오른 잡을라고 마을에 성담을 쌓았어. 성담을 지키는 곳도 여자 보초막이 있고 남자 보초막이 있어. 제대 행 왕 보난 할망들은 보초 아녀고 젊은 처녀들허곡 남자들이 밤에 고생하면서 보초를 서고 잇는 거라.

그래서 봉성에 제대헌 군인들 몇 사람 모영 경찰이 주둔하는 될 가근에 “우리 군대 가왔는디 밤에 순찰을 돌겄다.” 하니 경찰이 “고맙다.”고 허는 거라.

하루는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밤에 순찰을 도는디 여자 보초막 가운데 경찰이 총을 머리 뒤에 탁 쏘고 누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엇이 그 총을 가지고 와 부러. 누워 잇던 그 경찰이 뒤쫓아 오면서 “총을 주고 가라.”고 해. 가져가지 말라고. 줘두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 총 갖고 경찰이 주둔하는 파견소로 가서 “우리 재향 군인이 순찰을 돌다가 몇 시에 여자 보초막에서 총 하나 가정 왔다.”고 굴아 두곡, 그 총을 반납했어. 경찰관은 “아, 그러냐.”고 허고.

그 당시 금월동이렌 헌디 1개 소대가 주둔해나신디, 뒷날에는 거기에 “재향군인들 다 집합 허라.”고 해. 그때 마을에 응원대가 잇을 땐디, 응원대가 공포총을 팡팡 쏘우면서 자기네한테 “덤벼라.” 이거라. 군인 가온 사름을 그 정도로 무시 아녀거든게. 그래서 겨울에 불 땔라고 부락서 모인 화목(火木), 그거 하나씩 들고 서로 막 싸움을 했어. 응원대허고. 그때 한림에 연대 본부가 잇어나신디, 뒷날은 거기서 짐 시끄는 차가 와서 마을에 잇는 응원대 문딱 실령 가 부러.

그러니 부락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 응원대 왕 주둔행 살 때는 마을 사람들이 쌀 모영 밥해서 다 베킷는디 “밥도 잘 못했다.”, “반찬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락민들 괴롭게 했거든. 그러니 부락민들 얼마나 편할 거여.(13)

봉성에서 다시 어음리로

군 제대 후에도 4·3이 계속됐난 봉성에서 몇 개월 살고 있어신디, 어음리가 재건된다고 해서 어음리로 올라왕 집을 지었는디 제대로 못 지었어. 돈도 없곡. 그때는 일당을 곡식으로 줬어. 돈은 별로 이용 안 허연.(14)

과거의 4·3과 현재의 4·3

이제는 4·3을 말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 옛날에는 당채. 4·3에 대해서 함부로 뵈이엔 곱을 수가 었어. 말을 못해. ‘편안히 사는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고.’ 허는 생각만. 그자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험구나.’ 허는 믿음만.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없는 사람덜 왜 죽였는고.’ 허는 그런 생각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지께 …(침묵 12초)… 사난 춤 살았주. 당채. 그러헌 세상을 또 당한덴 허민 자살행 죽어붙어야주. 살 필요가 없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고.(15)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싸웁 이겨서 잘 살아보자.’ 허는 생각 밑에서 전쟁을 허는 거. 현재 우리도 이북하고 서로 단합이 안 뵈언에 자기네 말만 고집하고 잇곡. 경 현 때문에 이북, 이남이 갈라진 거 아니라게. 다 그런 욕심 때문에. 4·3은 이남, 이북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라. 게난 ‘이제는 이남서나 이북에서나 새롭게 잘 살아봅시다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타협해야 될 거 아닌가.’ 허는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줄려고 해게. 이겨서 자기네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허는데.(16)

현재 건강

오래 전부터 다리가 알려서 다리 약 먹고 있어. 혼 15년 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신디 처음에는 절뚝절뚝허다가 점점 더 해서 현재는 걷지 못허고.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뵈. 2년 전부터는 전동 휠체어로 운전허멍 다녔서. 전동 휠체어

쪽으로 이동할 때도 지팡이를 짚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몸이 옆으로 쓰러져. 한 달 전에는 올레에서 꼭 쓰러졌어. 마침 콩고리 바닥이 아니고 흙바닥이난 크게 다치지 않았주.(17)

현재 주로 가는 곳

노인당 짓건 다가 혼 3년. 처음은 당번을 한 조에 3명씩 했어. 3명이 노인당 지키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당번이 너무 빨리 돌아오니깐 한 사람씩 허다가 요즘은 중단 됐어.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은 잇는디 농촌이라노니까 일허다가 자기 당번이 돌아오면 노인당으로 가 봐야 돼거든. 그런 때문에 요 며칠 동안은 당번이 중단된 상태라. 노인당 가든 날 ㄴ치 아픈 사람 치료허는 기계가 셔. 독지 ㄴ튼 데, 등·다리 주물러 주는 기계. 허리 대어서 운동허는 기계도 잇고, 여러 가지가 있어.(18)

현재 농사

사라호 태풍 그때, 우리 집에서 한참 올라가면 오름 같은 능선이 잇는디 그디 능선위에 있던 큰 소나무가 부러져 이까지 밀려왔어. 어느 집은 손님 대접할려고 도야지고기 썰어서 놔둔 고기아울라 불려가 불곡. 바람이 워낙 커났주. 초가집들 날아가곡, 농작물 피해가 막 심했어. 상당히 바람이 큰 태풍이었주. 하루 조금 더 불어신가?

금년 2009년은 태풍이 었어신디 보통 음력 7월 달에 태풍이 제일 많아. 일 년에 태풍이 혼 번 불 적에도 잇고, 두 번 불 적에도 잇고. 그러니 곡식이 크다가도 다 망치고. 으물 올라도 익기 전에 태풍이 때려 불민 그것도 망치는 거고.

농사가 힘들 때는 농작물 거둬들일 때라. 일기를 잘 만나면 좋고 우천이 됐면 안 돼곡. 금년에 콩허고 모밀을 심엇는디 밭 가는 샅도 들지, 비료도 줘야지, 모밀을 집으로 시경 오민 말리면서 바람에 불려야지. 깨끗이 해야만 팔 수 있어. 그러니 하나하나 일당을 따지면 영리가 별로 었어. 금년에는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심언 현디, 아직 ㄴ지는 계약이나 폰 사름이 었어. 앞으로 시세 금액이 얼마 갈지 몰라. 폴아 봐야 알지. 워낙 많이 심엇어. 간냥, 브로코리 ㄴ튼 거.(19)

【부록 Ⅱ】

동 의 서

본인은 제주4·3과 관련한 자료 수집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취하여 원본 사료로 만든다.
2. 구술 자료는 연구 및 여타 학술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다.
3. 녹취문과 그림을 출판하여 공개한다.
4. 사망 후에도 구술과 그림 자료에 대한 복사·이용 출판의 권리를 공유한다.

이 름 :

서 명(印)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날 짜 :

【부록 Ⅲ】

1. 「마크 로스코」



No.2(Blue, Red and Green)[Yellow,
Red, Blue on Blue]

1953년, 캔버스에 유화

205.7×170.2cm, 스위스, 개인소장



Saffron

1957년, 캔버스에 유화

177×137cm

리히텐슈타인, 개인소장



Untitled(Black on G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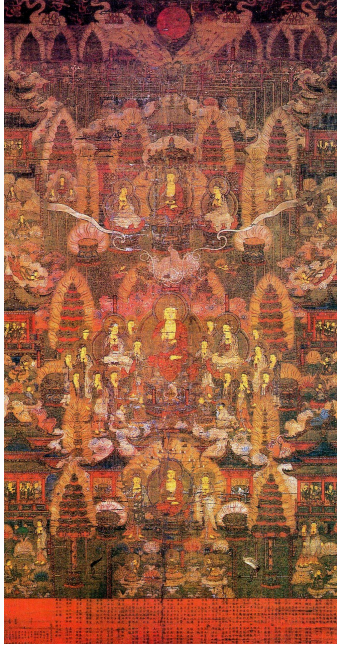
1969/1970년, 캔버스에 아크릴

203.8×175.6cm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마크 로스코 재단 기증, 1986년

2. 『고려불화』



1323년, 관경십육관변상도,
인송사 소장



13세기, 화엄정토변상도,
클라우스 나우만 소장

3. 『제주, 자연유산과 민속문화』



한란



제주달구지풀



한라꽃창포(한라돌창포)

4. 「나비일기」



산꼬마부전나비



남방부전나비



은날개녹색부전나비

Ph. D. Thesis

**An art therapy approach to the trauma of the survivors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 with its focus on their life history and art expressions -

Yu-Kyung, Kim

Departmen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Wae-Sun, Choi & Gab-Sook,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ves of the survivors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their trauma, and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the uprising, employing an art therapy approach. The followings questions were presented and answered in this study.

First, how do the uprising survivors hold their traumatic memories from the uprising? Second, does the approach based on art therapy and life history telling have any effect on reducing their trauma? Third, how were the survivors' perception of the uprising changed after receiving the approach based on art therapy and life history telling?

This qualitative case-study analyzed the survivors' own account of their lives and the expressions in their drawings. The study found three findings. First, the survivors still suffered from the painful memories even in 60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Though the degree of their suffering differed individually, they could not shed their trauma from the uprising completely. To treat their trauma on a long-term basis, a nationally built trauma center needs to be built. The treatment to the trauma caused by violence from the nation should be provided on a societal level. There should be concern from the community, proper emotional compensation, remorse for abandoning, forgiveness to the ignorance, and reconciliation if the deprived personal dignity due to the violence inflicted on individuals by their own country is to be restored.

Second, the survivors' own account of their life histories and art therapy treatment contributed to them reflecting on what happened to them and gaining emotional stability. In the process of telling what they could not tell, they were able to make sense of their thoughts, reaching the recovery or emotional stability. People with trauma caused by the political violence of the society they belong to tend to represent their experiences in a incomplete narrative structure. The use of art therapy was effective in that it allowed them to bring out the untold experiences in the forms of symbols in their drawings.

Third, two participants of this study showed shared opinions and some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the Jeju uprising. They attributed the innocent victims of the upris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y recalled moments that wer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excruciating to them between the armed guerrillas and punitive forces during the uprising.

As for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the uprising, In-Gun Kim, a participant

became emotionally stable in the progress of life history telling and art therapy. He recalled a good soldier who saved him from being beaten and became more lenient with the soldiers and police at the time who had to follow a given order on their part.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life history telling and art therapy were effective in helping the Jeju uprising survivors express their traumatized memories without hurting th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while other oral testimonials regarding the Jeju April 3rd uprising focused mainly on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truth, this study focused on looking at individual psychology on a deeper level.

Keywords: Jeju April 3rd uprising, Survivors of Jeju April 3rd uprising, traum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life history, art expressions, art therapy.